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 · 나약함 버려 중도를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0월 20일)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군부 강탈 봉은사 경내지 매각 무효…환지본처를”

조계종, 한전 상대 소송 판결 앞두고 기자회견

‘1970년 매각 부지=경내지’ 입증
“舊불교재산관리법상 위법 조치”
“주지 승인없는 강탈” 문제 제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 경내지였던 옛 한국전력부지(현 현대차 GBC부지) 매각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월 24일 봉은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한전부지 환수 및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 정권에 의해 당시 봉은사 주지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강압적으로 강탈한 봉은사 토지는 환지본처해야 한다”며 “당시 불교재산관리법상 사찰 경내지인 토지가 매각된 것은 허가여부 및 취득시효와 관련 없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봉은사 토지는 1970~1971년 제3공화국 당시 군사정권의 압력 속에 국가 발전을 명분으로 정부청사 이전 목적 하에 반강제로 매각된 곳이다. 3차례에 걸쳐 상공부 종합청사건립위원회 등에 매매된 규모는 14만 5491평에 달한다.

당시 봉은사 주지였던 서운 스님이 토지 처분을 거부하자 총무원장이 주지를 해임하고 스스로 봉은사 주지로 취임하는 등 졸속절차를 거쳤다. 군사정권 실세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조계종 신도회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였다. 당시 상공부는 봉은사 주변의 사찰 소유 토지를 매입했고, 이 부지는 환지(換地) 작업을 통해 현재 한전 부지로 자리가 바뀌었다. 한전 설립과 운영을 위해 1984년 1월 한전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한전은 해당 부지를 사옥부지로 활용하다 현대차그룹에 넘겼다.

삼보정재를 강탈당한 불교계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한전의 토지사용을 인내해 왔지만 한전이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자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조계종과 봉은사는 2007년 12월 한전을 상대로 ‘제3자 매각 부당’을 주장하며 환수를 요청했고, 2016년 한전부지환수위원회를 꾸리고 봉은사 토지 되찾기에 돌입했다. 2020년 한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해 1심 판결이 12월 24일 선고예정이다.

조계종은 이날 주지 승인 없는 토지 강탈 등 그동안의 주장에 더해 당시 불교자산을 총괄하는 불교재산관리법을 위배한 사실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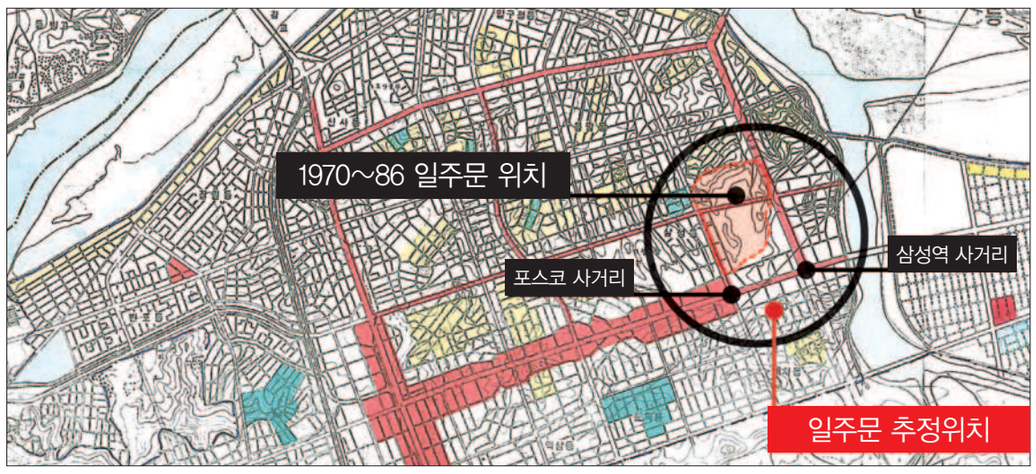
당시 봉은사 일주문의 위치를 분석해, 매각된 봉은사 토지가 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경내지였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조계종은 1950년대 봉은사 일주문 사진과 1970년 전후 기록, 봉은사에 주석한 흥교 스님 진술을 토대로 1970년과 1971년 봉은사 일주문의 위치가 삼성역 남쪽인 대명중학교 인근임을 밝혀냈다.

특히, 조계종은 1952년 故 임인식 사진작가가 촬영한 봉은사 일주문 사진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추정결과 현재 봉은사 일주문에서 남쪽으로 1km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경내지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 당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르면 매각절차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

소송을 맡고 있는 김종복 변호사는 “일주문부터의 경내지에는 조선시대 승과고시를 보던 승과평과 불교예법을 가르친 소나무숲, 봉은사 스님들의 요사채 등이 있는 사하촌이 포진돼 있다”며 “당시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매각 절차는 무효다. 여기에 봉은사 주지 서운 스님의 동의 없는 사찰재산 처분행위인 점과, 토지 처분 및 전환 2차 허가의 경우 관할청 허가가 없는 졸속 처분 행위는 원소유자인 봉은사의 권리회복이 타당함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불교계는 수천년간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켜왔다. 봉은사 토지 환수는 수천년을 지켜온 민족문화유산이 특정인과 정권의 강압에 의해 침탈당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역사문화가 일부 개발논리로 없어진다면 이는 5000년 역사가 없어지는 것으로 소송은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1973년 영동지구 도시계획 용도지역 계획도와 봉은사 일주문 추정위치.

“간절한 각오로 화두와 씨름하라”

진제법원 대종사, 신축년 동안거 결제 법어 내려

11월 19일 2000여 수좌, 선원서 안거 결제

조계종 수좌 2000여명이 전국 100여 곳 선원에서 일제히 신축년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11월 19일 결제 법어를 내리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우리의 인생은 오늘 있다가 내일 가는 것이기에 사람의 몸을 받은 금생(今生)에 생사윤회(生死輪廻)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금일 결제에 임하는 대중(大衆)들은 산문(山門)을 폐쇄(閉鎖)하고 회광반조(回光返照)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각오로 화두(話頭)와 씨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종사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화두를 내리고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가운데 오매불망(寤寐不忘) 간절히, 화두의심이 뼈골에 사무치게 의심을 밀고 또 밀고 할 것 같으면 석 달 이내에 모두 다 견성(見性)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특히 “견성은 부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선지식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선지식의 바른 지도를 받아서 바르게만 지어가면 일념이 지속되어 참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된다”며 “참의심이 한 달이고 일 년이고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고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조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하를 종횡(縱橫)하게 될 것”이라고 설했다.

각 선원에 방부를 들고 동안거 결제에 들어간 수좌 스님들은 11월 19일부터 2022년 정월보름까지 치열한 정진을 이어간다.

송지희 기자

INDEX 조계종 종정 · 총림 방장 동안거 결제 법어 10면



조계종 집행부 소임자 스님 50여 명은 11월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참회와 성찰의 1080배 정진’에 나섰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집행부 스님들 ‘정청래 사태’ 참회

11월 17일 조계사서 ‘참회 · 성찰의 1080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폄훼한 데 대한 불교계 공분에도 사과하거나 참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계종 집행부 스님들이 먼저 참회하고 성찰의 자세로 전통문화 보존계승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집행부 소임자 스님 50여 명은 11월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참회와 성찰의 1080배 정진’에 나섰다.

스님들은 정진에 앞서 발원문을 낭독하고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필부의 망언일지라도, 이 일은 오늘날 한국 불교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성적표”라며 “문화유산이라는 선대의 업적에 의지하느라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근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불교 문화를 창조하고 지혜와 자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라고 참회했다.

스님들은 △‘정청래 사태’와 관련한 안내자료 발송 △각종 공원에 편입된 사찰영역의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통제와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훼 발언’에 대한 규탄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11월 16일 대구 동화사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정청래 의원 망언 규탄 현수막’ 게재에 나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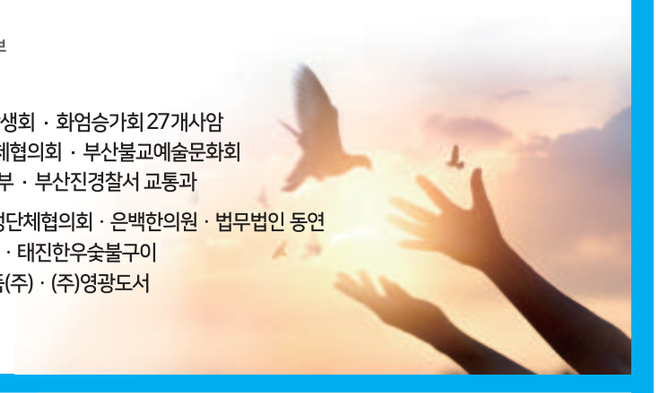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코로나19사망자, 자살과 교통사고 사망자
위 령 대 재 및
영가천도 무료접수 051)711-0700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좋은 부산 만들기
2021년 제4회 합동캠페인

| 일시 | 2021년 11월 27일(토) 오후 1시 | 장소 | 서면 영광도서 앞 광장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 주 관 | 부산불교교육대학 · 화엄승가회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문화체육관광부
| 증 명 | 서해 흥교 대종사
| 참 여 단 체 |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 부산불교교육대학 총학생회 · 화엄승가회 27개사암
부산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회 ·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 부산불교예술문화회
부산교수불자연합회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 협 찬 |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 화엄승가회 ·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 은백한의원 · 법무법인 동연
신창요양병원 · (주)부산스텐 · 수봉전자 · 우사부일체 · 태진한우숯불구이
해인의전 · (주)대호스톤 성우석건 · 석화원 · 우정약품(주) · (주)영광도서
| 주관방송사 | BBS 불교방송



전국 최초 최고 명품 교육기관
부산불교교육대학
개교 40주년



2022년 신입생 大모집
입학식 : 2022년 3월 7일(월) 오후7시
개교40주년 기념 특별과정
■ 지안스님의 〈법화경〉 강설 (6개월, 목 / 유튜브 강좌 병행)
자격증 취득 과정
■ 불교문화학과 (6개월 / 김춘식 교수) 사찰문화재 중심 시청각 강의 및 현장답사
▶불교문화 포교사(수) (민간자격 등록 2018-000374) ▶불교문화 전문지도사(급) (민간자격 등록 2019-000629)
승려연수 인증교육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8.22(월)~8.26(금) 5일간 13:30~16:30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비대면 ZOOM 화상 교육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
(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051-711-0700


조계종 중앙종회, 예산안 승인 없이 폐회

‘집행부 보이콧’ 기반한 종단 초유사태

6일간 성원부족으로 유회
11월 16일 회기 마지막도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회
안건일괄 다음 회기 이월
종회 파행에 엇갈린 시각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6일 222차 정기회를 정족수 미달로 폐회했다.

조계종 제222차 중앙종회 정기회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수차례 유회를 반복하다가 결국 폐회했다. 결산 종회의 핵심안건인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의 건도 다루지 못한 데다가, 그 원인이 ‘집행부 보이콧’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제222차 정기회가 11월 16일 폐회했다. 11월 11일부터 지속된 유회 사태가 회기 마지막날까지 이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속개하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회됐다.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결산종회가 예산안 승인 없이 유회를 반복하다 폐회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내년도에 집행할 종무행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종법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소집권자인 종회의장 외에도 총무원장이 필요시 15일 전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임시회 소집이 12월 이후로 미뤄지거나 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종무행정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종헌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된다.

종헌 제44조에 따르면 새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종무기관은 예산안 의결시까지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 △종법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지속사업 등 일부 목적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폐회 사태는 단순한 성원 미달이 아니라 집행부를 향한 중앙종회의 사실상 ‘보이콧’이었다는 점에서 시각이 엇갈린다.

앞서 중앙종회는 11월 11일 종회를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성원 부족으로 첫 유회를 선언했다.

이날 총무분과위원장 선광 스님은 “10일 본회의 종책질의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훼 발언에 대해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종회 불참은 종회의원 스님들 개개인의 의사표현”이라고 밝혔다.

이후 종회는 의사일정 기간 중 매일 열렸지만 속개되지 못했고,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11월 15일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일괄 보직 사임의사를 전달했다. 종회 유회사태와 관련, 집행부를 대표하는 소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16일 역시 정기회는 속개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이와 관련 어떤 상황이든 종회 파행은 중앙종회의 직무상 실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집행부 역시 중앙종회의 의사표시 이후 일괄사표를 제출했을 뿐 근본적인 쇄신의 토대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한 의원 스님은 “중앙종회 상당수의 의원 스님들이 집행부의 예산안을 보이콧 한 것은 대단히 무거운 결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책임있는 자세를 원했지만 현재 집행부에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개회될 지 미지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11월 17일 총무원 소임자 스님들이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훼 발언’과 관련해 참회와 성찰의 1080배를 봉행한데 이어,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소임을 내려놓은 것으로 확인돼 이후 중앙종회 임시회 일정 및 개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가화합 최우선 가치 삼겠다”

11월 16일 종단화합대법회
“승가 화합 최우선 가치로”
발원문 낭독 · 33배 참회정진



“저희들은 모든 허물이 이기심으로 비롯됐음을 인정하고 불보살님께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지혜로움과 자비심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본연의 길을 여일(如一)하게 걷겠노라고 역대조사께 서원합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11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한 ‘종단화합대법회’는 참회와 서원의 자리였다.〈사진〉 70여 명의 동참 대중들은 “일불제자로서 승가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부처님 전에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화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법회는 종단 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종단안정과 화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2020년 신년기자회견 당시 천명한 대화합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화쟁위원회는 지난 8월, 종단화합과 안정, 승가 대통합을 위해 종단화합대법회 개최를 건의했다. 이어 9월부터 ‘승가화합을 위한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 종단화합대법회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내부적인 성찰과 반성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동참대중들은 참회와 화합 발원문으로 법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표 낭독한 하림 스님은 “부처님 유훈에 따라 승가공동체 화합을 제일덕목으로 삼고 참회와 화합을 통한 조계종의 혁신으로 미래의 한국불교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발원했다.

동참대중은 이어 죽비소리에 맞춰 33배 참회 정진을 이어갔다.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교시를 통해 대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서로가 용서하고 존중하는 대화합의 장에서 우리의 시대정신인 불조의 소명을 우러러 높이 받들어 불교중흥 대장정에 백절불굴의 신념과 원력으로 대법륜을 굴려 이 땅에 불국정토를 성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화합 승가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약속했다. 스님은 “우리 종단은 갈등이 부정과 파괴의 투쟁으로 자라지 않도록 화쟁하는 역량이 부족했다”며 “서로가 함께 승가를 이루는 도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종단의 화합과 혁신을 통한 발전에 손 맞잡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원팀 동국…오고 싶은 학교 만들겠다”

건학위 최고위원장 돈관 스님, 17일 간담회서

법인 건학위 출범 6개월 만에
산하 115개 기관 건학위 설립
‘순환하는 장학금’ 토대로 혁신



학교법인 동국대가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건학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지 6개월만에, ‘202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9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건학위원회의 불교중흥 · 동국발전 · 건학불사 3대 지표 아래 모든 구성원이 부단한 노력을 했기에 거둔 성과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 최고위원장 돈관 스님〈사진〉은 11월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학위원회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스님은 “동국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제2의 건학이 필요하다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의 원력이 출범 기틀이 됐다”며 “동국 발전과 불교중흥의 뜻에 어긋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최고위원장으로 임명된 돈관 스님은 14개 산하 학교와 기관을 다니며 건학위원회 설립을 이끌었다. 실제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11월 16일 금산중 · 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산하 기관 건학위원회 설립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건학위원회는 교육 · 의료 · 지역 · 글로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115개의 세부 사업을 정리 · 논의중이다. 돈관 스님은 “교육 분야 53개, 의료 분야 25개, 지역 분야 23개, 글로벌 분야 14개 등 총 115개 세부사업을 정하고 기관별로 의견을 접수 중”이라며 “매주 한 차례 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토론 통해서 추진 과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산하 학교 · 기관 법당 개선 △장학제도 혁신 △동문 기업 중심 취업박람회 개최를 꼽았다.

스님은 “전국 학교와 기관을 다녀보니 현재 시대에 부합되지 않거나 위상에 맞지 않는 법당들이 많았다”면서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서는 법당 시설부터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학금 제도 혁신은 ‘학생은 등록금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학위원회의 발원이 담긴 것이다. 건학위원회는 4년간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사회 진출 뒤에 후배들에게 회향하는 순환적 장학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돈관 스님은 “모든 동국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국민이 다니고 싶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내년 중 개최될 취업박람회는 양질의 동문 기업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동문 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미리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돈관 스님은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은 항상 ‘하나되는 동국’을 강조하신다. 동국대와 산하 학교 · 기관들은 모두 하나가 돼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출재가 감소, 이유 있다”

화합과혁신위 연석워크숍서
명법 스님 “문제설정 선행”



“한국불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대안 모색보다 바른 문제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조계종 출가자와 신도 감소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불교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 반문해야 한다.”

해인사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사진〉이 11월 16일 조계종 화합과혁신위원회(위원장 정념)가 개최한 상임위원회 및 정책팀 연석워크숍에서 ‘한국불교는 지속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 무거운 화두를 던졌다.

이날 워크숍은 현대사회의 탈종교화 현상, 초연결사회로의 급격한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불교 위기를 인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명법 스님은 주제발제를 통해 “현재의 한국불교, 조계종이 직면한 위기는 종교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를 전달하는 형식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문화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님은 “불교가 제공하는 종교적 체험은 진실한 것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에 의해 진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결국 한국불교의 위기는 내용적인 부분,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 즉 콘텐츠를 전달하는 사람과 방식, 공동체 문화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직언하기도 했다.

때문에 스님은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바른 문제설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사단법인 세계불교교황청
World Buddhism Monarchy Corporation

본 청은 네팔 세계불교승가재단에서 인정을 받아 한국문화관광부 소관 종교단체법인설립허가 제 2020-11호를 받아 세계적인 종교단체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 네팔정부관계자들과 세계불교교황청건립불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각국 고승들의 염원으로 발족이 된 단체이므로 불조의 혜명아래 중생구제와 불법홍포로 세계평화를 위하여 불국토 건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니 원융화합을 목표로 다 함께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세계불교교황청 명의를 도용하거나 무단사용 했을시는 법적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세계불교교황청 청장 석능인
임원, 이사진 일동 합장

●**홈페이지** : www.monarchywbc.com
대구시 북구 칠곡 중앙대로 291 2층 사단법인 세계불교교황청
●**행정실** : 053)321-5008 ●**팩스** : 053)321-6008 ●**Email** : buddhasangha@naver.com
●**행정국장** : 010-7335-9753 ●**행정실장** : 010-3698-1943
●**종무실** : 053)352-0400 ●**팩스** : 053)325-4848 ●**Email** : sambo111@hanmail.net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 세계불교교황청 총본산 각황사

각 종단 및 사찰 가입환영

- 종단 단체등록증 발급함
- 사찰등록증, 승려증, 수계증 발급함
- 법계(품계)증서 발급함
- 사찰보호 및 관리운영지원함
- 가입한 개인사찰은 소유권 인정 및 일체 관여하지 않음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 1매
  여권용사진(가사장삼수지) 1매
  입회원서는 행정원에 구비되어있음
- 현재 가입된 국내외 단체는 국내 24개 종단, 국외 5개 종단, 사찰 122개 등록되어있습니다.
- 본 청에 소속된 승려는 입적 후 절차에 따라 사십구재 및 영구제사 부도탑 설치함

“AI시대 승가상 정립 필요…교육부터 변화를”

조계종 승가교육 학술대회 잇달아
보일스님 ‘AI시대 승가교육’ 눈길
미래 출가자는 ‘디지털 네이티브’
조계종 교육원, 교과목 내실화도
교육아사리 역할 · 활용 방안 모색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오늘과 내일’ 주제 학술대회에서 발제하는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람도 승가도 이에 적응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서 승가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잇달아 마련됐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암)가 11월 16일 서울 종로 AW컨벤션센터에서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주제발표 논문 ‘AI시대의 승가교육’에서 AI시대 필요한 승가상을 고찰하고 승가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살폈다.

보일 스님은 앞으로 출가하는 미래 세대들을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지칭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미래학자인 마크 프렌스키가 제시한 용어로,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 디지털 기술과 기기가 일상적인 삶을 이루는 세대를 말한다.

이들이 포교의 대상이자 출가의 대상이기에 AI시대에 요구되는 승가상도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보일 스님은 AI시대 승가상으로 △다양한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통합적 시각을 지닌 사람 △종교 · 학문 · 예술 등 여러 영역과 교류가 가능한 사람 △다양한 일상 문제를 성찰하고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을 꼽았다.

스님은 “4차 산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는 한문 경전 번역과 독해도 인공지능이 대신할지 모른다”면서 “막대한 데이터를 축적한 플랫폼이 다수에게 접근 가능해지면서 관건을 많은 지식을 쌓느냐가 아니라 그 지식,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중요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는 많은 경전을 외우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경전을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지 아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보일 스님은 AI시대 승가교육 변화의 키워드로 △커리큘럼에서 프로그램으로 △교실에서 현장으로 △받는 수업에서 하는 수업으로 등을 꼽았다.

기존 승가교육의 커리큘럼은 학생보다 교수사 중심이며, 정형화돼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되기 어렵다는 게 스님의 지적이다. 스님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적용해 나가면서 최적화하는 것이 현대가 요구하는 불교 인재 양성의 방법이자 승가의 혁신”이라고 역설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승가교육의 변화는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실제 조계종 교육원은 기본교육기관 표준교과과정 일부를 축소하고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백과사전식 교과목 편성보다는 학인들이 불교의 기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11월 12일 열린 ‘2021년도 상주교수 연찬회’에서 교육원이 추진하는 사찰승가대학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원은 사찰승가대학 표준과정에서 필수교과목을 22과목서 20과목으로, 선택과목 27개를 15개로 줄인다. 한문불전은 그대로 존치하되 한글세대 학인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편키로 했다. ‘불교개론’을 통해서는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불교의 인생관, 수행관, 세계관을 확고히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교과목 학점은 기존 102학점에서 81학점으로 줄었지만, 수행교과와 수행실수, 자원봉사의 학점을 높여 사중 수행과 봉사활동에 비중을 높였다.

서봉 스님은 “표준교과과정이 확정되면 2022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교재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사찰승가대학 교과과정에 승가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는 교과목을 제대로 편성한다면 학인들은 역사와 사회를 이끌 미래 승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연구자인 교육아사리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11월 15일 교육아사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前 해인사 승가대학장 무애 스님은 ‘교육아사리 10년의 회고와 전망’에서 그간 교수아사리 활동과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갈 종책 방향에서 제언했다. 무애 스님은 앞으로 교수아사리의 활동 방향에서 대해 △연구 대상 스펙트럼 확장 △자생적 연구활동 인프라 구축 △사찰 현장과 학문의 연계 △불교 원전어 확충 등을 제언했다.

무애 스님은 “개인적으로 서지학 · 문헌학적 연구가 학문 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사회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회향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불교의 목적과 부합되는 ‘괴로움을 없애주는(離苦得樂)’ 학문 연구로 스펙트럼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지식을 가진 교육아사리를 승가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전어가 확대돼야 함을 제안했다. 스님은 “원전어에 대한 불전언어를 확립한 교육아사리들이 사찰교육기관으로 들어가 안정적 상태에서 다국적 불전을 연마하는 것이 학문 일변도의 불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법사장학회, 직접 만든 유과 판매로 학생들 지원

11월 18일 동국대 서울캠과 약정식
1000만원 희사…10년간 1억원 후원



원법사장학회(이사장 해운)가 경북 출신 동국대 서울캠퍼스 재학생들에게 10년 간 1억원을 후원하며 동국대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탠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11월 18일 서울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원법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사진〉 원법사장학회는 이날 포항과 영천, 영덕 출신 재학생 10명에게 100만 원씩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간 매년 1000만 원씩 1억 원의 장학기금을 후원하기로 약정했다.

원법사장학회는 포항 원법사 소속 장학회다. 2008년부터 지역 초 · 중학생에게 장학금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470여 명에게 2억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경주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활동을 펼쳤으며 서울캠퍼스 재학생에 대한 장학기금 수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원법사장학회 장학금은 원법사 신도들이 직접 만든 유과를 판매해 생긴 수익금이 포함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이사장 해운 스님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2015년 졸업생으로, 그동안 받은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회향하게 돼 기쁘다”며 “학생들이 나라와 불교를 빛낼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 LH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선 MOU

11월 17일 업무협약 체결
시설 · 심리 치료 지원키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 희망둥지의 시설 개선과 시설 이용 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조계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힘을 합쳤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11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희망둥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LH는 남양주에 위치한 한 임대주택의 지층 공간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10년 간 무상 제공하고 시설 개선과 심리 상담 치료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원행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전문적인 종사자들이 이웃을 살피는 일에 힘쓰고 있다”며 “LH 측에서 제공한 혜택으로 피해 아동을 돕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계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월 17일 학대피해아동쉼터 희망둥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재단과 협의해 추가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 학대로 상처입은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일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사 보물 불상 ‘발원문’ 사라졌다

주지 인수인계서 확인해
종단 · 문화재청 유실신고
“유통 못 되도록 최선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중 발원문이 사라진 것이 확인됐다.

군산 동국사(주지 재안)에 따르면 보물로 지정된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불상과 복장유물을 조사하던 중 소조가섭존자 입상 발원문이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 조계종과 문화재 당국에 신고했다.

지난 10월 동국사는 주지 인수인계를 위해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 유물 조사를 요청했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발원문이 유실된 것을 확인했다.

군산시 역시 발원문의 유실을 확인하고 수장고를 점검했지만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국사는 조계종 총무원에 발원문 유실에 대해 신고했으며, 군산시도 문화재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문화재청은 조사팀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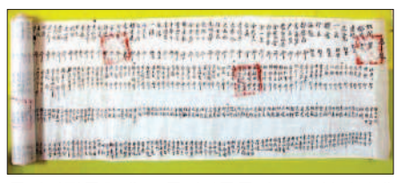
주지 재안 스님은 “주지로 취임한 뒤 동국사 소장 성보에 대한 조사를 종단 측에 요청했다. 그 조사 과정에서 발원문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면서 “해당 발원문 유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사 등은 분실 시점은 2019년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2019년 7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동국사에게 대여를 받아 해당 유물들을 전시하고 12월 인계했으며, 그해 12월에도 군산시가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서를 펴냈기 때문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문화재 유실에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에 통해 문화재청 신고까지 마친 상태”라면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동국사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유실 가능성 높지만 조계종 측은 도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유통되지 못하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중 발원문. 동국사는 주지 인수인계 과정서 소장 문화재를 조사하던 도중 소조가섭존자입상 발원문이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 조계종과 문화재 당국에 신고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우당 인각 대종사
전국선원수좌회장 봉행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정총림수좌와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지내신 금우당 인각 대종사께서 지난 11월 11일 새벽에 범어사 금어선원 청풍당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에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영결식과 다비를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인각 대종사 장례에 함께해 주신 원로대덕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대종사께서 늘 강조하신 신심과 수행정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화두를 참구하라는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 저희도 더욱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인각 대종사 추모일정(49재) 안내

초재(범어사 보제루)	11월 17일 (음 10월 13일) 수 오전 10:30
2재 (범어사 보제루)	11월 24일 (음 10월 20일) 수 오전 10:30
3재 (범어사 보제루)	12월 1일 (음 10월 27일) 수 오전 10:30
4재 (범어사 보제루)	12월 8일 (음 11월 5일) 수 오전 10:30
5재 (범어사 보제루)	12월 15일 (음 11월 12일) 수 오전 10:30
6재 (범어사 보제루)	12월 22일 (음 11월 19일) 수 오전 10:30
7재 (범어사 보제루)	12월 29일 (음 11월 26일) 수 오전 10:30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문의 : 051-508-3636

불기 2565(2021)년 11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 금정총림 범어사 · 문도 일동

범어사 성보 보존할 '천년 寶庫' 문 열다

범어사, 11월 16일 신축 성보박물관 개관 기념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성보박물관이 신축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1월 16일 개산 1343주년 개산대제 법요식에 이어 범어사성보박물관 신축 이전 개관식을 개최하고 성보박물관을 새롭게 열었다.

신축 범어사성보박물관은 연면적 2959㎡ 규모이며 지상 2층, 지하 1층 총 3개 전시관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범어사 측은 "국내 성보박물관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박물관 입구인 중정부 공간에는 11m 높이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대형불화인 범어사 괘불도를 걸었으며, 국보인 〈삼국유사 권 4~5〉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1층 상설전시관에서는 '범어사 사천왕도', '대웅전 영산회상도', '범어사 비로자나불회도' 등 그동안 선보이지 못한 중요문화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비했으며, 2층 기획전시관에는 '범어사 대웅전 삼장보살도', '범어사 황실 축원 장엄수' 등 공예품을 볼 수 있는 '범어사의 공예-공덕과 장엄을 만나다 展'을 개최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기증전시관, 기획전시관, 상설전시관 뿐 아니라 금정산 녹지로 쌓여진 자연친화적 공간을 자랑한다. 야외테라스 공간도 마련해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무료 개방한다.

개관식은 △고불문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법문 △사홍서원 △제막 △박물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금정총림 방장 지유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경선 스님과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정미영 금정구청장, 백종헌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범어사는 신축 성보박물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정미영 금정구청장과 황동열 홍기종합건설 대표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새롭게 임명된 관장 환응 스님을 소개하며 신축한 범어사 성보박물관을 통해 성보의 가치를 널리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연면적 2959㎡ "국내 최대 규모"
중정 공간에 11m 대형괘불 전시
국보 삼국유사 권 4~5 최초 공개

방장 지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성보의 가치를 통해 참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다"며 "성보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보물이다. 그 뛰어난 가치를 잘 보존 보관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격려했다.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개관 이래 여러 전시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소장유물이 늘어나고, 공간이 협소해짐에 따라 여러 한계점에 이르렀다. 특히 초대 박물관장으로서 박물관의 한계를 여실히 느껴왔기에 신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새롭게 성보박물관을 지으며 전시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성보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제 천년을 이어갈 새로운 보고를 마련했다. 불사를 위해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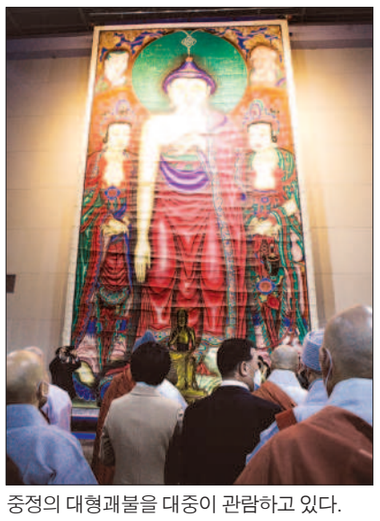
신임 관장 환응 스님은 "오랫동안 박물관을 운영하며 성보에 대한 가치와 불교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신 주지 스님의 뜻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겠다"며 "앞으로도 그 뜻을 잊지 않고 받들어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을 전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2003년 3월 26일 경선 스님을 초대 관장으로 개관했다. 개관 이후 소장 중인 문화재의 수가 늘어나고 전시공간이 부족해 신축 성보박물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수장고가 협소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8월에 사업계획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했으며 2017년 4월은 문화재청에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2018년 국비사업을 신청했다.

2017년 5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시행했으며 예산 125억4천40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5월에 부산시와 금정구를 통해 2018년도 투자사업비 55억 4400만 원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 19일에는 범어사 성보박물관 건립 착공식을 봉행했으며 2021년 6월 30일 범어사 성보박물관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11월 16일 성보박물관 신축 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신축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연면적은 2959㎡ 규모이며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조성됐다.


중정의 대형괘불을 대중이 관람하고 있다.


최초로 공개된 국보 〈삼국유사〉권4~5를 방장 지유 스님과 내빈들이 보고 있다.

통도사 개방형 수장고 건립 '본격화'

11월 15일, 건립불사 기공식
성보 보존 · 전시 동시 가능
2023년 건립불사 완료예정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에 불교박물관 최초의 '개방형 수장고'가 마련된다. 통도사는 11월 15일 서운암에서 '개방형 수장고 건립기공식'을 봉행하고 불사를 시작했다.

통도사 개방형 수장고는 개방형 수장고로 유물 보존과 전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별함을 자랑한다.

기공식은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축사 △시삽 △축가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산내 원로 스님 및 김일권 양산시장, 박종훈 양산시 교육감, 윤열수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통도사는 국보와 보물, 유형문화재를 포함해 4만 5천여 점에 이르는 유물을 간직한 명실상부 역사문화의 보고"라며 "통도사에 건립 될 개방형 수장고는 문화재에 대한 기존의 보관, 보존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재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전시 · 공유로의 전환이다"고 뜻을 전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11월 15일 통도사 서운암 수장고 공사현장에서 '개방형 수장고 건립기공식'을 봉행했다.


2023년 완공될 통도사 개방형 수장고의 조감도.

통도사는 1998년 개관한 성보박물관의 노후화와 공간부족으로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장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후 통도사는 부지 3,749㎡, 약 1,134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개방형 수장고 사업을 진행했다. 수장고 지하 1층에는 개방형 체험 다목적실과 학예실, 유물 정리실, 전기실 등이 위치하며 지상 1층은 로비와 관람객의 쉼터인 편의시설, 문화재 이동 관리 공간들이 자리한다.

특히 수장고는 대형괘불을 보여줄 수 있는 불화 전문 박물관으로 높이를 조정했으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최첨단 시스템이 설치된다. 개방형 수장고 건립 사업은 2020년 1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비 4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고, 설계업체 선정 및 계약이 체결됐다. 2021년 8월에 문화재청 설계승인과 함께 총사업비 105억원이 확정됐으며 2년 후 준공을 목표로 착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담스님 정화정신, 정진으로 완성을"

도선사 11월 15일 열반50주기 추모다례재 봉행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으로 한국불교 정화운동을 일으키고 불교 중흥의 기틀을 닦은 청담 대종사를 선양하는 자리가 열반 50주기를 맞아 도선사에서 열렸다.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는 11월 15일 호국참회원에서 청담대종사 열반 5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 원행 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청담문도회 상좌 스님들과 손상좌 스님들을 비롯해 원택 스님, 금강회 회장 보인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 중앙종회의원 스님과 호계위원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최상원 직할교구신도회장, 김형동 국회의원, 안광석 · 이종환 서울시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다례재에 참석한 대중은 한국불교 정체성을 확립한 청담 스님 영전에 차와 꽃을 올리며 스님이 남긴 가르침을 되새겼다.

이날 청담문도회 대표 동광 대종사(도선사 회주)는 "청담 스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 밖에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다"며 "우리 종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진하면 이 세상을 구제하는 부처님 제자로서 훌륭한 수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청담 스님 50주년을 맞아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도선사 주지 소임을 시작한지 한달 남짓 되었다. 앞으로 우리 청담문도들은 일심으로 화합하고 도선사를 중심으로 청담 스님의 가르침과 유지를 받들어, 호국참회기도도량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며 "청담 스님의 대원력과 가르침이 만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청담 대종사께서는 일제불교를 청산하기 위해서 기치를 드셨다"며 "스님께서는 종단 정화에 30년, 스님 정화에 30년, 신도 정화에 30년을 해야 한국불교가 기반위에 오르신다고 했다. 이제 60년이 지났고, 갈 길이 멀다"고 청담 사상의 유지계승을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불교정화의 기수로 지칭되며 최일선에 서계셨지만 정화과정에서는 '인욕보살'이라 칭송을 받으셨다"며 "언제나 마음공부를 강조하시며, 참선과 참회를 반복하는 수행을 놓지 않으셨다. 이러한 정신은 정화의 근간이 되고, 국민정화로, 호국사상 실현으로 이어졌다"고 추모했다.

다례재에서는 前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의 추모시 낭독 등이 진행됐으며, 주지 태원 스님의 감사인사를 끝으로 죽비삼배와 함께 마무리 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청담 스님 열반50주기 다례재에서 헌화하고 있다.

"삶의 터전 복귀가 진정한 일상회복"

조계종 사노위 등 3대 종교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 기도회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이 부당해고당한 지 552일째. 차디찬 거리 농성장에서 두 번째 겨울을 견뎌내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거리에 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11월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과 함께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해 노동위원 시경 스님, 동신 스님, 한수 스님, 대각 스님, 수련 스님,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장기용 목사,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김시몬 신부, 해고노동자 등이 동참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매서운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내면서 복직농성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사측은 해고 노동자의 마음에 생겨난 상처와 고통의 매듭을 푸는 것이 더 큰 불행을 막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지몽 스님은 10 · 27법난 승려문예 공모전 수상 상금 전액을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에게 전달하며 조속한 복직을 염원했다.

김계월 지부장은 기도회를 마련해 준 종교지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지부장은 "위드코로나로 일상을 회복한다지만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해고노동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회복"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현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기도서 나눔 이어지는 '공덕 2배' 시스템

안심정사 창건 30주년

1. 한국불교 새 바람
2. 행복을 일구는 기도
3. 신심의 회향과 나눔
4. 운명을 바꾼 불자들
5. 법안 스님의 인터뷰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전국 6개 도량을 중심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한 행복을 전하는 안심정사(회주 법안)는 불자들 사이에서 소원성취 도량, 기도도량 등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어느 사찰의 법회를 가도 '정말잘돼' 스티커를 휴대폰 뒷면에 부착한 불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정도다. 거주지역에 안심정사 도량이 없어 직접 참배하지 못하더라도, 안심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수불공'에 참여하거나 기도공양을 올리면서 신도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안심정사는 의외로 불교계 외부에서도 인지도가 높다. 지자체 관계자, 특히 군장병들에게는 '안심정사' 명칭 하나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마력이 있다. 문화재 보유 사찰도 아니고 절경으로 알려진 산사도 아닌 안심정사의 인지도는 바로 '나눔'에 있다.

불자가 아닌 이들에게 안심정사는 대표적인 나눔도량이다. 때때마다 지자체 곳곳에 소외이웃을 위한 쌀을 대규모로 후원하고, 전국 군법당 90%에 초코파이 등을 수십년째 지원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눔규모만 연간 5억원을 상회한다. 그 지속성과 남다른 규모는 안심정사의 나눔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다. 한번이라도 이를 목격한 이들은 안심정사라는 명칭만 들어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게 되는 것이다.

안심정사는 군부대에서 특히 유명하다. 군포교를 견인하는 주축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군포교는 젊은 세대 불자를 양성하는 핵심토대로 인식되지만, 언제나 이웃종교에 뒤처지고 있다는 아쉬움이 내재된 분야다. 군포교 활성화는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관심과 직결된다. 때문에 누구나 중요성을 알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안심정사가 군포교 분야에서 손꼽히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바로 '초코파이'. 지속적인 초코파이 나눔이 복무중인 군인들을 군법당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다. 실제 초코파이 지원은 즉각적인 변화와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불교세가 약한 군부대에 초코파이 지원을 시작하면 그해 불교를 선택하는 장병 비율이 80%까지 치솟기 때문이다.

군부대는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가 바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초코파이'를 통한 치열한 종교경쟁의 현장이다. 처음에는 2박스였다. 안심정사가 논산에서 개산한 1990년 초코파이 2박스를 인근 군부대에 전달한 이후,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선호도에 따라 초코바 보시도 추가됐다.

입소문이 나면서 군법사들의 지원 요청이 잇따랐다. 안심정사는 초코파이 지원을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토대로, 더 많은 부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여기에는 "군법사들이 초코파이를 구하러 다니게 되면 정작 중요한 포교를 못한다"는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의 확고한 생각이 배경이 됐다. 스님은 "군부대야말로 '청년 포교'의 핵심 요지"라는 원력으로 30년째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며 군포교에 집중하고 있다. 전국 군법당 90%에 초코파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 파병부대까지도 안심정사의 초코파이가 전해지고 있다.

"군부대에서 불교를 접하고 불연을 맺은 청년들은 사회로 나간 뒤에도 불자가 되거나, 적어도 불교에 호의적인 인상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초코파이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이를 통해 군법당을 찾아 부처님을 만난 젊은이들은 법당에 한번도 참배해 보지 않은 젊은이들과 불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월 초코파이 지원만 평균 2000만원 상당, 연간 2억원을 훌쩍 상회한다. 여기에 '럭키체인' 단주와 '부처님말씀' 소책자 보시도 추가된다. 군장병들을 위해 직접 제작하는 '럭키체인'은 불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착용할 수 있도록 안심정사만의 스타일로 디자인됐다. 그래서 명칭도 단주가 아닌 '럭키체인'이다. '부처님 말씀' 소책자는 분기별로 제작해 전국 군법당으로 배포된다.

'부처님말씀' 소책자는 쉽게 풀어쓴 경전 구절과 불교 교리로 장병들에게 인기가 높다. 여기에 달력과 메모장을 첨부했고 자살방지 진언도 함께 수록했다. 군생활을 하는 장병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다. 군장병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가장 많을 때는 24만권까지 배포했다. 제작비와 발송비도 온전히 안심정사의 몫이다. 안심정사가 연간 군포교를 위해 지원하는 액수가 수억원 규모인 이유다.

기도비 · 불전, 나눔으로 회향
매년 전국 군법당 90%상당에
군장병들 위한 초코파이 지원
월 평균 2000만 원 이상 규모
지자체 통해 소외이웃 후원도
쌀 지원 규모는 연간 130여톤

연초, 명절 등 때마다 지자체를 통해 소외이웃을 위한 쌀도 지원한다. 6개 지자체에 매년 120톤 상당으로 손꼽히는 규모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상당수 사찰이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안심정사는 되레 지원규모가 늘었다. 올해에는 쌀 10톤이 추가된 130톤 규모로 상승했다. 안심정사를 직접 찾아 기도하진 못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이 기도와 재수불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쌀 후원과 나눔 동참금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지원기금이 온전히 신도들의 기도비와 공양금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다. 안심정사는 '만선공덕회'를 통해 군포교 후원금을 축적하는 동시에, 재수불공 기도비와 방생법회 참가비, 불전 등을 온전히 군포교를 비롯한 나눔으로 회향하고 있다. '만선공덕회'라는 명칭에는 "많은 선행으로 공덕의 탑을 쌓는다"는 의미가 담겼다. 명칭 그대로 십시일반의 형태다. 개개인의 원력이 담긴 1만원, 3만원이 모여 매월 수천만원의 나눔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대목은 '만선공덕회'를 운영하는 주체 역시 사찰이 아닌 신도들이라는 점이다. 만선공덕회 운영소임을 맡은 신도가 매월 후원금과 지출내역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투명한 운영방식은 매년 후원금이 증가하는 토대가 된다. 후원증빙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심정사 각 도량의 종무소를 통해 '시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안심정사에서 '나눔'과 '기도'는 하나로 귀결된다. 기도를 통해 들어온 기금을 나눔으로 회향해, 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이 선업을 쌓는 계기로 삼기 때문이다. 기도의 공덕에 보시의 공덕이 더해져, 기도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공덕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설명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나눔으로 이어지는 안심정사의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이자, 불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을 전하는 핵심고리인 셈이다. 기도를 통해 모인 금액을 나눔으로 회향하는 과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군포교 일익까지 담당하게 되니 요샛말로 '기도의 가성비'가 어마어마하다.

법안 스님은 "재수불공, 혹은 기도공양으로 시작해 점차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 불자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며 "기도와 나눔은 나와 타인의 삶을 행복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맥을 함께한다. 기도를 통해 삶을 변화시킨 불자들의 나눔실천이 확산될 수록 우리사회는 더 살기 좋은 불국토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군장병 수계법회를 봉행한 회주 법안 스님.



초코파이를 지원 받은 군장병들이 웃고 있다.



후원받은 호국비룡사 장병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법안 스님이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현장에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지자체에 쌀을 전달하는 모습.


해외 파병부대로 배송된 초코파이 박스들.



불교인재양성의 메카

안심불교학술원

안심불교학술원은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의 교화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대승불교 정통교리와 실용불교의식, 상담기법을 비롯한 체계적인 사찰경영 노하우를 교육하는 전문기관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 불교인재양성을 목표로, 안심정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지난 30년 간 응집된 포교노하우를 무상으로 공유합니다. 재가불자와 범종단 스님, 불교에 관심이 많은 비불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02)577-4557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18
홈페이지 | http://www.ansimacademy.com/

안심불교학술원 교과과정

구 분	과 목
사찰경영	사찰경영과 상담비법 사찰경영과 종무행정 세법과 사찰의 세무관리 사찰경영 사례연구 불교커뮤니케이션
불교의례	실용불교의식 불교의례의 구조와 이해
불교교학	대승불교교학체계 불교와 사회 바로보기 비교종교학 불교학 특강
명 상	명상과 심리상담
사찰교양	사찰예절 꽃꽂이 안심다례 서예 사찰음식

미소원, 함께 웃는 세상 만들기 10년

11월 13일 개원 10주년 기념법회

나눔 · 상담 등 계층포교 10년
정각 스님 윤태원 공로상 수상
생명나눔실천 등에 포교지원금
"전법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11월 13일 부산 범일동 미소원 법당에서 '개원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함께 웃는 세상을 꿈꾸며 봉사와 나눔으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미소원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및 상담 그리고 기도 수행으로 정진하고 있으며, 계층포교를 위한 전법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눔과 수행, 포교 등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개원 10주년을 맞아 미소원은 함께 활동해온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 및 BBS불교방송 법소리에 포교지원금을 전달했다. 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에는 기금 1천67만4270원을 전달했으며 포교지원금 500만 원을 박종호 법소리 회장에게 후원했다. 이날 법회에서 미룡사 회주 정각 스님과 윤태연 미소원 고문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정인하 · 윤경애 봉사팀장이 동구청장상을 받았다.


사단법인 미소원이 11월 13일 부산 범일동 미소원 법당에서 '개원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개회사 △회기입장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미소원 경과보고 △공로상 수여 △동구청장상 수여 △기금전달식 △축사 △미소원 10년의 발자취 영상 시청 △10주년 케절단식 △인사말 △내빈소개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미룡사 회주 정각 스님과 대광명사 주지 목족 스님, 연종학림 청명 스님,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 장유정 이사장,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미소원은 정각 스님을 비롯해 목종 스님, 주석 스님, 법륜 스님 등 모든 스님들의 활동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왔다. 모범이 되어 주신 모든 스님들께 감사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해준 원동력은 우리 회원들이다. 봉사 나눔을 실천했고 상담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전법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각 스님은 "미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과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니며 봉사하는 재가불교단체이다. 10년 동안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으로 활동해왔다"며 "아름다운 활동과 나눔을 높이 평가하며 불교재가자 단체 가운데 으뜸이라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미소원에서 환하게 미소 짓는 이 모든 분들의 밝은 기운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은 10년 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반찬을 만들어 부산 동구지역 소외 이웃을 직접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했으며, 명절음식 및 떡국떡, 강정 등 명절 음식을 지원했다. 또 복지관을 방문해 어버이날 재가 어르신을 위한 후원금과 음식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또 법무부 소속 구치소 교정활동을 위해서 불서 500여 권을 지원했으며 해외포교 및 구호활동을 위해 한국 JTS에 우물파기 및 결핵 환우 돕기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미소원 소속인 청년회는 희귀질환 장애아동 가정을 선정해 재활치료비를 후원했으며 아빠봉사단은 동구지역 취약계층을 방문해 전기와 수도, 누수, 외벽 수리 등 집고치기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각대종사여! 속환사바하소서"

11월 15일, 인각 대종사 영결식 엄수



"크게 한번 죽으니 대활(大活)이 목전(目前)에 나타남이로다. 밝음과 어두움이 사라지니 홀로 법신(法身)이 드러남이여. 금정산 새벽하늘에 진적(眞寂)를 보이고 나 이제 떠나도다." -인각대종사 임종게.

11월 11일 원적에 든 범어사 수좌 금우당 인각 대종사의 영결식이 11월 15일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엄수됐다.〈사진〉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진행된 영결식에는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 장의위원장 무여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장의부위원장 영진 스님, 일오 스님과 문도를 대표해 수불 스님, 무관스님,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영결식에서 방장 지유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인각 스님의 부고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중은 '몸을 버리기 전에 무엇을 하고 떠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야 한다"며 "자신의 본래면목을 알아 마음을 깨닫기 위해 정진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의위원장 무여 스님은 "금정총림의 수좌 인각 스님, 참선은 모든 경계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힘이라고 베풀어 보이시고, 화두참구는 목숨을 담보해야 한다는 말이 일전어(一轉語)가 되었다"며 "'화두를 들어라. 손 내밀면 산이 밀리고, 발 뻗으면 땅이 꺼진다'는 간명직절(簡明直截)의 법문을 온몸으로 설파하셨기에, 선문에는 언제나 화두참구의 간화경절(看話徑截)이 천고방양(千古榜樣)이 될 것이며,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수행 풍모는 장군죽비가 되어 성성적적(星星寂寂) 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금우당 인각 대종사는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역임하시며 선풍을 진작하고 금어선원의 유나로 계시며 금정산을 찾아오는 수좌들을 제접하셨다"며 "푸른 선기가 빛나던 법체는 또렷하게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 있고 그 빛은 저물지 않고 심인(心印)의 설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각 대종사의 법구는 오색만장기가 이끄는 장의 행렬을 따라 영결식장에서 율원, 설법전을 지나 사천왕문, 일주문을 마지막으로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다비장에서 사부대중은 흐느끼며 "큰 스님 불 들어갑니다"고 소리치며 속환사바할 것을 기원했고 인각 대종사의 법구는 적멸의 가르침을 일러주듯 금정산 아래 널리 흩어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복합문화공간 쿠무다' 신축 개관

12월 9일 오후 2시 개원식 개최
현대 필요한 불교문화 포교공간


신축한 복합문화공간 쿠무다 전경.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이하 쿠무다)가 12월 9일 신축 개원식을 개최하고 정식으로 대중과 만난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는 11월 15일 쿠무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쿠무다 개원 및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불교의 종교적 역할과 사회적 문화 역할을 어떻게 엮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 시작으로 복합문화공간 쿠무다가 만들어진 것이다"며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내실을 다지느냐다. 불교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현대사에 필요한 문화 포교가 어떤 것인지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정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축 쿠무다는 지하 2층과 8층 건물 그리고 하늘정원이 있는 옥상을 포함해 총 11층이며 대지면적 594㎡(180평), 연면적 2970㎡(900평) 규모이다. 모든 층에서 부산 바다 송정을 조망 할 수 있으며 불교와 현대 문화예술의 만남을 표현했다. 특히 서칠교 작가, 오채현 작가 등 이 시대 대표 작가들이 표현한 불보살의 세계를 담았다.

주석 스님은 "불교 문화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희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숙박과 음식 그리고 공연을 접목한 컬쳐스테이와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시대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연구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 포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무다 개원식은 12월 9일 오후 2시 콘서트홀 지하 1층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제방의 대덕 스님을 초청해 봉행한다. 1부 개원식에 이어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문화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복장식과 점안식은 12월 7일 오후 2시와 12월 8일 오전 10시 해인사 무관 스님의 증명으로 진행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통영불교사암聯, 겨울나기 자비나눔

10일, 26가구 난방유 등 전달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묵)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통영시 명정동 일대에서 겨울나기 자비나눔을 진행했다.

나누우리봉사단과 통영불교거사림이 공동주최한 이번 자비 나눔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원하며 개최됐다. 통영사암연합회 회장 용화사 종묵 스님, 보현사 묵원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등 동참 사부대중은 명정동주민센터와 지원 가정을 직접 방문해 난방유와 간편식을 전달했다. 지원가구는 총 26가구이며 속옷, 화장지, 라면과 즉석 곰탕 등 간편식 세트, 난방유 총 4200리터와 연탄 1000장이 전달됐다. 또 기름보일러 교체작업도 진행됐다.



종묵 스님은 "어려운 시절이지만 스님들과 불자들이 빠짐없이 일심으로 동참했다"며 "이 지역에서 살아가며 조금이나마 공동체 된 마음으로 십시일반 지역민들에게 나누고 회향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법화경〉 독송 입재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 이하 부산지역단)이 11월 15일 부산포교사단 사무실에서 '법화경 독송 동안거 입재식'을 봉행했다.

부산지역단은 코로나 기간 동안 안거를 맞아 〈금강경〉과 〈법화경〉 등 경전을 독송하며 수행정진을 이어왔다. 회향 때마다 선방을 방문해 대중공양을 올렸고 기도 기간 모금한 보시금은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회향했다.

이번 동안거 기간에는 70일 동안 〈법화경〉 10권을 독송한다. 이번 동안거 〈법화경〉 독송에는 부산지역단 40개 팀 표교사단 650명이 전원 동참해 릴레이로 독송을 이어간다.

정분남 단장은 "11대 단장 직의 마지막을 수행으로 장식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수행은 11대에서 시작해 송재린 12대 차기단장이 취임한 후 회향하게 된다"며 "진실한 불자는 신행과 전법이 우선이다. 많은 대중과 함께 신행을 하면 저절로 환희심이 가득하다. 〈법화경〉 독송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역단은 11월 27일 개금복지관을 통하여 불우이웃돕기 연탄나눔을 진행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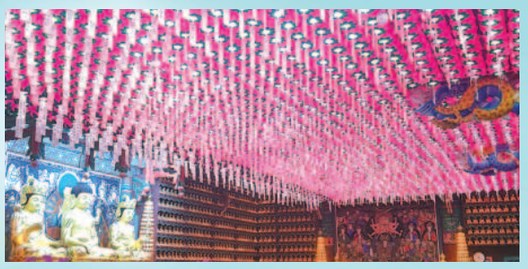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코로나로 지친 이들에게 힐링 선사

부안 내소사, 11월13일 힐링 산사음악회 개최

위드코로나 맞아 성황이뤄
진성 스님 "공존의 인식을"
강지민·진성 등 가수 출연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수 진성 씨의 무대를 불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가을 정취가 한층 무르익고 있는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에서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11월 13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산사음악회는 위드코로나로 인해 모처럼 만에 나들이에 나선 대중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다.

'내소사,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힐링을 주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광주교통방송 최한아름 아나운서의 사회로 광주무형문화재 '하늘땅 두드림' 의 사물놀이, 주지 진성 스님 인사말, 부안군 권익현 군수 등의 축사, 팝페라 그룹 '빅맨싱어즈' , 통기타가수 강지민, 트로트가수 진성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하늘땅 두드림' 의 국악 모듬북 공연에 이어 정통성악그룹 빅맨싱어즈는 주옥같은 오페라곡과 트로트메들리로 음악회의 흥을 끌어올렸고 강지민 통기타 가수는 라이브 카페의 여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사랑이여 등 7080세대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선곡으로 감동을 주었다.

마지막에 등장한 트로트가수 진성은 공연 중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보릿고개, 님의 등불, 안동역에서, 울엄마 등의 히트곡을 불러 관객들과 함께하는 공연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혹독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참아냈다"고 위로하고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아 지구라는 생명의 요람이 내 것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들과 함께 배려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내소사 산사음악회를 통해 그간 참고 쌓았던 감정을 털어버리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축사에서 "만추의 계절 산사음악회를 축하드린다. 이 산사음악회는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아 지역사회를 밝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부안군을 휴식과 안식, 활기찬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악회 시작 전에는 연등만들기, 소원합장주 만들기, 전통 손거울 만들기, 손수건 페인팅 등의 체험프로그램과 내소사 템플스테이 홍보부스가 운영됐다.

이날 음악회에는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등과, 권익현 부안군수,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위드코로나 시대 이후 처음열린 음악회를 축하했다.

응공조계종 창종10주년 맞아

11월 11일 동명사에서 기념법회 봉행



사단법인 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이 11월 11일 창종 10주년을 맞아 총본산 동명사에서 창종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대웅전에서 열린 이날 기념법회는 타종, 집회가, 육법공양, 발원문, 바라작법, 운심 공양게, 중단권공, 오공양작법, 살풀이, 찬불가, 종사이운 등이 진행됐다.

이날 법회서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스님은 원로회 법등, 홍원, 수덕, 혜광, 동화, 해인, 지암 스님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혜진 스님은 대중을 대표해 "창종 제10주년 기념법회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중생이 삼독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행복 속에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원한다"며 "응공조계종이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려 하니 항상 부처님을 친견하여 정법에 귀의한 공덕으로 업보의 무거운 짐을 벗고 구원의 밝은 빛을 찾아 자비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지"고 발원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창종 10주년을 맞아 종단 발전과 중생교화, 사회구제, 지역불교 발전에 헌신한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태상종 진신사리 친견법회

11월 14일 효총사 법당서 봉행

사단법인 대한불교 태상종 총본산 효총사(주지 지광)는 11월 14일 경내 4층 법당에서 석가모니불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친견법회에는 효총사 주지 지광 스님과 지명 스님, 지영 스님 및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태상종 종정 지광 스님(효총사 주지)은 "오늘 이 자리서 친견하는 진신사리에는 치유의 기운이 서려있다. 청정한 기운을 받아가는 귀한 자리"라며 "삶 속에서 병고, 액난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대생명력과 치유 에너지를 전하고자 한다. 운명이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그 마음자리가 부처님 가피로 살아 있는 '적멸보궁' 이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053)959-0490

손문철 대구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산신대재 봉행



지장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고창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이 산신대재를 봉행했다. 11월 13일 산신각에서 봉행된 산신대재는 간다르바 풍물패의 사물공연을 시작으로 전통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애불전에서 봉행된 2부 행사에서는 성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요잡바라, 사물공연, 박준영 명창의 판소리 공연이 진행됐다.

도솔암 산신대재에 동참한 불자들은 마장 장애 일시소멸, 선한 인연 상봉, 심중소구소원 속득성취 및 사업번창 성취 등을 발원했다.

성본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솔암 산신은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와 의운국사 두 분의 스님"이라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열심히 수행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그동안 많은 불자들이 산신대재에 동참했는데 최근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지역 상황 때문에 일부만 참석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도솔암 산신대재는 방역당국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 중·고등학교 건학위원회 발족

11월 16일 태공도서관서 개최



동국대 법인이 4월 29일 '실천적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제2건학 중흥 추진' 의 목적 아래 출범시킨 건학위원회가 11월 16일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고등학교 건학위원회 발족을 마지막으로 모두 발족했다.

11월 16일 금산중고 태공도서관에서 열린 건학위원회 발족식은 동국대 건학위원회 최고위원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박기남 교장, 박동창 교감, 동국대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족식에 앞서 돈관 스님은 학교시설과 법당을 둘러보고 시설이 열악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발족식은 최고위원장 돈관 스님의 격려사, 박기남 교장의 환영사, 박동창 교감 및 사무국장의 건학위원회 현황보고, 건학위원 위촉장 수여로 진행됐다.

돈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금산중·고등학교 건학위원회는 제2 건학을 통한 새로운 금산중·고등학교 미래를 연다는 각오로 출발해야 한다"며 "이 고장 불교계 선지식·선각자들께서 귀중한 정재를 모아 설립한 학교에서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 미래인재를 양성해 인류사회에 공헌하자"고 당부했다.

금산중고 박기남 교장은 "교직원 모두가 포교사의 마음으로 건학이념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불제자로서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갖고 청소년들이 불교적 인성과 재능을 고루 갖춘 역량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은사, 스리랑카 카티나 법회 개최

14일 70여 스리랑카 불자 참여



스리랑카 불자들을 위한 카티나 법회가 열렸다. 광주 보은사(주지 도제)는 지난 11월 14일 대웅전에서 스리랑카의 전통 법회를 개최했다.

카니타 법회는 음력 6월 보름부터 9월 보름까지 3개월의 우기 안거 동안 수행 정진한 스님들에게 가사 공양을 올리는 법회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법회를 통해 타국에서 고생하는 스리랑카 불자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스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착한벗들, 농수산물 나눔 눈길

전주지역 농수산물 활용 나눔



사단법인 착한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 우리절 주지)과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전주지역본부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지역 농수산물 활용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11월 12일과 14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농수산물이 도움이 필요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및 한가정에 전달됐다.

착한벗들 주춘매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착한벗들은 이주민을 지원하는 단체이지만 향후 이주민 자원봉사단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사회 봉사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사용품 전문기업
금륜사

저희 금륜사는 1991년 회사설립 이후 부처님께 최고의 공양을 올린다는 서원으로 인등을 비롯한 불사용품 제작에 장인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30년의 축적된 기술의 노하우와 최적화된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끊임없는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고집스럽게 원목과 최상의 자재를 사용합니다.
- 금륜사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애프터서비스로 고객지향의 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010-3781-2460 / 031-534-0048 / 팩스 031-532-2468


불단 · 닫집 · 인등


영단


원불전

日호류지 금당벽화, 27년 만에 밖으로

7세기 고대 불교회화 12장
예약한 5백명에 원본 공개

박영빈 객원기자


1949년 화재이후 수장고에 보관중인 호류지 금당벽화 원본.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607년 창건돼 고대불교사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는 호류지(法隆寺). 호류지의 중심법당인 금당의 벽화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담징 스님이 그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1949년 화재로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그 후 수장고에서 엄중히 보관되던 벽화가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11월 9일 일본 'NHK 뉴스', '산케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27년만에 공개되는 벽화의 소식을 특별보도했다.

일본 나라현에 소재한 호류지 금당 벽화는, 금당 내벽 12곳에 그려진 불보살과 비천도 등의 불화로 7세기에 그려진 고대 불교회화다. 1949년 원인불명의 화재로 금당이 소실되기 전까진 일본 최고(最古)의 벽화이자 한국의 석굴암, 중국의 윈강석굴과 함께 동양 3대 불교미술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호류지 측은 "벽화 보존을 위해 대대로 주의를 기울여 왔다. 1939년에는 보존을 위해 금당을 수리하기도 했다. 2차대전 등 여러 위험에서도 지켜왔었던 소중한 성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재로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벽화들은 여전히 중요문화재로 지정, 원래의 벽체에서 분리되어 수장고에 엄중히 보존돼왔다. 호류지 금당벽화의 소실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다.

분리된 벽화원본들은 1994년 마지막으로 일반에 공개된 이래 비공개로 보관되어 왔다. 호류지는 개산조인 쇼토쿠태자(聖德太子)의 원적 1400주기를 기념하고, 문화재 보존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벽화원본을 특별히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호류지 측은 이번 공개를 위해 6년 전부터 전문위원회를 발족해 논의를 거듭해 왔다고 전했다.

호류지 측은 "현재 벽화원본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보존처리를 거친 후 공개범위 등을 논의했다. 화재로 인해 원래의 선명한 채색은 없어졌지만, 남은 윤곽으로부터 과거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벽화의 보존 상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모사를 위해 화재 이전에 분리해 두었던 비천도들의 경우에는 원래의 색감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벽화는 12장으로 높이 3.1미터, 폭 1.5미터~2.6미터다. 불보살 등이 그려진 부분들을 간추린 것이다. 현재 호류지와 위원회 측은 사전예약자들에 한해 1일 50명씩 열흘간 총 500명에게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전예약자들은 그동안 호류지 문화재를 보존하고 연구하는데 후원했던 후원자들 가운데서 신청을 받았다.

호류지 관장(管長) 후루야 쇼가쿠 스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재 보존과 소중함을 다시금 인식해 주길 바란다. 비록 본래의 모습은 아니지만 불보살님들의 모습은 여전히 뚜렷하다"며 많은 이들이 성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해 주길 요청했다.

한정 공개는 11월 21일까지 진행됐고, 위원회에서는 이번의 공개를 참고로 향후 일반대중에 공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진행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밝혔다.

日, 세계기록유산에 불교문헌 등재 추진

대장경 · 입당구법승 자료
등재여부 2023년에 결정


도쿄의 죠조지에 소장된 삼대장의 일부. 경제 위에 도쿠가와 가문의 도장이 찍혀있다.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전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선정하는 세계기록유산에 불교사료가 추천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1월 10일 세계기록유산에 일본이 소장한 대장경과 입당구법승들의 자료를 추천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세계기록유산은 1997년부터 UN산하의 교육 · 과학 · 문화기구인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국제문화유산으로,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있는 정보, 또는 그 매개물로 서적이나 문서, 편지 등을 비롯해 비디오나 음성 녹음자료도 인정된다. 현재 한국은 세계기록유산으로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을 비롯해 〈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실록〉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의 세계기록 유산은 '정토종 대본산 조죠지 삼대장(浄土宗大本山增上寺三大藏)' 과 '치쇼대사 엔친 관계문서 전적(智証大師円珍關係文書典籍)' 으로, 두 유산 모두 불교사료다. 문부과학성은 "세계기록유산 신규등재를 위해 국내에서 11건의 신청을 받았고, 이중 2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채택사유로는 "죠조지 삼대장은 현대 불교학 연구의 기초가 되었으며, 한자문화와 인쇄문화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료다. 또한 엔친 관계문서는 당시 국제 문화교류와 시대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라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11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하고, 두 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가부는 오는 2023년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토종과 조죠지 측이 신청한 '죠조지 삼대장' 은 목판으로 인쇄된 대장경들로 송, 원, 고려판의 세 판본의 대장경들을 집대성 한 1만 2000점의 불경과 논서들이다. 이 대장경들은 17세기에 조죠지의 대시주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의 사찰들에서 수집한 대장경들을 정리하여 공양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이 삼대장은 현재 국제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한역대장경인 '타이쇼 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 의 저본으로 활용된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가 높다.

죠조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본 사찰에서 소장중인 대장경들이 최종후보로 선출된 것을 기념하여, 대장경의 일부를 특별전시하겠다"고 밝혔다.

천태종 사문파(寺門派)의 총본산인 온죠지(園城寺)와 도쿄국립박물관이 함께 신청한 '치쇼대사 관계전적' 은 사문파의 종조이자 입당팔가(入唐八家)로 불리는 엔친(円珍, 814-891)이 당에서 유학하던 당시 발급받은 통행허가서를 비롯해, 당에서 가져온 여러 불경과 문서들이다. 현재 모두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당시 당의 법률이나 교통, 문화제도에 대한 귀중한 사료로 꼽히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부다가야서 까티나 가사 법회 봉행

코로나19 극복의지 표명


까티나 가사 법회에 참석한 스님의 행렬. 사진출처=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행사가 중단되었던 인도에서 2년 만에 까티나 가사법회가 봉행돼 화제다. 지난 11월 1일 인도의 유력 언론인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는 성도성지인 보드가야에서 열린 까티나 법회 소식을 전했다.

부처님의 성도성지인 인도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에서 까티나 가사 법회가 2년 만에 재개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마하보디 대탑에서 중단되었던 연례행사 중 처음으로 재개된 이번 법회는 보드가야 관리위원회(BTMC)의 주최로 현재 보드가야에서 수행중인 300여 명의 인도 테라와다 비구스님들이 참석했다.

까티나 가사 법회는 테라와다 전통에서 하안거를 해제한 스님들께 재가자들이 가사와 일용품을 공양 올리는 법회다.

23일 이른 아침, BTMC 사무실에 모인 법회 운영위원들과 스님들은 먼저 보드가야 대탑의 본존인 석가모니불상에 가사 공양 올리고 예불을 올리는 것으로 법회를 시작했다. 이번 법회에는 영화 '스리 싯타르타 고타마' 에서 싯다르타 역할을 맡아 세계 불교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발리우드 배우 가간 말릭이 주요 게스트로 참석했다.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사찰에 머물고 있는 다른 불교 국가 승려들 또한 까티나 의식에 참석했다.

이번 까티나 가사 법회에서는 특히 계율을 잘 수지하여 안거를 지낸 상좌로 마노즈 스님이 선정, 승단을 대표하여 가사와 보시물을 받는 의식이 진행됐다.

이번 법회를 시발점으로 2021-2022 인도 관광시즌이 시작되었으며, 인도 정부도 11월 중으로 외국인 순례자들에 대한 관광비자를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BTMC는 까티나 법회에 이어 다시금 재개하는 연례행사 목록을 공개했다. 목록에 따르면 티베트 불교에서 주최하는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회인 닝마 뮌람이 11월에 봉행되며, 내년 3월에는 국제 삼장독송 대회 등이 포함돼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80세 고승의 침묵, 미얀마에 평화선사

정치적 중립유지 발표 및 시민 위로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마하보디 먀잉 사야도 스님. 사진출처=뉴스18

지난 10월 26일 인도 영어 뉴스 '뉴스18' 은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 시민들을 위로하는 80세 고승의 모습을 전했다. 미얀마에서 출가자들은 최고의 도덕적 권위자로 여겨진다. 스님들은 종종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2007년과 2008년에 있었던 민주화 시위에는 언제나 스님들이 앞장섰으며 2007년도 시위는 스님들의 주황빛 가사색에서 따와 '샤프론 혁명' 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승가는 분열 상태다. 많은 대중스님들이 군부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는 가두시위에 동참하는 동안, 일부 저명한 스님들은 새로운 군정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스님의 등장이 미얀마 사회와 시민들에게 안식을 주고 있다. 사가잉 지역에 소재한 나이야담 사원에 주석 중인 마하보디 먀잉 사야도 스님은 오랫동안 산문을 나서지 않고 숲속에서 명상수행을 해온 고승으로 존경 받고 있다.

은둔하던 스님의 등장은 곧 큰 반향을 일으켰다. SNS 게시물 등으로 스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각지에서 스님을 뵙고 법문을 듣기 위해 순례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과 순례자들은 스님의 등장으로 군부와 반군간의 충돌이 격렬하던 사가잉에 평온이 찾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멀리 양곤에서 왔다는 한 불자는 "오는 동안의 안전이 걱정 되었지만 되려 평화로웠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7~11/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스님	불교신문사
2	성자와 범부가 함께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선불교의 뿌리	김성철	오타쿠
3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현진 스님	불광출판사	8	딱돌 해설서	중암선해	금빛소리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스님	정토	9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5	죽기전에 꼭 읽어야할 법화경	손종호	운주사	10	진리와 자유의 길	법정 스님	지식을만드는지식

책세상

새롭게 발견한 화두 '어쩌라구', 詩가 되다



어쩌라구
윤재웅 지음
동악 펴냄
1만6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60세에 첫 시집<어쩌라구>를 출간한 윤재웅 교수.

60세에 처음으로 출간한 시집
'불교'로 가득한 시60편 선보여
이야기체 · 전통서정시 등 다양
고교 때 만해백일장 대상 인연
상월결사서 발견한 '어쩌라구'
詩心 자극 3개월 만에 출간해

"여러 번 이사를 다니다가 문득 옆을 보니 사바야 / 사바로구나, 마지막 저녁일지도 모를 노을 속을 / 불타는 뿔의 황소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전부 / 사바였어요, 불난 집에서 나와도 내 몸은 여전히 // 불타고 있었어요… 불타고 있었어요…" - '사바사바' 중에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인 윤재웅 교수가 나이 60에 첫 시집 〈어쩌라구〉를 출간했다.

윤 교수는 고등학교 때 제1회 만해백일장에서 대상을 받은 인연으로 동국대학교에 진학했다. 1991년에 세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으로 등단했고, 1998년에 평론집 〈문학비평의 규범과 탈규범〉을 냈다. 2002년에 소설 〈판게아의 지도〉와 여섯 권의 동화책을 냈으며, 2020년에 여행 에세이 〈유럽인문산책〉을 출간했다. 윤 교수는 좋은 스승과 쟁쟁한 선배들 밑에서 문학을 배웠지만 정작 시를 많이 쓰지 않았다. 은사인 서정주의 시를 읽고 난 후 '서정주'를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한 윤 교수는 대학원에 진학해 문학연구 쪽으로 걸었다. 평론으로 등단을 하고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에도 시를 쓰는 일은 바라보지 않았다. 그런 그가 60이 된 어느 날 갑자기 시를 쓰기 시작했다. 샘솟는 시심(詩心)을 어쩌지 못했다. 연구차 유럽에 다녀온 이후 출간한 〈유럽인문산책〉을 쓰면서 젊은 시절의 시적 감수성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되살아난 감수성에 또 하나의 부싯돌이 불을 붙였다.

"바나나는 탄수화물이라 소식하는 데 포만감을 주고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남기지 말고 드세요… / … 어쩌라구?"

2019년 11월, 자승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아홉 명의 스님이 3개월 동안 이룬 상월결사, 한국불교사에 획기적인 불사로 기록된 그 결사가 60이 되어서 시를 쓰기 시작한 시인에게 큰 화두로 다가왔던 것이다. 3개월의 결사 후, 시인은 천막 안에서의 혹독한 수행과정을 듣던 와중에 '어쩌라구'라는 문장과 만난다.

"아홉 스님들이 정진 기간 중 때론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묵언 규정을 지켜야 하니 화이트보드에 의견을 쓸 수밖에 없었지요. 그 메시지들 중에 빛나는 화두가 있습니다. 상월결사의 제안자인 자승 스님께서 정진 도반 스님들께 바나나를 많이 드셔야 한다면서 툭 던진 말씀인데 제 눈에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어쩌라구. 생생성성(生生惺惺) 육박해 오는 시의 화두 같았습니다."

'바나나를 많이 드셔야 한다'는 메모 끝에 쓰여 있던 '어쩌라구' 이 한 문장이 시인에게 동지섣달의 꽃처럼 달려들었다고 한다. 시집 〈어쩌라구〉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는 '어쩌라구'는 윤재웅 시의 새로운 동기이자 새롭게 발견한 화두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라구'는 시인에게 선방 수좌들이 참구하는 '이뭣고' 이상으로 사바세계의 난감한 문제를 충격적으로 들이밀었다. 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들의 답답함과 안타까움,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한 하소연으로 잘 어울렸다. '이뭣고'는 불교 화두의 독특한 언어이지만 '어쩌라구'는 보통사람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일상의 어려움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훨씬 현대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보았다. 그러자 그간 내면에 쌓여 있던 온갖 목소리들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시집 〈어쩌라구〉에 실린 60편의 시는 그렇게 3개월 동안 만들어졌다.

"〈전략〉 어쩌라구? 화사한 봄날 백주대낮 절마당에 이런 막다른 골목이 또 있나! 〈중략〉 절간에 온 개 한 마리를 두고 두 보살이 울먹거린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어뜨케 어뜨케 하면서 제 부인님도 자기 불쌍한 가슴에 쬐그만 멍 하나 만들어 가집니다. 〈후략〉" - '개행자' 중에서

시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로 가득하다. 생로병사의 고통, 윤회의 아픔, 깨달았으면서도 사바에 남아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의 발원 등이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형식면에서도 이야기체, 전통 서정시, 한 줄 시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문장의 모습도 새롭다. 가끔씩 문법을 벗어나 마음의 어순을 그대로 받아 쓴 문장들은 깊은 빛깔과 의미를 띠면서 시의 묘미를 새삼 느끼게 한다. 그렇게 불과 3개월 동안에 지어진 60편의 시들은 불교의 본모습과 미래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시인은 "이런저런 인연과 실험적 형식이 뒤섞여 단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육십 편 중 어느 하나 바짝 황홀한 게 없습니다."고 시집에 대해 자평하고 있지만 시집 〈어쩌라구〉의 시 한 편 한 편은 모두 단정하고 황홀하다. 불가적인 공부와 안목으로 지은 시는 단정할 수밖에 없으며, 단정함 속에 들어앉은 깨달음의 활구들로 시는 바짝 황홀하다.

"'어쩌라구'는 불교의 말 끊어진 세계와 언어로 성스러운 절간을 짓는 시의 세계를 이어줍니다. 언어는 진리의 세계를 궁극적으로 전달할 수 없지만, 시는 언어로서의 신성한 공간을 짓고자 합니다.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습니다."

상월결사가 불교사에서 새로웠던 것처럼 시집 〈어쩌라구〉 역시 우리 불교 시문학의 새로운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교수가 시를 통해 새로운 화두를 참구한 노력이 우리의 천년 선불교에 새로운 화두를 더하는 불사가 될 수도 있음이다. 한 권의 시집이 어떤 회향을 불러올지 궁금해지는 것 역시 전에 없던 새로운 일임이 분명해지면서 한 권의 시집에 많은 의미가 더해지길 기대한다.

책 속의 밑줄 긋기

"한세상 - 벚꽃 그늘에 서성이고 싶었어. / 그늘이 화안한 문 슬며시 열고 / 그녀와 함께 들어가고 싶었어. // 그늘이 흔들리니까 멀미가 났어. / 우리 아예 나무속으로 들어갈까? / 그녀는 바람처럼 소곤거렸어. // 나무속 달콤한 꽃잠을 잤어. / 잠깐 든 정인 줄 알았는데 / 일어나보니 몸이 사라졌어. // 그녀는 햇빛 되어 반짝거리고 / 나는 물이 되어 오래 울었어. / 한세상 그런 거야, 어쩌라구." 〈19쪽〉

"더러는 길바닥에 뭉그러진 고양이를 봐요. 아주 가끔은 머리 으깨진 어린 뱀을 보기도 해요. 길을 가다가 내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인 길이 아닌지, 환한 저승이 그렇게 속삭이는 길이 아닌지, 비개인 햇빛 속을 가면서 생각해요. 〈중략〉 뭉개진 얼굴을 주워 들고, 길바닥을 통째로 주워 들고, 빛나는 척 내가 대신 쓰고 다니는지 몰라요. 세상이 온통 가면 천지예요. 소금쟁이…, 물방개…, 어릴 때 불에 태워 죽인 쥐에요. 어쩌라구? - '나도 내가 너무 많아 어리둥절해요' 중에서" 〈34쪽〉

"일연 스님 모자 행장기 - 꼬부랑 고승이 / 더 꼬부랑 노모를 돌본다. // 왕이 국존으로 모셔도 물러나 / 늙은 어미 기저귀 갈아드린다. // 어미 돌아간 뒤 / 〈삼국유사〉 집필하고 / 자신도 돌아간다. // 아들 일생은 인각사 / 돌 비문으로 남고 // 어미 생애는 먼 산 꼭지 속 / 산소로 눕는다. / 세월 흘러 팔백 년 // 아침 해가 뜨면 / 비문에 비친 빛이 날아가 / 어미 산소 어루만진다." 〈48쪽〉

"뭐가 다르겠습니까 - 쓰르르 찌르르 / 귀뚜라미가 웁니다. // 가을밤 마당 한 가득 / 울음바다를 풀어놓습니다. // 처음엔 자박자박거리더니 / 밤새 울음 운 오늘 아침엔 // 제 울음소리에 / 무릎 빠집니다. // 쓰르르 찌르르 / 귀도 더듬이도 다 잠깁니다. // 사람이라고 / 뭐가 다르겠습니까. // 환한 대낮을 / 캄캄한 밤처럼 살고 // 자기 울음으로 / 제 키마저 삼키면 // 고통의 바다를 홀로 낳아 / 스스로 문 잠그는 귀양살이입지요." 〈122~123쪽〉

사)대한불교 연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지 명

사서실장 현월 호계원장 범정 포교원장 정각 문화원장 삼공
감찰원장 승훈 교육원장 법성 법사원장 덕행 기획원장 지호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 암 내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총무원장 : 지명 혜광 HP : 010-7109-3111
총 본 산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65-11 전화 : 054-481-3110 팩스 : 054-481-3123

문화관광부 등록 종단임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군/계/일/학 ... 한국법당 들의 마이크를 20여 년 살펴본 결과...

1. 시주마이크 2. 업자들의 시설마이크 3. 스님 직접 구한 낙원동마이크 들로 성능들이 도토리 키재기로 고만고만들 합니다. 이때! 본사의 군계일학 마이크로 스님께서 염불을 해보시는 순간 ! 구성지고 신명나는 소리에 살짝 놀라시며 자신의 염불에 취해 한참을 염불을 길게 하십니다. 이때! 총무실, 공양간 보살들이 스님 염불소리 같은데? 아니! 테프소리 같은데? 하며 확인 차 법당으로 몰려 옵니다. 이때! 염불을 마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허어!.. 군계일학 이 따로 없군...의 말씀따라 군계일학 마이크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 본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구매하지 않고 오직!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불렀을 때 그 동네 사찰 여럿을 모아 방문시 오직! 소리만 확인 해드린 후 바람같이 사라짐으로 부담이 전혀없음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가격 ₩89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시중에 없음
군계일학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일념삼매에 홀연히 견성대오하니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向上向下自在用하야사
天上人間無等匹이로다.
향상구와 향하구의 진리를
자재하게 써야사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짝할 자가 없음이로다.

금일(今日)은 신축년(辛丑年) 동안거(冬安居) 결제일(結制日)입니다. 인생(人生)이 긴 것 같지만 흐르는 시냇물처럼 밤낮으로 쉼 없이 흘러감에 돌이켜 볼 때 그 빠르기가 쏜 화살처럼 신속(迅速)함이라.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오늘 있다가 내일 가는 것이기에 사람의 몸을 받은 금생(今生)에 생사윤회(生死輪廻)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 금일 결제에 임하는 대중(大衆)들은 산문(山門)을 폐쇄(閉鎖)하고 회광반조(回光返照)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각오로 화두(話頭)와 씨름해야 할 것이라.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하고 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가운데 오매불망(寤寐不忘) 간절히, 화두의심이 뼈골에 사무치게 의심을 밀고 또 밀고 할 것 같으면 석 달 이내에 모두 다 견성(見性)할 수 있음이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철저한 의심이 뼈골에 사무치지 않은 때문에 혼침(昏沈), 번뇌(煩惱), 망상(妄想)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허송세월(虛送歲月)만 하게 됨이라.

이 견성은 부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선지식(善知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선지식(善知識)의 바른 지도를 받아서 바르게만 지어가면 일념(一念)이 지속(持續)되어 참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된다. 참의심이 한 달이고 일 년이고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게 됨이라.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조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하를 종횡(縱橫)하게 됨이라.

중국(中國)의 당나라 시대에 위대한 선지식(善知識)인 임제(臨濟)선사가 계셨다. 임제 스님은 출가(出家)하여 경율(經律)을 익힌 후에 황벽(黃檗)선사 회상(會上)을 찾아가서, 3년 동안 산문(山門)을 나가지 않고 참선정진에 전력(全力)을 다 쏟았다. 당시에 입승(立繩)을 보던 목주(睦州) 스님이 임제 스님을 쭉 지켜보고는 큰 그릇으로 여겼다. 하루는 조실(祖室)인 황벽 선사를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 회중(會中)에 장차 산마루에 큰 정자나무가 될 만한 인물이 있으니 조실 스님께서 자비로 제접(提接)하여 주십시오."

"내가 벌써 알고 있네."

황벽 선사께서는 이미 큰 법기(法器)가 하나 와서 진실하게 공부 해나가고 있는 것을 간파(看破)하고 계셨던 것이다.

목주 스님은 황벽 선사께 이렇게 청을 드려놓고, 임제 스님을 찾아가서 "그대가 지금까지 열심히 참구(參究)하여 왔으니 이제는 조실 스님께 가서 한번 여쭈어 보게"하니, 임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을 여쭈어야 합니까?"

"불법(佛法)의 가장 긴요(緊要)한 뜻이 무엇인가를 여쭈어 보게."

임제 스님은 목주 스님이 시키는 대로 조실(祖室)방에 찾아가 예 삼배(禮三拜)를 올리고서 여쭈었다.

"스님, 어떠한 것이 불법(佛法)의 가장 긴요한 뜻입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황벽 선사께서는 주장자(拄杖子)로 이십방(棒)을 후려갈기셨다. 임제 스님이 겨우 몸을 이끌고 나와 간병실에서 쉬고 있으니, 목주 스님이 찾아왔다.

"조실스님을 친견(親見)했던가?"

"예, 가서 스님의 지시대로 여쭈었다가 방망이만 흠씬 맞아 전신이 다 부서진 것 같습니다."

"이 대도(大道)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신명(身命)을 내던져야 하네. 설사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만 쪽이 나더라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되네. 그러니 그대가 다시 한 번 큰 신심(信心)을 내어, 내일 아침에 조실 스님께 가서 종전과 같이 묻게."

이 경책에 힘입어 다음날, 임제 스님은 다시 용기를 내어 조실방에 들어갔다.

"어떠한 것이 불법의 가장 긴요한 뜻입니까?"

이렇게 여쭈니,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이십방(棒)이 날아왔다. 이번에도 목주 스님은 간병실에 누워 있는 임제 스님을 찾아와 사정얘기를 듣고 나서 거듭 힘주어 말했다.

"이 법은 천추만대(千秋萬代)에 아는 선지식을 만나기도 어렵고 바른 지도를 받기도 어려운 것이니, 밤새 조리를 잘하고 다시 용기와 신심을 가다듬어 내일 조실 스님을 찾아가게."

그 다음날도 임제 스님은 조실방에 들어갔다가 역시 종전과 같이 혹독한 방망이만 이십방(棒) 맞고 물러나오게 되었다. 임제 스님은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목주 스님에게 말했다.

"저는 아마도 이 곳에 인연(因緣)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처소(處所)로 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는 것은 좋으나 조실 스님께 하직인사나 올리고 가게. 갈 곳을 일러주실 것이네."



임제 스님이 떠날 채비를 다 해놓고서 황벽 선사께 가서 "스님, 스님께서는 큰 자비로 저에게 법(法)방망이를 내려주셨는데, 제가 업(業)이 지중하여 미혹(迷惑)한 까닭에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하고는 하직인사를 올렸다.

"어디로 가려는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고안(高安) 강변으로 가서 대우(大愚)선사를 찾게. 틀림없이 자네를 잘 지도해 주실 것이네."

그리하여 임제 스님이 바랑을 짊어지고 고안 대우 선사 처소(處所)를 향해 수백 리 길을 걸어가는 동안 걸음걸음이 의심이었다.

무슨 의심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났는가 하면, '불법의 가장 긴요한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어째서 황벽 선사께서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 번 다 이십방(棒)씩 육십방을 내리셨을까?' 그대로 일념삼매(一念三昧)에 빠져서 걷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수백 리 길을 걸어갔다. 팔만 사천 모공에 온통 그 의심뿐이었던 것이다. 화두(話頭)를 참구하는 참선법은 바로 이와 같은 일념(一念)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구하는 한생각이 간절하게 지속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억겁다생(億劫多生)에 지은 업(業)이 빙소와해(氷消瓦解)되어 몰록 진리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법이다. 참학인(參學人)들이 10년, 20년 동안을 참구해도 진리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까닭은,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간절한 한 생각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육근육식(六根六識)의 경계를 다 잊어버리고 몰록 일념삼매(一念三昧)에 들어 부동일념(不動一念)이 되면, 일기일경상(一機一境上)에 홀연히 견성대오(見性大悟)하게 된다.

임제 스님이 여러 달을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고안에 당도하여 대우(大愚)선사를 참예하였다.

"그대가 어디서 오는고?"

"황벽 선사 회상(會上)에서 지내다가 옵니다."

"황벽 선사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던가?"

"제가 불법(佛法)의 가장 긴요한 뜻이 무엇인가를 세 번이나 여쭈었다가, 세 번 다 몽둥이만 흠씬 맞았습니다. 대체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대우 선사께서 무릎을 치시면서, "황벽 선사께서 그대를 위해 혼신(渾身)의 힘을 다해 가르치셨는데, 그대는 여기 와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가?"하시며 '허허' 웃으셨다. 순간, 웃는 그 소리에 임제 스님은 홀연히 진리의 눈을 떴다. 그토록 의심하던 '황벽 육십 방(棒)'의 낙처(落處)를 알았던 것이다.

"황벽의 불법(佛法)이 별 것 아니구나!"

임제 스님이 불쑥 이렇게 말하자, 대우 선사께서 임제 스님의 멱살을 잡고는 다그치셨다.

"이 철없는 오줌싸개야! 네가 무슨 도리를 알았기에, 조금 전에는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더니 이제 와서는 황벽의 불법(佛法)이 별 것 아니라고 하느냐?"

그러자 임제 스님이 대우 선사의 옆구리를 세 번 쥐어박으니, 대우 선사께서 잡았던 멱살을 놓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은 황벽이니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네."

임제 스님이 다시 황벽 선사께 돌아와, 여러 해 동안 모시면서 탁마(琢磨)하여 대종사(大宗師)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선(禪) 문중에서는 납자(衲子)가 종사(宗師)의 기틀을 갖추게 되면, 스승으로부터 법(法)을 부촉(付囑)받고 분가(分家)하여서 다른 곳에 회상을 연다. 이 때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부촉하는 표시로 주장자(拄杖子)나 불자(拂子)를 부치는데, 이 주장자와 불자는 모든 부처님의 살림의 정안(正眼)인 것이다.

하루는 임제 스님이 하직인사를 올리니, 황벽 선사께서 시자(侍者)를 불러 이르셨다.

"주장자와 불자를 가져오너라."

그러자 임제 스님이 즉시 응수(應酬)하기를, "시자야, 불〔火〕 가져오너라." 하였다.

이렇듯 기틀을 쓰는 데 있어서 돌불보다도 빠르고 번개보다도 빨랐다. 그 후 화북(華北)에 머물면서 후학(後學)을 지도하셨는데, 누구든지 법을 물으려고 문에 들어서면 벽력(霹靂) 같은 '할(喝)'을 하셨다.

시회대중(時會大衆)은 황벽, 대우, 임제, 세 분 도인을 알겠는가?

同坑無異土
千里同風
萬里知音

같은 구덩이에 다른 흙이 없음이나
천 리 밖에서 바람을 같이 하고
만 리 밖에서 소리를 앎이로다.

일 마친 대장부의 길

영축총림 방장 성파 대종사

雲捲秋空月印潭하니
寒光無際與誰談고
豁開透地通天眼하니
大道分明不用參이로다

구름 걷힌 가을 하늘 달이 못에 비치니
찬 빛의 끝없음을 누구와 이야기 할꼬
천지를 꿰뚫는 안목 활짝 열리니
대도가 분명하여 참구함을 쓸 게 없도다

결제대중이여! 목숨을 아끼지 말고 조사의 공안을 참구하되 내일을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수행자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 내일은 없다. 내일을 기다리는 자는 설사 미륵이 열반하더라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사람 몸 받았을 때 일대사를 마쳐야 한다. 출가자로 금생에 이 일을 마치지 못하면 시은(施恩)을 갚지 못한 죄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힘쓰고 또 힘쓸 지어다.

여러 대중들이여! 신심과 의심과 분심을 갖추고 치열하게 정진한다면 결정코 이번 철에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니,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간절하고 철저하게 참구하여 일을 마쳐야 한다. 이러한 수행자라야 대장부라 하고, 능히 시주물을 소화할만한 사람이라 하리라.



朝來暮去隨所適하니
一條橡栗一蒲團이로다
秋深石上掃落葉하야
煮茗燒栗圖淸歡이로다

아침 저녁 오고 가는데 적당함을 따르니
주장자 하나와 방석 한 개이네
깊은 가을 돌 위의 낙엽을 모아
차 달이고 밤 구워 맑은 기쁨 도모하네

날마다 산에 살면서 산 찾지 마라

덕숭총림 방장 달하 대종사

천년고목에 단풍이 들고 낙엽은 뿌리로 돌아갑니다. 만상이 휴식하는 겨울철, 납자는 결제할 선방에 김장울력하고 안거에 들어갑니다. 아, 무슨 복력으로 이 결제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천안대비로도 엿볼 수 없는 이 물건! 이~뭘까? 일체가 부처님입니다. 백천만 번 지심귀명례 예불을 합니다. 손을 들고 발을 딛고 일거수일투족이 지심귀명례 예불입니다. 끝없는 일거리 속에 크고 작은 움직임들 모두가 돌이키는 정진이요, 부처님 친견입니다. 불러 응하고 쓸고 닦고 가고 오고 보현보살의 광대행입니다.

"방에서 졸지 말고 나와서 일해라." 벽초스님의 용맹정진 가풍입니다. 덕숭산 가풍입니다. 노인은 어린이가 되라. 해야 할 일은 벌떡 일어나 직접 해라. 가볍게 움직여라. 움직일 때 바람보충입니다. 움직여 일할 때 360각 본래 바람상태가 됩니다. 어린이 몸이 됩니다. 몰란결에 생각이 노인으로 고정되어 교주처럼 늙은 티를 내면 앞뒤가 막히고 숨길이 짧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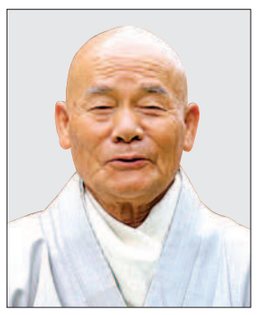
이것이 무엇인가! 이~뭘까? 한 덩어리로 걷고, 한 덩어리로 움직이면 고개가 펴지고 가슴이 펴집니다.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가 통일이 됩니다. 산천초목이 돌이키는 힘으로 돌아서고 건곤이 돌이키는 힘으로 돌아섭니다. 천사량 만사량이 알 수 없는 이뭘까로 고요해집니다. 산이 고요해지고, 물이 고요해지고 파도가 고요해지고,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갖가지 변동의 물결이 소용돌이칩니다. 같이 뒤집어지고, 같이 말아 엎어 다시 솟구쳐 내려쳐 파도는 본래 물로, 본래 한 덩어리로 더욱 새로워집니다. 언제나 정월 초하루요, 새날 새아침입니다. 천상천하에 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고요해지니 그림자까지 시원합니다.

將軍擧一劍
四海常安寧
誰知王舍一輪月
萬古光明長不滅
장군이 한 칼을 들었네.
납자가 이뭘까를 들었네.
사해가 편안해졌네.
누가 알겠는가?
그 옛날 왕사성의 이 달덩어리를.
아, 만고광명이여!
길이길이 그칠 줄 모르네.

이 일은 먼저 눈을 떠야 합니다. 내 눈에 나타난 내 업장 너머 먼저 눈을 떠야 합니다. 삼천대천세계가 이놈이라는 것에 먼저 눈이 떠져야 합니다. 희유한 이 물건에 무릎을 치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부는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백천만 번 반조하고 돌이켜서 익숙해져야 굴릴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놓지 말고, 자꾸 돌이켜서 생각과 생활이 이 자체 알 수 없는 이뭘까 의심으로 순숙이 되어야 합니다.

不擧自擧.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되면 성역처를 경험합니다. 信心이 不二요, 不二가 信心입니다. 이 물건이 불이요, 불이가 이 물건입니다. 목탁소리가 생각 앞입니다. 성색이, 소리와 모양이 대적삼매입니다. 천지에 不關이요, 거래에 不關이요, 시비에 不關입니다. 한가하고 부드러워져서 공부에 방해가 없습니다. 공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조도의 벗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무진삼보 대자대비에 이 정성을 바칠 뿐입니다. 이 일 한 가지 뿐이니 언제나 넉넉하고 아무리 바빠도 한가합니다.



身在海中 休覓水
日行嶺上 莫尋山
百年三萬 六千日
反復原來 是這漢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 찾지 마라
날마다 산에 살면서 산 찾지 마라
백년 삼만 육천 일에
가고 오고 원래가 이놈이네

구경원성살반야 이자체, 마하반야바라밀 이뭘까, 나무아미타불! 야, 그대가 부처님이시네!

수행은 본래자리 깨닫는 묘용

해인총림 방장 원각 대종사

洗鉢添甁이 盡是法門佛事라.
般柴運水가 無非妙用神通이라.
爲甚麽, 不解放光動地인가?

발우를 씻고, 물병을 채우는 일이
모두가 법문이고 수행이니라.
장작을 나르고 물을 긷는 일이
모두가 묘용과 신통이 아닌 것이
없음이라.
어찌하여 여전히 빛을 내뿜고
대지가 진동하는 걸 알지 못하는가?

어느 납자가 남양 혜충국사에게 물었습니다. "여하시본신노사나(如何是本身盧舍那)닛고. 무엇이 노사나불의 본신입니까?"

국사가 답하길, "여아과정병래(與我過淨甁來)하라. 나에게 물병을 가져다 주게."

납자가 국사에게 물병을 가져다드리니 국사가 말하길, "각안구처작(却安舊處著)하라. 본래 있던 곳에 다시 가져다 두게."

남양 혜충국사는 당나라의 선승으로, 6조 스님의 10대 제자중의 한 분입니다. 남양의 백애산에서 40년간 두문불출하며 용맹정진 하였기에 남양 혜충국사로 불립니다. 숙종(肅宗)과 대종(代宗)의 2대에 걸쳐 국사로 모셨습니다.

수행은 무명을 밝히고 본래자리를 깨닫게 하는 묘용입니다.

그 작용에는 어떠한 걸림도 없으며 만들어짐도 남겨짐도 없는 것입니다.

혜충국사의 법은 어떤 특별한 작용이나 방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법의 보리좌이며, 시시각각 움직이고 변화하는 일상의 모든 것이 가르침을 설하는 법석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안거 결제일입니다. 가야산을 물들였던 가을 단풍도 어느새 그 정취를 감추고 이제 차분히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에 매진해야할 시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힘들게 한 코로나도 국민 대다수의 백신접종으로 인해 위드코로나 시대로 돌아가려 합니다.

고인 게송에 행행본처(行行本處)요. 지지발처(至至發處)라 했습니다. 행하고 행해도 본래 그 자리요. 이르고 이르러도 처음 그 자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근본을 여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명연수 선사께서는 만선동귀집에서 미묘한 작용은 행함 없이 행하고, 참된 지혜는 지음없이 지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번 동안거 결제기간 우리 결제 대중은 총림, 이 좋은 도량에서 닦는 것이 없이 애써 정진해서 보리도를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합시다.

鳥之行空이고, 魚之在水니라.
知恩報恩이니, 人間幾幾인가.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에 있네.
은혜를 알아 은혜를 갚는 것이,
인간 세상에 몇이나 될런가.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불교는 그림자극으로 설법했다

국립민속박물관 · 무속학회 '만석중득도기' 학술대회

안정사 땅설법 중 그림자극 '호국삼부경' 신앙과 연관돼 불교 포교극으로 가치 높아 민속博 땅설법 '아카이브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아시아 유일 속강(俗講)인 땅설법의 구비경전(레퍼토리) 중 별전인 '만석중득도기'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국립민속박물관과 한국무속학회는 공동으로 11월 12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우리 그림자극의 경이로운 발견, 땅설법 만석중득도기'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삼척 안정사에서 전승된 땅설법 '만석중득도기' 시연을 진행했다.

삼척 안정사의 땅설법은 강(講), 창(唱), 연(演)을 통해 불교교리를 포교하거나 학습하는 전통적인 설법이다. 그간 단절된 줄 알았으나 지난 2018년 삼척 안정사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며 불교 및 민속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만석중득도기를 설행하고 있는 안정사 신도.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삼척 안정사 땅설법의 별전인 그림자극 '만석중득도기'를 조명한 것으로, 안정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날 밤에 공양물을 준비하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만석중득도기'를 설행해왔다.

'만석중득도기'는 '만석'이라는 인물이 득도해 덕이 높은 스님이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략적 내용은 이렇다. 갖은 고생을 하던 만석은 초파일 관등 구경을 하던 중 스님의 권유로 그의 행자가 된다. 어느 날 '호국삼부경' 중 〈금광명경〉을 선지식이 설하는 자리에서 만석은 깜빡 졸게 되는데, 꿈에서 만석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게 된다. 하지만 이윽고 꿈에서 깬 만석은 속세의 덧없음을 깨닫고 열심히 수행해 국사가 된다.

학술대회에서 김형근 전북대 연구교수는 '서사가 있는 만석중연회, 땅설법 만석중득도기'를 통해 불교 포교극으로서의 땅설법의 가치를 살폈다.

김 교수는 '만석중득도기'에서 민중들에게서 신심을 끌어내는 장치는 '호국삼부경' 신앙에 있다고 봤다. 그는 "'만석중득도기'의 서사가 시작되기 전 〈금광명경〉이나 '호국삼부경'에 대한 공경 의례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서 "만석이가 〈금광명경〉 강설 중에 속과 승의 경계를 넘나들고 마침내 승의 세계로 온전히 마음을 정했던 것처럼, 〈금광명경〉의 인연을 서사적으로도 강조한다. 가장 마지막에 참석 대중에게 축원을 해줌으로써 땅설법 수요자의 신앙적 바람들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땅설법은 참석대중에 민감히 반응한다. 오로지 불교교리를 설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눈높이 설법"이라며 "'만석중득도기'의 서사가 어디로 가던지 땅설법 중간 중간 신도들이 참여하고 호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교교육적'으로 가치있다"고 봤다.

또한 땅설법 '만석중득도기'가 단순히 그림자극으로만 연행되지 않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땅설법은 구비경전을 그린 변상도가 필수 연행도구"라며 "이 그림이 저녁에는 보이지 않기에 그림자와 영등을 활용한 공연이 생겼다. 땅설법은 어떤 레퍼토리이든 저녁에 불빛이 없을 때는 그림자극으로 연행한다"고 설명했다.


안정사 땅설법 '만석중득도기'의 한 장면. 안정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 밤에 설행된다.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삼척 안정사의 재(齋)와 땅설법의 보존을 위해 모든 과정을 촬영해 아카이브 자료로 집적하고 있다.

화엄사 소장 '국보 비로자나삼신불' 본격 조명

화엄사 · 불중博 11월 13일 대화엄사 특별전 학술세미나

최성은 "전통 · 新양식 공존"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의 대표적인 성보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이하 삼신불상)'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삼신불상은 17세기 벽암각성 스님이 화엄사를 중창할 당시 조성돼 대웅전에 봉안됐으며,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화엄사는 물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손꼽히고 있다.

화엄사와 불교중앙박물관이 11월 13일 '17세기 화엄사 중창과 대웅전 비로자나삼신불좌상'을 주제로 지리산 대화엄사 특별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가 '전통 도상과 양식의 계승-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을 주제로 발제한 데 이어, 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전근대 지리산 화엄사의 역사 연구와 쟁점', 유근자 동국대 교수의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조성에 관한 기록 분석', 송일기 중앙대 교수의 '구례 화엄사 노사나불 복장 전적' 발표가 진행됐다.


올해 6월 국보로 지정 화엄사의 삼신불좌상. 사진 왼쪽부터 석가모니불(왼쪽), 비로자나불(주불), 노사나불(오른쪽)의 모습.

최성은 교수는 삼신불상의 도상적 가치를 불상의 비례에서 찾았다. 다른 불신에 비해 두부(頭部)를 크게 제작해 위엄있는 상호를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어깨가 좁은 단구형의 불신이 예배자를 압도하는 위용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는 17세기 전반에 개전된 다른 사찰의 불상들이 어깨가 넓고 허리가 길며 무릎폭도 넓은 장신형인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삼신불상은 벽암각성의 주도 아래 왕시로가 종친, 화엄사 산중대덕, 주변의 여러 불교도들이 동참발원해 거행한 거국적 불사로 차별성을 가진다"며 "특히 삼신불상에서 나타나는 신구(新舊) 양식의 공존은 당시 현진파의 응원 · 인균파 조각승들이 당시의 거대하고 과장된 명대 양식에서 탈피해 고대 전통양식에서 해답을 찾으려던 새로운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화엄사 대웅전과 삼신불상은 벽암각성 스님이 화엄도량을 중건하면서 조성한 성보문화유산으로, 선교양종대가람의 법륜을 400년간 간직한 화엄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며 "그러나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불상의 복장이 훼손된 상태로 오랜 세월 제 모습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 화엄사 사부대중 전체가 일심이 되어 부처님 전에 발원해 재복장의 대작불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 과정에서 복장유물이 발견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오늘 세미나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삼신불상은 새롭게 발견된 후령통과 시주질 2점을 포함해 올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는 경사를 맞았다"며 "동참대중들의 지극한 정성이 좋은 인연공덕으로 회향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도 "오늘 세미나는 특별전시의 중심 주제인 삼신불상과 복장유물을 학계에 소개하고 국보 지정을 기념하는 자리"라며 "삼신불상은 조선후기 불상으로는 최초로 국보에 지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제31회 불미전 대상 수상작에 김용남作 '49일간의 행복' 선정

오는 12월 2일 시상식… 12월 2~15일 전시회

제3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공모전 대상에 김용암의 조각 작품 '49일간의 행복'이 선정됐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대회장 원행)는 11월 15일 수상작을 발표하고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수상작 전시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대상(총무원장상)에는 조각부문 김용암의 '49일간의 행복', 최우수상 2점은 회화부문 박청용의 '만배'와 공예부문 송은선의 '철제은입사여의', 우수상 3점은 회화부문에 행오 스님의 '금강반야바라밀경', 조각부문 오삼록의 '건칠지장상현좌보살상', 공예부문 조대용의 '여유'가 선정됐다.

제3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에는 불교회화 80점, 불교조각 10점, 불교공예 30점 등 총 120점이 응모했고, 각 분야별 3명씩 총 9명의 심사위원들이 엄정한 심사과정과 토론을 거쳐 분야별로 입상작을 선정했다. 이 중 수상작은 총 40점으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 특선 5점, 입선 23점이다.

대상을 수상한 김용암의 '49일간의 행복(부처님-98×95×117cm 맥반석, 좌대-126×95×58cm 화강암)'은 고행을 마치고 49일간 정진한 후 정각을 이룬 부처님의 모습을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석재의 재료적 특성을 활용하여 고행상과 해탈상을 동시에 표현했다.


제31회 불미전 대상작 김용암의 '49일간의 행복'

최우수상 작품들은 전통을 계승하며 현대적 감성을 더했다. 회화부문의 '만배'는 기도하는 다양한 모습을 단순화하여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범자(梵字)를 연속적으로 물흐르듯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합장 반배, 엎드려 절을 올리는 모습, 오체투지 등으로 기도하는 순간순간을 분절하여 행위의 리듬을 주고 먹의 농담을 더해 찰나의 순간이 모여 성취되는 만배의 미학을 진정성 있게 구현했다. 공예부문의 '철제은입사여의'는 뜻한 바를 이룬다는 '여의(如意)'의 개념에서 불교적 요소가 뚜렷하게 보인다. 철제 위의 은입사 기법으로 '만자문'을 기본으로 화병 위의 연꽃은 구리를 사용해 색상에 변화를 주는 등 공예적기법이 뛰어나고, 전통적 소재를 조형적, 심미적으로 우수하게 표현했다.

올해로 31주년을 맞는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은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회로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신인작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국일암 문화재 · 건축적 위상 재조명돼야"

불교사회연구소, 11월17일 학술세미나 개최

벽암각성 스님의 호국 · 호법 활동을 통해 주석처였던 국일암과 소장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11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국토의 재건, 산문의 재건:국일암 벽암각성 스님의 호국활동과 민족문화유산 보존활동'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재 확대방안' 연구사업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벽암각성 스님의 업적을 기리고 국일암에 보존돼 있는 문화재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준비단계서부터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벽암각성 스님(碧巖覺性, 1575년 선조 8년~1660년 현종 1년)은 17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사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싸우기 위해 승군을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했고 이후 남한산성을 축성한 공로로 인조 임금으로부터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라는 존호를 하사받았다. 임진왜란 이후 각 지역의 산성 및 사고(史庫) 수호와 승군 활동, 사찰 복원 작업, 다양한 불서 간행 등의 활동을 통해 조선 후기 불교계 중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다. 때문에 이날 세미나는 벽암각성 스님의 활동과 그 흔적을 찾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날 김미경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가야산 해인사 산내 암자인 국일암(國一庵)은 벽암각성 스님이 왕에게 하사받은 시호를 딴 것이다. 스님의 주석처이자 입적 후 영당(影堂)으로 운영돼 왔다.

국일암의 '벽암존자진영'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벽암 스님의 유일한 진영본이다. 김미경 감정위원은 "제작시기는 1780년으로, 현존하는 많은 고승진영 가운데 앞서는 작품"이라며 "승병장으로서 벽암 스님의 강직함과 관조하는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함께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해인사 국일암의 벽암각성 진영.

벽암각성 호국유산 가치 확인 "국일암 진영 현존 유일 귀중"

김미경 감정위원은 벽암각성 스님과 그 제자들의 영정, 벽암각성, 부휴선수, 고한희언의 부도탑, 그리고 벽암 스님의 제향을 모신 전각이 원형대로 남아있는 소중한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랜 세월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비록 입적 후 석비는 세우지 못했으나 영골을 봉안한 부도가 있고 진영을 모신 영당으로서 조선 말기까지도 제향(祭享)을 하며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라며 "부도전의 안내판을 설치해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영당으로서 국일암 인법당의 건축학적 위상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인사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이 '벽암각성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오경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양란 이후 벽암각성의 불교 중흥'을,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조선후기 문파의 형성과 불교 상례정비의 의의 : 부휴계의 〈석문상의초〉와 〈석문가례초〉를 중심으로'를, 김미경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해인사 국일암과 벽암각성 진영(眞影)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했다. 또 최연식 동국대 교수, 손성필 조선대 교수, 이종수 순천대 교수, 이희정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1 중관학당 겨울캠프' 열린다

오는 12월 10~11일 ZOOM 통해 진행

용수보살의 저서 〈화쟁론〉을 탐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공성의 배움터 중관학당(대표 신상환)은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ZOOM을 통해 1박 2일간 '2021 중관학당 겨울캠프'를 개최한다.

겨울캠프에서 강독할 용수보살의 저서는 〈화쟁론〉이다. 이는 공사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저술한 것으로 중관 · 공사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다. 이번 캠프에서는 인도 논리학의 특징과 구사론자들의 일반적 주장, 중관학파의 '나의 주장은 없다'라는 특유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겨울캠프 참가비는 12만원이며, 이메일 자료집과 줌 주소가 포함돼 있다. 중관학당 후원회원은 2만원 할인된다.

이에 앞서 중관학당은 12월 4일 부처님 재세시 풍경을 다루는 2차 무료 법보시 강좌도 실시한다. 이 역시 ZOOM을 통해 진행된다. (010)8801-4037

신성민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3

▶ 44회 예고
담마팔은 꾸날라를 데리고 강가강에서 수업한다. 그는 브라흐민들이 죄업을 씻고자 강물에 목욕하는 것을 비판한다. 꾸날라는 할머니인 다르마에게 목욕하지 말라고 한다. 다르마는 손자와 아들을 위해 아쇼까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다굽따, 대왕의 미래를 걱정하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들어서는 9월이었다. 우기 때 강가강이 범람하여 마을과 들판이 강물에 잠겨 농사꾼들이 빠딸리뿌뜨라 외성으로 피난 왔다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가강 강변들판의 수수밭과 목화밭은 폐허처럼 변해 처참했다. 작물들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은 이재민들에게 건기를 날 수 있도록 밀가루를 나누어 주었다. 갓난아기 비가따쇼까 생일잔치가 다르마 왕비 별궁에서 열리는 날에는 닭 한 마리와 설탕, 소금까지 배급했다. 빈두사라왕이 다르마 왕비 별궁으로 나서면서 라다굽따에게 말했다.

"제관들이 기도를 잘해서 폭우가 멈추었소. 이재민들 모두 마을로 돌아가고 있지요?"

"예, 대왕님 은혜로 굶어 죽은 자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비가따쇼까 생일이니 이재민들에게 특식을 내리도록 조치했소. 이재민들도 즐거운 날이 돼야 하오."

비가따쇼까 생일잔치는 다르마 왕비 별궁 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아침의 짙은 안개는 곧 걷힐 터였다. 궁녀들과 궁중연회장의 남자하인들이 정원에 놓인 십여 개의 식탁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식탁 위에는 이미 음식과 과일이 놓여 있었다. 락슈미띳사가 궁녀들을 불러 세심하게 지시했다. 별궁 정원은 장미꽃과 연꽃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아침안개가 강가강 너머로 서서히 물러가고 있을 무렵에 다르마 왕비와 아상디밋따가 별궁에서 나왔다. 다르마 왕비는 비가따쇼까를 안고 장미꽃이 놓인 식탁으로 갔다. 꾸날라는 아상디밋따의 손을 잡고 걸어왔다. 이윽고 빈두사라왕도 라다굽따와 함께 나타났다.

빈두사라왕이 참석하는 잔치로서는 소박했다. 우기 때 재난을 당한 백성들의 고통을 나눈다는 뜻에서 하객 인원을 크게 축소했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왕은 다르마 왕비가 안고 있는 비가따쇼까를 보자마자 덥썩 건네받아 안았다. 비가따쇼까가 방긋 웃으며 빈두사라왕을 쳐다보았다.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네가 아쇼까 동생이구나."

그때 꾸날라가 빈두사라왕에게 다가와 무릎인사를 했다. 담마팔 사문에게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있는 꾸날라의 행동은 더욱 의젓했다.

"오, 꾸날라구나. 몰라보게 컸구나."

꾸날라가 아상디밋따에게 가자마자 빈두사라왕은 다시 자신이 안고 있는 비가따쇼까에게 눈길을 돌렸다. 대신들이 비가따쇼까에게 다가와 덕담을 한 마디씩 하고 제 자리로 돌아갔다. 라다굽따도 말했다.

"왕자님이 대왕님을 닮았습니다."

"하하하."

빈두사라왕이 만족한 듯 호탕하게 웃었다. 칼라따까도 덕담을 했다.

"왕자님 덕분에 마우리아왕국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빈두사라왕은 담마팔 사문에게서도 덕담을 듣고 싶었다. 담마팔 사문은 맨 뒤쪽의 식탁 의자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비가따쇼까가 무탈하게 성장하기를 축원하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이 다르마 왕비에게 담마팔 사문을 찾았다.

"왕비, 사문은 어디 있소?"

"저기 앉아 계십니다."

"가까이 와서 앉도록 하시오."

빈두사라왕 뒤에 서 있던 경비대장이 바로 담마팔 사문을 데리고 온 뒤 급히 의자를 하나 가져왔다. 담마팔 사문이 엉거주춤 빈두사라왕 맞은편에 앉았다.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사문이여, 미안하오. 왕실의 스승은 가족 같으니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마땅하오."

"대왕이시여, 사문은 낮은 자리가 편하옵니다."

아침 해가 별궁 정원을 환하게 비추었다. 아침 햇살은 안개처럼 부드러운 것 같았지만 강렬했다. 빈두사라왕에게는 바늘이 눈을 찌르는 듯했다. 아침햇살이 쏟아지자 빈두사라왕이 이마를 찡그리며 손으로 햇살을 가렸다. 급히 다르마 왕비와 자리를 바꾸어 앉았지만 잠시 동안 비틀거렸다. 경비대장이 재빨리 움직였다. 정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궁중의원이 달려왔다. 궁중의원이 다르마 왕비를 안심시켰다.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대왕님께서는 궁중에서만 계시다가 밖에 나오시어 잠시 현기증이 난 것뿐입니다."

"어서 궁중으로 모시고 가시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몇 달 전처럼 침소 집무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했다. 제관끼리는 권력투쟁을 하면서도 궁중의 제사를 함께 지내왔던 경험 때문에 통하는 데가 있었다. 빈두사라왕의 건강은 마우리아왕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므로 두 사람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라다굽따는 칼라따까 가족이 살고 있는 내성 안의 저택으로 말을 타고 갔다. 라다굽따는 몹시 조심했다. 관복을 벗고 상인 복장으로 변복하고 칼라따까의 저택에 도착했다. 말에서 내려서야 말먹이꾼이 들고 있는 보자기 속에서 관복을 꺼내 갈아입었다. 마침 칼라따까의 저택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의 소리가 났다. 말먹이꾼이 저택으로 들어가서 말했다.

"칼라따까 대신님, 라다굽따 대신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손을 씻고 있던 칼라따까가 마당으로 내려와 라다굽따를 맞이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오늘 아침에 다르마 왕비 별궁 정원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 대왕님 문제로 오셨군요."

"그렇소."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다. 칼라따까가 계단을 오르면서 하인에게 지시했다.

"아무도 2층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거라."



"예, 대신님."

2층 마루에는 원형탁자와 서너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넓은 2층 마루는 칼라따까가 문서를 검토하거나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었다. 원형탁자 위에는 포도주와 코코넛 음료수가 담긴 은주전자 두 개가 있었다. 칼라따까가 라다굽따에게 포도주를, 자신은 코코넛 음료수를 은잔에 따랐다. 라다굽따는 선뜻 하고 싶은 말을 꺼내지 못하고 포도주를 한 잔 더 자작으로 따라 마셨다.

"대왕님 걱정이라면 나도 못지않소. 말해 보시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소. 사실은 몇 달 전 담마팔 사문이 왔을 때 대왕님 앞에서 불길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소."

칼라따까가 입안에 머금고 있던 코코넛 음료수를 꼴깍 소리 나게 삼켰다. 급하게 마신 탓이었다.

"담마팔 사문의 말이 불길했다는 것이오?"

"대왕님께서 몹시 궁금해 하시니 사문은 사실대로 말한 것 같았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러오?"

"대왕님께 10년 후 큰 변고가 있을 것이라 했소. 그런데 대왕님께서는 사문을 말을 듣고 오히려 기뻐했소. 10년을 조심하면 마우리아왕국의 평화가 100년이 갈 것이라고 말이오."

칼라따까가 라다굽따의 속마음을 바로 눈치 채고 말했다.

"변고가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병고가 닥친다는 말 같소."

"그렇소. 그러니 우리라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떠하겠소?"

"대왕님의 후사를 걱정하자는 말에 동감이오."

"몇 년 후의 일이니 극비에 부쳐야 하오. 나는 대왕님을 이을 만한 재목으로 아쇼까 부왕을 생각하고 있소."

예상했던 대로 칼라따까가 동의했다.

"마우리아왕국을 통치할 인물로 아쇼까 부왕 말고는 누가 있겠소? 수시마 부왕을 후사로 삼는다면 큰 혼란이 올 것이오."

라다굽따는 비로소 자신의 구상을 말했다.

"아쇼까 부왕을 수년 내에 빠딸리뿌뜨라로 불러들여서 대왕님 곁에 있도록 일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려면 아쇼까 부왕을 불러들일 만한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소.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 다행이오."

"대왕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다르마 왕비님이지요. 그러니 다르마 왕비님을 통해서 명분을 만들어 봅시다."

"맞소. 다르마 왕비님은 담마팔 사문을 믿고 의지하니 거기에 길이 있을 것 같소."

"그럼, 내가 바로 담마팔 사문을 만나보겠소."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이 통치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다면 아쇼까 부왕을 옹립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진전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라다굽따는 칼라따까를 만난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자신들의 행위가 왕위를 찬탈하는 반역이 아니라 빈두사라왕에게 큰 변고가 왔을 때를 대비하자는 충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반달이 보일 때쯤에 자리에서 일어나 헤어졌다.

라다굽따는 약속대로 담마팔 사문이 머물고 있는 절로 향했다. 뻡빨라나무가 있는 곳으로 말을 타고 가는데 반달이 등 뒤에서 따라왔다. 뻡빨라나무 둥치에는 여전히 수행자들이 좌선하고 있었다. 말먹이꾼이 말을 멈추었다. 그가 먼저 뻡빨라나무 쪽으로 가서 담마팔 사문을 찾았다. 마침 담마팔 사문이 절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문이시여, 라다굽따 대신님이 오셨습니다."

"오, 그런가요? 이리 모셔오세요."

라다굽따가 담마팔 사문의 안내로 절 안으로 들어갔다. 라다굽따는 절 문 밖에 서서 사미승이 내미는 항아리 물로 손을 씻었다.

"대신이시여, 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사문께 여쭐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급한 일입니까?"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우리아왕국의 흥망에 관한 일이므로 중대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쇼까 부왕님은 본인이 원해서 아반띠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문께서는 대왕님께 10년 후 큰 변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에 놀라고 있습니다. 대왕님의 안위는 마우리아왕국의 흥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소승이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수십 분의 왕자님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대왕님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아쇼까 부왕님뿐입니다. 그러니 아쇼까 부왕님이 대왕님 곁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왕님 마음을 움직여 아쇼까 부왕님을 부를 수 있는 분은 다르마 왕비님뿐입니다."

담마팔 사문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왕비님께 말씀은 드려 보겠습니다."

"사문이시여, 아쇼까 부왕님을 당장에 불러들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를 보아 말씀드려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신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이 늦어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라다굽따는 담마팔 사문과 아쇼까 부왕이 호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잘 풀어질 것이라고 갔는데 믿었던 대로 실마리가 풀렸다고 생각했다. 라다굽따는 뻡빨라나무 둥치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들에게 자신의 품속에 있던 금전과 은전을 모두 보시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라다굽따가 말먹이꾼에게 말했다.

"반달이 아까부터 나를 따라오는구나. 조금 쉬었다 가자."

라다굽따가 반달을 한 동안 올려다보았다. 구름을 헤치고 나온 반달이 달빛을 뿌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자 말이 고개를 쳐들고 진저리를 쳤다. 안개는 강가강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계속〉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모집

불기 2565년 대한불교 선밀종은 아래와 같이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총무원 T. 053)854-0803 F. 053)854-0804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홈페이지 www.sumiljong.or.kr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22 한국의 선리논쟁



▶ 한줄 요약
한국선의 역사에서 선리논쟁으로는 고려 중기 이후 임제종의 종지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임제삼구 해석 놓고 전개된 선리논쟁

1. 선종의 논쟁

선의 종지에 대하여 불립문자(不立文字)이고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불리문자(不離文字) 교내별전(敎內別傳)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언설과 문자의 방편을 통해서 정법안장이 전승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언설과 문자는 선의 종지를 표현하고 전수하는 방식으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언설과 문자로 이루어진 선문헌에는 선의 교의(敎義)를 비롯하여 선의 역사 · 문화 · 수행 · 행위 · 문답 등 다양한 소재가 담겨 있다.

따라서 선종의 역사와 사상과 문화는 선의 문헌을 벗어나서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선문헌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 선의 역사가 전개되는가 하면, 다시 선의 역사로부터 선의 문헌이 영향을 받아 새롭게 간행되기도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누가 기록했는가에 따라서 상반된 내용으로 기록되는가 하면, 상반된 내용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 결과 동일한 선리(禪理)의 기록에 대해서도 그것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견해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선리의 논쟁은 바로 이런 점에서 가장 첨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리의 논쟁은 인도선의 경우에 수많은 선법의 창출과 그 전승과 해석과 실천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보리달마(菩提達磨)로부터 시작되는 중국선의 역사에서는 보다 분명한 이슈를 가지고 나름대로 선리의 논쟁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법맥의 정통과 방계(傍系)에 대한 기준이 되는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자파에 대한 긍지와 타파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가령 달마의 선법을 누가 계승했는가 하는 점은 선종 초기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논쟁이었다. 소위 8세기 중국의 선종사에서 불거진 북종(北宗)과 남종(南宗)의 정통과 방계의 논쟁이 그것이었다.

나아가 남종의 역사에서 다시 당말(唐末) 및 오대(五代) 초기에 형성된 선종오가(禪宗五家)의 분립은 각 문정(門庭)의 교화 방편에 따른 선리의 이해가 각 종파로 전승된 법맥의 문제와 결부됨으로써 자파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전등사서와 어록의 출현으로 인하여 더욱더 다양하고 폭넓은 선리의 논쟁으로 드러났다.

가령 인도의 제27대 조사 반야다라(般若多羅)의 예언으로부터 비롯되어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의 홍주종(洪州宗)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출현한 천왕 도오(天王道悟)의 날조된 법맥의 주장은 선종 법맥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불거졌는가 하면, 조동종(曹洞宗)의 오위사상(五位思想)이 조동종 이외의 다른 종파로까지 전개됨으로써 오위의 정통 논쟁과 오위의 교의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도 또한 선리논쟁의 역사를 화려하게 장식해주었다. 법맥 내지 선리뿐만 아니라 수행의 측면에서도 송 대에 새롭게 출현한 묵조선(默照禪)과 간화선(看話禪)의 수증관도 등장하여 묵조선 측에서는 간화선 측을 향하여 대오선(待悟禪) 내지 제자선(梯子禪)이라고 비판하였는가 하면, 간화선 측에서는 묵조선 측을 향하여 암증선(暗證禪) 내지 묵조사선(默照邪禪)이라고 서로 비판하였다.

2. 한국선의 선리논쟁

이와 같이 다양한 중국 선종의 선리논쟁 뿐만 아니라 한국선에서도 마찬가지의 선리논쟁의 역사가 등장하였다. 가령 나말 및 여초에 출현한 구산문(九山門)의 교의 가운데서 선과 교의 차별일치 · 융합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선의 측면에서 교학과 비교한 일방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와는 달리 본격적인 선리의 논쟁으로는 고려 중기 이후부터 임제종(臨濟宗)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까닭에 임제의 종지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그 연원은 물론 임제종의 세력이 주축을 형성했던 까닭에 〈임제록〉에 근거한 삼구의 해석과 적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임제삼구에 대하여 분양 무덕(汾陽無德, 947~1024)의 어록에 보이는 이해와 그것에 대하여 각범 혜홍(覺範慧洪, 1071~1128)이 〈임제종지(臨濟宗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삼구(三句)와 삼현(三玄)과 삼요(三要) 등에 대한 중국적인 이해는 이윽고 고려 후반기에 진정국사(眞靜國師) 천책(天頙, 1206~1294)의 〈선문강요집(禪門綱要集)〉의 찬술로 계승되었다. 이로써 〈선문강요집〉에 보이는 삼구의 해석방식의 모습은 임제의 삼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등장했던 선리의 논쟁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분명하면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선문강요집〉의 내용은 임제종의 종지와 운문종의 종지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특히 임제종의 종지에 대한 선리의 논쟁은 조선시대 초기 구곡각운(龜谷覺雲)의 〈염송설화(拈頌說話)〉에서 널리 인용 및 논의되었고, 이후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크게 부각되었다. 백파 긍선(白坡亘璇, 1767~1852)은 58세(1824) 때 〈선문오종강요사기(禪門五宗綱要私記)〉를 통해서 선종오가의 선리에 대하여 나름대로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이후 66세(1832)년에는 다시 〈선문수경(禪文手鏡)〉을 저술하여 임제삼구를 중심으로 삼처전심(三處傳心)과 삼종선(三種禪) 등에 임제삼구의 선리를 응용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이후로 선리논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선문수경〉의 선리에 대하여 제일 먼저 비판을 가한 인물은 초의 의순(草衣意恂, 1786~1866)이다. 초의는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에서 백파의 견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점에서 반박하고 그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후에 우담 홍기(優曇洪基, 1822~1881)는 백파 문중에 속하는 인물이면서도 〈선문증정록(禪門證正錄)〉에서 초의와 다른 관점에서 백파를 비판하였다. 따라서 초의와 우담이 백파의 견해를 비판한 것은 전혀 별개의 것에 속한다. 그런 만큼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문의 전체에 걸친 보편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자 다시 백파의 문중에 속하는 설두 유형(雪竇有炯, 1824~1881)은 백파의 견해를 옹호하고, 초의와 우담의 견해에 대하여 다시 반박을 가한다.

이후에 다시 축원 진하(竺源震河, 1861~1926)는 백파의 견해를 비롯하여 우담과 설두의 견해까지 언급하면서 타당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다만 초의의 견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진하는 이전에 초의와 우담과 설두가 각각 강도 높게 비판한 태도와 다르게 비교적 미약한 비판을 가하고, 궁극에는 그 비판을 수용하고자 하는 건설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진하는 이전의 선리비판에 대한 종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비판적인 계승을 지향하였다.



임제의현 진영.

임제종 중심의 선리논쟁 시작
횡적으로 드러난 착종 관점과
횡적개념 주제의 구심점 관점
조선후기, 통시적 주제 포함돼

한국 선종사에서 이와 같은 선리논쟁은 두 가지 관점으로 파악해볼 수가 있다. 첫째는 횡적으로 드러난 착종(錯綜)의 관점이다. 백파가 〈선문수경〉에서 임제삼구에 근거하여 선리에 대한 여러 관점을 내세운 것에 대하여 초의는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고, 백파의 견해에 대하여 우담은 초의와 다른 시각에서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으며, 설두는 백파의 견해를 옹호하며 초의의 견해에 대해서는 여덟 가지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우담의 비판에 대해서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이후에 축원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백파와 우담과 설두의 견해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백파와 초의와 우담과 설두의 사가(四家)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둘째는 종적으로 드러난 일관된 주제에 대한 구심점이다. 백파로부터 축원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끊임없이 이들 논쟁을 관통하는 주제는 임제삼구, 삼처전심, 조사선 · 여래선 · 격외선 · 의리선의 관념과 배대, 살 · 활의 적용 등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개념들에 대한 착종이다. 백파는 조사선(격외선, 제일구)과 여래선(격외선, 제이구)과 의리선(격내선, 제삼구)의 삼종선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삼처전심 가운데서 제이처전심에 해당하는 염화미소(활인검)는 격외선으로 임제종과 운문종이 속하고, 제일처전심인 분반좌(살인도)와 제삼처전심인 곽시쌍부는 여래선으로 조동종과 위앙종과 법안종이 속하며, 의리선에는 선종오가 가운데는 해당하는 종파가 없다고 보았다.

백파의 견해에 대하여 초의는 삼처전심 모두 제일구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명에 의거하면 조사선과 여래선이고, 법에 의거하면 격외선과 의리선이라고 하여 백파의 삼종선에 대하여 양중의 이종선의 개념을 내세운다.

초의의 견해에 대하여 우담은 백파의 삼종선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우담은 삼처전심을 모두 조사선이고 격외선이며 교외별전이고 제일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이구인 여래선은 여래가 증득하고 설법한 교내의 의리이며, 제삼구인 의리선은 교내의 언교에 빠져 교중의 여래선을 증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초의와 우담의 견해에 대하여 설두는 여래의 삼처전심의 경우에 제일처는 분반좌이고 살인도에 해당하고, 제이처는 염화미소이고 활인검에 해당하며, 제삼처는 곽시쌍부이고 살 · 활(殺活)를 함께 제시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백파의 살인도와 활인검의 개념을 수용하여 그것을 우열의 근거로 삼아서 살 · 활이 나뉘어 전수됨으로써 비로소 여래선과 조사선 이선의 우열에 대한 변별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또한 인(人)에 의거하면 여래선과 조사선이고, 법(法)에 의거하면 의리선과 격외선이지만, 이 격외선 가운데에 여래선과 조사선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위의 사가(四家)에 대하여 축원은 의리와 격외에는 모두 여래선과 조사선의 이선이 갖추어져 있어서 조사선과 여래선을 각각 격외선과 의리선의 관계로 논할 수 없다고 부정한다. 왜냐하면 의리선이 의리(義理)의 지해에 불과할지라도 가히 의리를 가지고도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 따라서 여래선과 조사선으로 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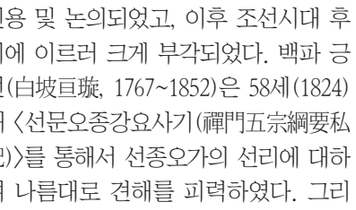
이처럼 조선후기에 촉발된 선리논쟁의 양상은 횡적으로는 인물들 간의 비판과 옹호와 반박으로 착종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종적으로는 삼구와 삼처전심과 선의 분류와 살 · 활이 서로 일정 부분 관련된 모습으로 선리논쟁의 전체를 관통하는 통시적인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선의 역사에서 출현한 선리논쟁은 13세기부터 임제삼구에 대한 해석의 방식이 그 연원이 되어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임제삼구에 그치지 않고 여래의 삼처전심과 달마의 삼처전심, 그리고 삼처전심과 관련한 조사선(祖師禪)과 여래선(如來禪)의 배대, 삼구와 삼현과 삼요의 관계, 살인도(殺人刀)와 활인검(活人劍)의 적용, 삼구와 일구의 관계, 의리선(義理禪)과 격외선(格外禪)의 적용 등 선리논쟁의 범위에 대해서도 점차 널리 확장되어 갔다. 특히 중국 선종사에서 출현했던 남종과 북종의 정통논쟁 및 명말 청초에 전개된 법맥의 논쟁보다도 오랜 세월에 걸쳐 전개되었고, 또한 문정(門庭)의 우월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논쟁의 양상에 비하여, 조선 후기 백여 년에 걸친 치열한 논쟁은 순수한 선리논쟁의 역사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부여할 수가 있다.

〈동국대 HK교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22 관경16관변상도

▶ 한줄 요약
불교의 이상향 극락은 온갖 보배와 황금으로 치장됐다. 이는 공덕으로 장엄된 세계를 묘사한 것으로 〈관무량수경〉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고려불화 〈관경16관변상도〉는 이를 도상화한 것이다.



휘황찬란 극락은 어디 있을까

불교에서는 불사음 · 불음주 등의 금욕적 계율을 기본으로 하고, 제상비상(諸相非相)의 공(空) 사상을 말한다. 하지만, 불교의 이상향 '극락'의 표현을 보면 이렇다. "금 · 은 · 유리 · 파려 등의 칠보 보배로 만들어진 나라, 연못 바닥 가득한 금모래, 황금으로 이루어진 땅…." 온갖 보배로 치장된 곳이자 화려함의 극치를 만난다. 〈아미타경〉에는 그나마 간략하게 서술되었고, 보다 세밀하고도 방대한 극락 묘사는 〈관무량수경〉에서 그 절정에 달한다.

"안팎이 투명한 유리로 된 땅을 상상하십시오. 그 땅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기둥이 받치고 있습니다 알알이 보석에서는 천 가지 광명이 빛나고, 그 한줄기 광명마다 8만 4천 갈래의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그 모든 빛이 유리로 된 대지에 비치면, 마치 억 개의 태양처럼 빛나 눈이 부시어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극락의 땅'을 관(觀)하다〉 중

백억 개 해와 달, 동시에 뜬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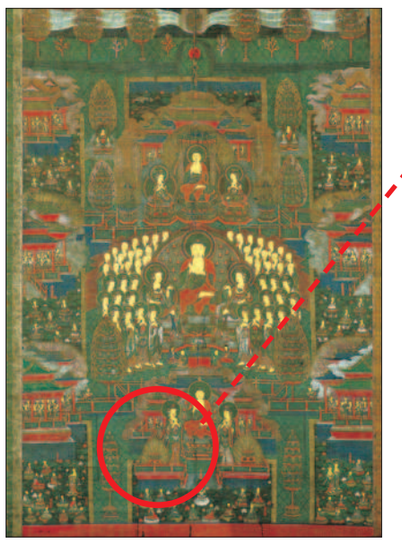
이처럼 논리적 사고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불가사의한 단위와 개념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하늘 동자들은 오백 억의 여의주로 몸을 장식했는데, 그 구슬 빛은 백 유순이나 비쳐, 마치 백억 개의 해와 달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극락의 나무'를 관(觀)하다〉 중

읽다가 보면 이성과 생각을 버리고, 읽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러니까 중생의 알량한 머리로 가늠하려 들면, 대승 경전 읽기는 실패다. 읽는다는 생각도 버리고, 그저 마음을 열고 따라가다 보면, 꿈인지 생시인지 얼핏 운 좋게 그 세상을 체험하기도 한다. 30년 전 극락세계를 주제로 처음 대학 졸업논문을 쓸 때, 필자가 들었던 의문은 이것이다. "불교에서는 금욕과 공사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금은보배 사치와 물질적 극치는 무엇인가?"

자신의 눈높이에 따라 세상이 보이고 불교가 보이는 법이겠다. 이미 스스로 갖추고 있는 눈높이, 자신의 깜냥을 불교 용어로 '근기(根機)'라고 한다. 당시 필자의 눈높이는 그러했기에, 극락세상을 서술한 아미타3부경의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은 의문을 품었었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어린 깜냥으로는 안중에 들어오지 않았던 용어가 있었다.

바로 '공덕과 장엄'이다. 온갖 화려한 내용 묘사에 압도되어 보이지 않았던 단어, 공덕과 장엄! 하지만 지금 읽어보면 휘황찬란한 극락 풍경의 서술 이전, 이 두 단어가 들어간 같은 문장이 단락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됨을 알 수 있다.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키워드는 금은보석이 아니라, '공덕과 장엄'이었다.



그림①

그림①. 일본 교토 지은원 소장 고려불화 〈관경16관변상도〉 전도. 〈관무량수경〉에 묘사된 극락의 모습을 도상화했다.

그림②. 고려불화 〈관경16관변상도〉에 묘사된 극락의 연화대와 누각, 대세지보살 등의 모습. 모두 비유를 키워드로 하고 있다.

온갖 보배로 치장된 극락세계
〈관무량수경〉에서 묘사 '절정'
불화 〈관경변상도〉 도상 담아
공덕으로 장엄된 극락 표현해



그림②

〈무량수경〉의 간략 버전으로 알려진 〈아미타경〉은 워낙 짧기에 공덕과 장엄에 대한 설명은 없다. 아미타 신앙의 근본 경전인 〈무량수경〉은 〈대무량수경(大無量壽經)〉으로도 일컬어지는데, 간단히 '대경(大經)'이라고 불리고, 〈아미타경〉은 '소경(小經)'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법당에 항상 비치된, 불자들에게 익숙한 경전은 소경에 해당하는 〈아미타경〉이다. 여기에는 극락세계에 대한 단출한 소개와 거기로 가는 방법만이 간단명료히 언급되었다. 대경인 〈무량수경〉의 내용에 비로소 어떤 공덕과 어떤 장엄이 이루어졌는지, 그 '인과(因果)' 관계가 설명됐다.

여기서 '공덕'은 원인이고, '장엄'은 결과이다. 장엄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이미 알 수 있지만, 그 원인은 청정(淸淨) 공덕 또는 선업(善業) 공덕이다. 불교에서는 철저한 인과법을 말한다. 지옥계이건 속계(중생의 세계)이건 법계(깨달음 · 부처보살 세계)이건, 무조건 인과법이다.

선업 결과로서의 극락 장엄

그래서 오히려 간단하다. 악업의 결과가 삼악도 왕생이고, 불선업(不善業)의 결과가 육도윤회이고, 선업의 결과가 극락왕생이다. 즉, 내가 실시간으로 체험하는 이 세상은 내 업에 따른 결과라는 것. 번뇌의 결과가 고통이듯, 수행의 결과가 즐거움이다. 물론,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법열(法悅)을 말한다. 법열의 '지극한 즐거움'을 한문 용어로 표현하면 '극락(極樂, 지극할 '극' 자에 즐거울 '락' 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선업 공덕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극락이라는 요지인데,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떤 공덕을 행했기에 이 같은 결과(극락)가 만들어졌느냐'는 것이다. 이런 질문과 그 답변이 무량수경 '제3장 극락정토가 만들어진 원인'에 나오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법장비구의 48서원'이 그 원인으로 등장한다.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다.

〈무량수경〉에는 극락이라는 불국토를 이룬 공덕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법장비구의 결심과 그것의 이행'이 그것이다. 자그마치 "5겁의 오랜 세월을 두고 깊은 선정에 들어 불국토를 이루고 장엄하기 위한 청정한 수행에 법장비구는 온 정성을 다 기울였느니라." 삼매 체험을 일순간 하기도 힘든데, 무려 5겁의 삼매 기간이라니! 이러한 선업 공덕의 결과로서의 장엄 세계인 '극락'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미타불(또는 무량수불, 무량광불) 관련 불화이다. 그저 극락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극락세상을 추체험할 수 있다. 무량수경보다 더더욱 우리 중생의 눈높이에 맞춘 설법이 〈관무량수경〉의 내용이다.

관무량수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본 연재에 소개하는 〈관경16관변상도〉이다. 〈관무량수경〉을 약칭해서 〈관경〉이라고 한다. 그림 제목인 〈관경16관변상도〉란, '관경에 설해진 16단계의 (극락을 관찰하는) 관법을 쉽게 풀어 그림으로 그린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유행했던 극락도의 전형이다.

고려 시대와 조선 전기의 기본 구도는 본 그림과 같은 형식이고,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아미타3존과 왕생연못'을 위주로 〈극락9품도〉가 정착되게 된다. 전도(그림①)의 윗부분에는 해(日想觀), 물(水想觀), 땅(地想觀), 나무(寶樹觀), 연못(寶池觀) 등의 풍경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8개의 연못이 그림의 외곽으로 둘러있고, 화면 중앙으로는 아미타3존(아미타불 진신관, 관세음관, 대세지관)이 3회(상 · 중 · 하) 묘사되었다.

'삿띠'하는 자리, 극락의 시작

극락의 땅이 전체의 배경으로 깔렸고, 보배나무와 연화대는 연못 구획의 경계선 역할로 도처에 그려졌다. 극락의 누각은 각 연못과 아미타삼존(상 · 하)을 배경으로 총 8곳에 표현되었다. 연화대는 4곳에 발견되는데, 상단의 연화대(2구)는 "마니보주로 이루어진 연화대는 8만의 금강석과 견숙가보와 범마니보와 묘진주의 그물로 장엄되었다. 연화대 위에는 네 개의 보배 당번이 세워졌는데 그 하나하나가 마치 백천만 억의 수미산 같다('화좌관華座觀' 중)"는 경전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듯, 연화대 속에 우주가 들었다.

하단의 연화대(2구)는 상품상생(上品上生)의 수행자를 앉히기 위해, 그림 아래쪽 아미타3존 옆에 마련되었다.(그림②) 무진장의 보주로 만들어진 연화대에서는 보주마다 8만4천의 색다른 금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극락왕생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불자들의 영원한 염원이다. 그런데 〈관무량수경〉의 도입부에서부터 "그대는 범부라서 마음이 약하고 생각이 못미처서 부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극락을 갈구하는 위데휘 부인에게 부처님은 '범부'라 하셨다. 범부란 '교만하고 게을러서 아견(我見)만으로 전부를 헤아리는 사람'을 말한다. 아는 것이 적고 오욕에 빠져있으면서 자신의 식견만이 옳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중생들이 이런 상태다.

"하지만 다른 방편이 있어 너에게 이를 보게 하리라. 그대는 아는가 모르는가. 아미타불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는 마땅히 마음을 오롯하게 모아(繫念) 청정한 업(淨業)으로 만들어진 저 세계를 명료히 관하라(諦觀). 내가 너를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하겠다."

여기서 또 하나의 키워드 '비유'를 만나게 된다. '비유의 방편'은 〈법화경〉을 비롯해, 대표적 대승경전을 가로지르는 핵심이다. 범부라서 실제로 체험할 수 없으니, 비유로 설명을 하겠다는 뜻이다. 경전 속의 온갖 보배는 범부를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의 수단일 뿐이다. 옮길려고 해야 옮길 수 없는, 담을려고 해야 담을 수 없는 청정한 세상의 깊고도 넓은 미세하고도 광활한 장엄을 어찌 표현하겠는가.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박원자의 母情佛心 21 마가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마가 스님의 아버지는 스님이 뱃속에 있을 때, 다른 여자에게 갔다. 이에 대한 원망으로 마가 스님은 청소년기 방황을 했고, 불교를 만나 수행자로 다시 태어났다. 스님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자신의 명상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고, 정화 스님과 수행하며 부친에 대한 원망도 자비심으로 승화시켰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母子 아름다운 동행



그림 · 박구원

환갑의 아들 스님이 어머니 보살에게 수시로 염불하듯 말씀드린다. “미안합니다.”

어느덧 구순을 넘겨 허리 굽은 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화답한다. “고맙습니다.”

초로의 아들 스님이 어머니가 전부였던 아이 때처럼 고백한다. “사랑합니다.”

스마트 법당 미고사를 창건한 마가 스님의 일상이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의 앞 세 글자를 따서 미고사라 이름지었다.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는 마가 스님은 최근에 어머니에게 수계를 해드렸다. 스님들이 열반할 때 입는 것과 똑같은 수의도 준비해두었다. 돌아가시면 다음 생엔 출가수행자가 되길 발원하며 바로 출가 의식을 겸해 염해드리려고 한다. 어머니는 아들 스님에게 배운 〈천수경〉을 외우시며 기도하고, 틈만 나면 아들 스님과 ‘아미타불’을 왼다.

한때 미워하며 원망하기도 했던 어머니는 삶의 고비마다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세워준 선지식이었고 오늘날의 스님을 있게 한 관세음보살이다. 스님의 삶은 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마음을 낸 순간부터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출가하면 부모를 멀리해야 하는 승가의 풍토에서 왜 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까.

사연은 이렇다. 출가하고 십 수 년 뒤, 스님은 고향의 지인을 통해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스무 살쯤 집을 나와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어머니의 소식이었다. 고향으로 가는 길 위에서 어머니의 삶을 떠올렸다. 만감이 교차했다.

사남매를 낳았던 어머니는 막내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지아비가 떠나 보내야했다. 새로운 인연을 찾아 집을 나간 것이다. 남은 식구들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시골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며 자식을 키워야했던 어머니의 삶이 가장 곤고(困苦)했을 것이다. 큰아들을 비롯해 딸 둘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던 어머니는 막내아들만이라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새로 가정을 꾸린 남편에게 보냈다.

사춘기의 아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린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었다. 말썽을 부려 아버지 속을 긁는 것으로 복수했다. 아마 그때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며 기도하고 어린이 주일학교를 맡아 그들과 뛰어 놀지 않았으면 어떤 극한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건 껍데기뿐인 평화였다. 아버지에 대한 울분이 가셔지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목사님 댁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아와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거칠게 항의했다. 그 여파로 사택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설 데가 없었다. 그때까지 아버지라는 이름대신 ‘그 인간’으로 불렀던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대못을 박아 평생 죄의식 속에서 살게 하기로 작정했다. 그간 살아온 모든 흔적들, 앨범, 사진들, 옷가지를 버렸다. 수면제 70알을 사 모았다. 고향에서 가장 먼 곳인 강원도를 향해 걷고 또 걸었다. 35일 후 월정사에 도착했다. 산내 암자인 지장암을 지나 눈 내리던 부도전 앞에서 약을 입에 넣었다.

월정사 어느 방에서 눈을 떴다. 3일 만에 깨어났다고 했다. 지켜보던 노스님 한 분께서 말씀하셨다. “자네는 다시 태어났네.”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였던 한 청년의 영혼이 그렇게 다시 깨어났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던 막다른 길에서 출가했다. 월정사, 해인사, 범어사 등지를 거쳐 도선사에서 은사인 현성 스님 밑에서 행자생활을 했다. 그때 누가 보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당신 아들 도선사에서 행자하고 있더라’고 전한 모양이다. 나중에 들었다. 그때 어머니는 집 나간 아들의 소식을 듣고 생각했다고 한다. ‘아, 내 아들이 어디 가서 행자라는 여자를 만나 살고 있구나!’

어머니가 아들의 출가를 정확히 안 것은 출가 후 십 수 년 만에 찾아간 고향집에서였을 것이다. 그때까지 어머니를 찾지 않았었다. 돌아보니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뒤엔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 어머니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아버지가 집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출가자는 혈육과 멀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출가자가 된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아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들어갔다. 마당가 매화나무에서 매실을 따다가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했다.

“겨우 허리를 펴 자식을 위해 밥상을 차려온 어머니를 보면서 결심했어요. 아픈 몸으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는 부처님께도 죄송하고 나의 수행도 도로아미타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애 최초로 욕심을 냈죠. 절이 하나 생기면 어머니를 모셔야겠다고. 이러한 결심이 국내외 수행처를 찾아다니며 수행했던 개인적인 삶에서 중생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삶으로 전환시켰죠. 결국 어머니가 길을 내주신 거죠.”

청소년기 방황하다 만난 불교
마가 스님에겐 삶의 전환점돼
모친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갖자
스님만의 명상브랜드들 탄생도
집나가신 아버지 원망도 ‘훌훌’

떠나오는 자식에게 어머니는 2천만 원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동안 시장에 나가 나물 팔고 콩 타작해서 십 원, 이십 원 모은 돈을 내놓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했다.

“늘 사립문을 열어놓고 너를 기다렸다. 네가 언제고 오면 장가 밑천으로 주려고 모은 돈이야.”

돌아오는 길에 고향 절에 들러 어머니 이름으로 대들보를, 아버지 아름으로 기둥 하나를 시주하면서 그 돈을 다 내놓았다. 정확히 4년 뒤 시골의 조그마한 절을 맡게 돼 그곳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스님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공주 마곡사에서 부부, 가족, 실버세대, 실업자, 기업체 등 다양한 부류의 대상에게 자비명상을 지도해 연인원 3000명을 동참시켰다. 그 결과 마곡사를 템플스테이 대표사찰로 만들었다. 중앙대학교에서 ‘내 마음 바로 보기’ 수업을 시작해서 9년 동안 최고 인기 강사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마음공부를 지도했다. 스님의 브랜드처럼 된 치유와 용서, 기쁨과 행복을 위한 자비명상이 나오고 마곡사 템플스테이가 역동적으로 운영된 데는 ‘어머니’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로 인해 탄생한 스님의 브랜드가 또 하나 있다. “그래도 괜찮아.”

아예 스님이 진행하는 불교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이 된 이것은 어머니의 팔순 생신 때 탄생되었다. 그날 스님이 온 가족을 초대했다. 집을 나간 지 50년 만에 돌아와 계시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팍팍하게 살아온 형님 내외, 두 누님들이 모였다. 아버지 없이 살아온 상처 깊은 수십 년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누군가 통곡하며 가족의 폭력성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자식들이 이렇게 불행하진 않았을 거라고 원망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느그 아버지는 사람은 치지 않았다.”

한평생 속이 썩어문드러졌을 만한데도 ‘그래도’라며 아버지를 용서한 어머니를 보며, 불평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아프고 괴롭고 힘들다, 그래도 이만해서 감사하다는 가르침을 배웠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화해되는 것을 보면서 ‘긍정명상, 감사명상’이 태어났다.

내 현실을 수용, 긍정할 때 감사가 나온다. 감사가 행복의 밑그림이다. 감사라는 밑그림이 없으면 영원히 행복이라는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다. 스님은 어머니의 ‘그래도’ 한 마디를 통해 깨달았던 이 경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감사해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 긍정명상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지금, 수행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을 용서로 바꾸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108배를 하던 참선을 하던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공염불입니다.”

“스님께선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와 어떻게 화해를 하셨나요?

“젊은 시절, 수행에 진전이 없어 힘들 때 곡성 태안사에 계시던 청화 스님을 찾아뵌 적이 있어요. 보자마자 ‘자네는 출가 전에 어떻게 살았나’라고 물으셨는 데, 그 물음에 숨이 막히더군요. 스님 곁에 한두 달 있으면서 제 가슴 속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그대로였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스님 곁에서 정진하던 어느 날,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 청화 스님, 부처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일주일은 울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수행자로 만들기 위해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고마움으로 바뀌었죠. 그때 나를 먼저 정화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청화 스님을 뵈면서 자비라는 것을 실감했는데, 아픔을 치유하고 용서하는 자비명상이 그때부터 태동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스님은 어머니와 함께 찍은 다큐 한 편을 마무리했다. 점점 쇠약해져 언제 떠나실지 모르는 어머니를 모시고 거의 한 해 동안 전국의 명찰을 다녔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막내아들을 위해 보리 두 말을 공양 올리며 종 불사를 했던 고향의 작은 절에도 다녀왔다. 종 끄트머리에 적혀있던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아하, 어머니의 저 보리 두 말의 공양으로 내가 출가했구나’ 생각도 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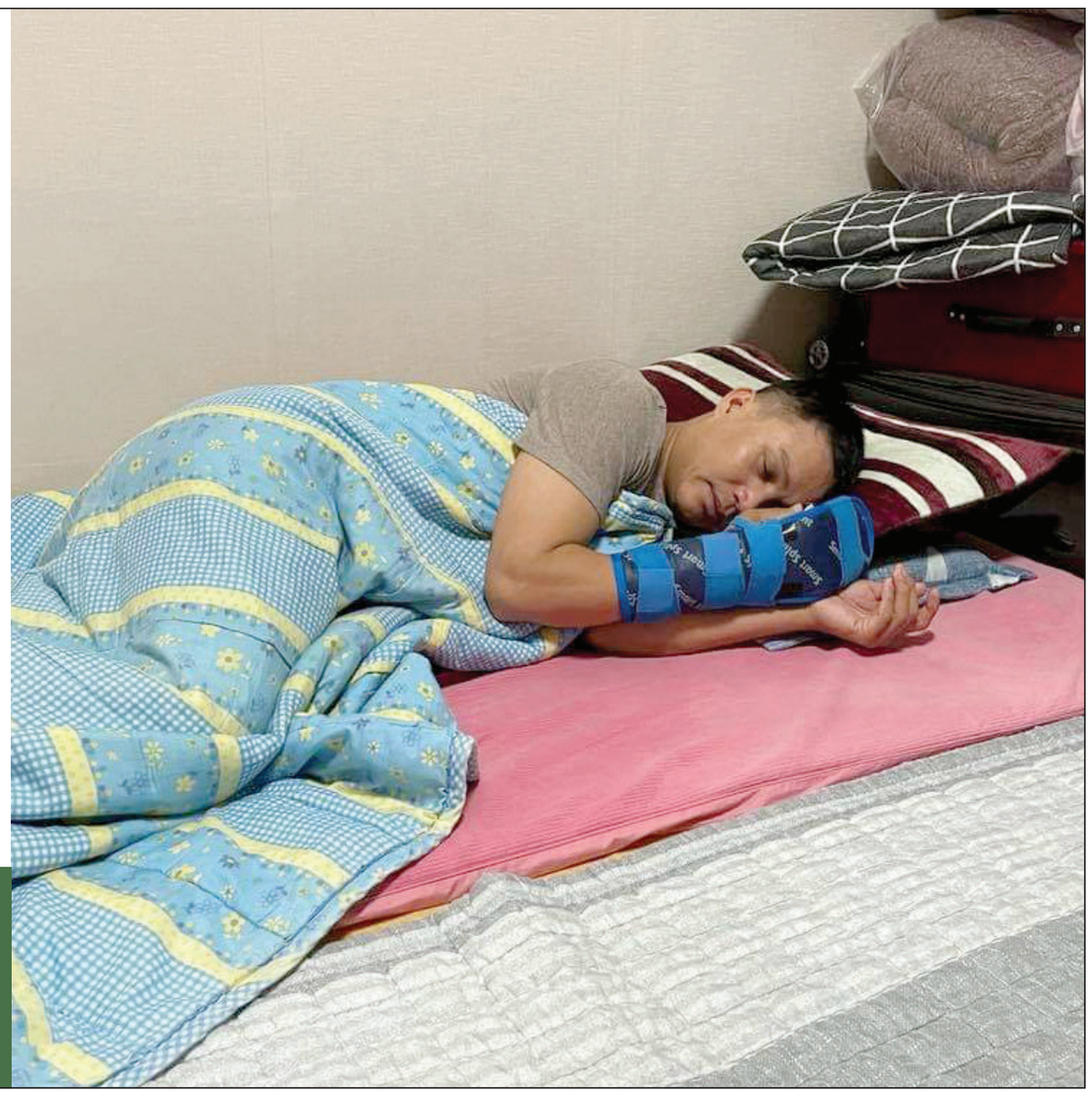
아들 손을 잡고 때로는 등에도 업혔던 스님의 어머니가 그대로 영상에 나올 것이다. 내년 초에 일반에 공개될 거라는 다큐의 마지막 자막은, 스님의 어머니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이 메시지가 아닐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작가〉

일일시호일

손가락 잘려나가는
끔찍했던 순간에 매일이 고통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리우띠안씨 기계에 손가락 4개 잘려
해고 당하고 기숙사서도 쫓겨나…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이뤄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법화경〉 오랜 보존 위해 '다라니'를…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㊸ 법화경과 다라니

그때 약왕(藥王)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 드러내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워서 통달하거나 경전을 쓰면 복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8백만억 나유타 항하 모래알 수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다면 그대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가 얻는 복이 많겠는가? 많지 않겠는가?"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의 사구게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뜻을 알고 설한대로 수행한다면 공덕이 매우 많으니라."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경전을 설하는 이에게 다라니주(陀羅尼呪)를 주어, 이로써 그들을 수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곧 주를 설하였다.

아니 마니 마녜 마마녜 지례 자리제 샤마 사리다위 선제 목제 목다리 사리 아위사리 상리 사리사예 악사예 아기니 선제 사리 다라니 아로가바사 바자빅사니 녀비제 아변다라녜리제 아단다바례 수지 구구례 모구례 아라례 바라례 수가차 아삼마삼리 못다비기리구제 달마바리차제 싱가열구사녜 바사바사수지 만다라 만다락사야다 우루다 우루다교사라 악사라 악사야다야 아바로 아마야나다야

"세존이시여, 이 다라니신주는 62억 항하사의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바이오니, 만약 이 법사를 침해하거나 훼방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곧 이 모든 부처님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때 석가모니부처님이 약왕보살을 찬탄해 이르셨다.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약왕이여, 그대가 이렇게 법사를 걱정하여 지켜 주려고 이 다라니 설했으니, 여러 중생들에게 이익이 많으리라."

〈법화경〉에도 다라니가 설해져 있다. 제 26품이 '다라니품' 인데 약왕보살이 먼저 〈법화경〉을 설하는 이에게 다라니 신주(神呪)를 주어 수호하겠다고 서원을 말하고 다라니를 설하자 이어 용시보살과 비사문천왕, 지국천왕, 나찰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5개의 다라니가 설해져 있다. 〈화엄경〉을 두고 '화엄만다라' 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법화경〉은 '법화다라니' 라는 말을 쓴다. 물론 〈능엄경〉에 설해져 있는 '능엄신주' 는 더욱 유명하다. 〈법화경〉의 다라니는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는 자와 남을 위해 설해 주는 자를 옹호해 주는 주문이다. 주술을 통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 법화수행자가 외부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원래 다라니는 밀교의 수행법으로 불가사의한 공능을 은밀하게 얻어내는 신비로운 것이다. 다라니를 수지하는 것을 주력(呪力) 수행이라 말한다. 약왕보살이 설하는 다라니 신주를 62억 항하의 모래알 수의 부처님들께서 설했다고 밝혀 밀종(密宗)의 출처가 부처님에게 있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다. 불교 신앙에는 주술적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 기도의식용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천수경〉에는 '심묘장구대다라니가' 가 핵심인데 다라니를 수지 독송하게 하여 깨달음에 나아가게 한다.

원래 다라니(dharani)는 불 · 보살에 대한 염원 등을 함축하고 있는 경전의 어구나 구절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어원의 뜻을 밝혀보면 모든 것을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비유하여 말하면 깨지지 않는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서 새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총지(總持)라고 번역하고 능차(能遮)라고 번역한다. 능차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뜻이다. 물론 다라니마다 각기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술적 위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법화경〉에 다라니가 설해져 있는 까닭은 부처님의 실교 법문인 〈법화경〉을 길이길이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법화경〉이 보존 유지되어야 부처님법이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말세에 와서 〈법화경〉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는 점을 은연중 부각시키고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자발적 선의 지닌 '자리이타' 해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㊸ 생명-의료윤리와 불교윤리의 적용

현대 사회에서 크게 발달한 응용윤리학에서는 윤리적 난제(難題)들의 본질과 그 해결책의 기준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판단의 궁극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응용윤리학에서는 규범윤리학의 주요한 이론을 현실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한다. 아울러 응용윤리학은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나뉜다.

응용윤리의 여러 분야 가운데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분야는 생명윤리와 의료윤리일 것이다. 초창기에는 생명윤리학(Bio Ethics) 혹은 의료윤리학(Medical Ethics)으로 불렸지만, 점차 생명-의료윤리학(Bio-Medical Ethics)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생의윤리학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생명-의료윤리학에서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새롭게 제기된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다루는 주요한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 첨단 과학기술과 유전공학, 진료행위와 환자의 인격, 의료자원의 분배제도이다.

특히 삶과 죽음의 문제는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의 정의에 관련된 본질적인 물음을 내포한다. 동서양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는 생명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생명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물음은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며, 어느 시점부터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다. 생명의 시작에 대한 물음은 필연적으로 그 끝인 죽음과도 연결된다. 죽음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등이다.

우리의 삶은 첨단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류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졌던 기술이 그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기술에 대한 비난과 우려가 있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사람과 사회적 환경이다. 마찬가지로 의료윤리도 좁게는 의료인과 환자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지만, 넓게는 의료인의 사회적 환경이 문제가 된다.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자율권과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의 선의의 간섭주의는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분과 의료보험제도의 확대는 소득의 배분과 직결되어 있어서 빈부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불교적 접근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까닭에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불살생계(不殺生戒)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때로는 불살생계를 고수하는 것보다 보살도(菩薩道)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불교 경론에서 불교윤리의 토대를 찾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이를 이론적 토대로 삼아서 구체적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적용해야 한다. 서양의 불교학자들은 업(業), 계율(戒律), 자비(慈悲), 보살(菩薩) 윤리, 선교방편(善巧方便) 등을 불교윤리의 토대로 삼아서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불자들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올바른 행위, 즉 자발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포함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해야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⑲ 성불을 이루는 지관수행

진여본성, 마음 본체 · 우주 근원

진여심 의식(意識)으로 전변(轉變)

불자 여러분! 진여본성의 마음이 무명에 훈습되면 청정성과 지혜성이 오염된 마음으로 변하여서 지혜가 의(意)식(識)으로 전변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온갖 허망한 망상과 분별을 일으키며 망경계를 집착하고 구속되어 갈애와 애욕을 일으키며 억한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어 망심이 있는 한, 마음에 분별과 집착이 있는 한, 마음이 진여본성과 상응하지 못하는 불각의 무명이 있는 한, 생사윤회의 고통은 끝없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염된 무명심이 아뢰야식 속에 업식종자(業識種子)가 되어서 념념히 상속되어지기 때문에 무명이 있는 한 생사윤회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여본성의 청정한 본래 지혜가 의식으로 전변하게 되면, 마음은 망념과 망상분별을 일삼게 되고, 삼독심을 일으키며 마음 내면을 5가지 덮개로 온통 뒤덮어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의 5가지 덮개라는 것은 내면세계의 의근에서 생기는 탐욕, 진에, 수면, 도회, 의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덮개가 마음 내면을 뒤덮게 되면 악한 업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5가지 덮개를 제거해야만 모든 악업과 8만4천 가지 번뇌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

불자 여러분! 마음은 심(心) · 의(意) · 식(識)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고 전오식(前五識) · 제6의식 · 제7말나식 · 제8아뢰야식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문에서는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대상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생멸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할 때마다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오고 감이 없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마음의 본체이며 생명의 근본이며 우주의 근원입니다.

〈화엄경〉 60권에서 "삼계는 오직 일심뿐이다. 마음 밖에 다른 법은 없다." 고 교설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바로 진여본성의 불생불멸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화엄경〉에서 삼계유심의 견처를 드러내고 있는 사구게가 있는데, "만약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뵙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계의 성품이 모두가 마음이 지은 것임을 관해야 한다.(약인욕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 삼계유심(三界唯心)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유심(唯心)이 바로 진여본성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유심(唯心)' 이라는 이 말은 현재 견문각지(見聞覺知)하는 마음과는 분명히 다른 마음입니다.

불자 여러분! 〈마조도일선사광록〉에 보면 마조 스님도 "무릇 색을 보는 바는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은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自心)이 아니라 색으로 인한 까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두 가지 마음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는 생멸하는 마음으로 대상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색(色)' 이라는 경계를 눈이 인식했을 때 생겨나는 '안식(眼識)' 의 마음을 생멸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귀로 들을 때나 코로 냄새 맡을 때 등 육근으로 접촉하여 인식하는 마음은 모두 생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량분별과 지각을 일으키는 마음으로서 제7말나식과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종자식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식(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두 번째 마음은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의 마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 마조선사가 대중에게 이렇게 설법하였습니다. "그대들 모두는 각자 자심(自心)이 부처임을 믿으라.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달마 대사가 남천축국으로부터 와서 중국에 이르러 상승법인 일심의 법을 전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고 또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심지를 도장 찍듯 확인해 주었다. 그대들이 전도된 생각으로 믿지 않을까 두렵도다. 이 일심의 법은 각자 자신에게 있다"고 이 진여본성의 마음을 자심(自心)이라고 하며 부처라고 교설하고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경자 신축년의 지구촌 코로나와
임인년 이후의 세기적 변화에 대한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에서의 처방 및
비밀한 가르침에 대한
놀라운 해설서 !!!



일곱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 미륵부처님이 왜 일곱단계를 거쳐서 오시는가?
–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명과, 법신불의 광명은 어떤차이가 있는가?



대방광불화엄경의
진실한 뜻을 밝힌다.

– 선재동자가 삼아승지겁을 뛰어넘어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 수많은 천상의 신계와 인간은 어떻게 소통하나?
– 법계가 바뀌어 광명천지 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각 권 정가 20,000원 (이만원)

문의 010-3514-708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관음사
• 주 지 : 법성 (속명 : 임다경)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황정2길 35번지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65호 | 17 | 전면광고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취득 동참 안내

◆ 포교사, 전문포교사 ◆ 법사, 전문법사
◆ 법계분야 – 대종(선율)사, 종사, 율사, 선사, 종법사, 종무사
◆ 제출된 서류로 평가심사 취득가능

교육부 상학인가 만대 불교학대학원
한국불교수행자연합회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효사연락

010-5962-4600
효사비결 CD프로그램 교환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한마음으로 오래 계실분
010-4766-3200

사찰 처사(운전가능)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010-9157-2276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제주도(육각사)
010-3753-7844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경주
010-8908-0488

각종비법 전수원 (各種秘法傳修院)

귀문 비법 신공 鬼門秘法神功 와룡 비법 신공 臥龍秘法神功
육효 비법 신공 六爻秘法神功 택일 비법 신공 伏日秘法神功
풍수 비법 신공 風水秘法神功 지지 비법 신공 知止秘法神功

장애스님, 보살 무료 Daim 역학대통령 ▼ 최다목록

남녀 4~50대 암자에서 수학 인도 기다립니다. 02-904-3375

뭐든지 성취되는

기도법 전수(스님께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스님 무속인 환영·성실지도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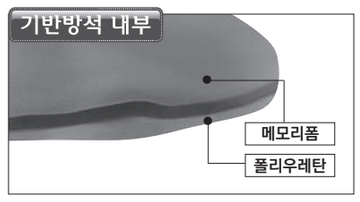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65호 | 18 | 전면광고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보장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까지 홍보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 법당 목조 25평, 요사채 콘트리트슬라브 53평, 대지 약 400평, 심야전기
- 가액 : 3억 5천
- 요양원 하실분

010-5780-14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 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010-9015-4040
010-2077-7820

아름다운 사찰 안내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5)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정원조성 잘되어있음)
- 진주, 의령, 합천 중간지점(각20분 소요)
- 삼존불, 영당, 신중당,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전체),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와서 보시고 협의(가액), 언제든 양도가능

010-2607-7114

토 굴 안 내

- 위치 : 서울 삼각산자락
- 약 13평, 인법당, 기도 (수행자)적합, 교통편리
- 꼬옥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시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 3천만원

010-8754-78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부지 : 5,823평(종교용지, 대지 1,700평 포함) 건물 : 3개동(대웅전, 요사채, 극락전)
- 토지, 건물 : 분할가능
- 가액 : 21억(분할시 상단 15억, 하단 7억)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2평, 시설금 1천2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 5백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채(2), 공양간, 시설완비(에어컨 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및 공사, 관벨, 도배, 기타 시설은 무료)
- 5년전 인수금액 그대로임

주지 무진 010-3049-5816

포 교 원 안 내

- 부산 수영구 광남로 (50평 이상)
- 3층 건물 / 2층(큰방 2, 화장실 2, 넓은 거실) / 약사부처님 3지반/일광월광 / 호신불 약사관음 108불/영단/지장 108불 영단 잘 되어 있음
- 보 1천만원 / 월 70만원(시설비 2천5백만)
-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함

010-3700-3628
010-7476-989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360평(국유지 1만평 사용)+사유지 500평 무상사용 ● 법당 : (요사채+최신형 인테리어), 극락전(목조기와신축)
- 가액 : 1억 2천만원(3억 5천 대출승계안고)
- 조건 : 모든석불포함(석불조성 1억 5천만원)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숲 5천그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 공사 전주시장 승인 준공예정

010-9647-07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절충

010-3714-10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 보 5백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377-2279

토 굴 안 내

- 총평수 : 247평
- 조용하고 전망이 시원한 마을 뒤 끝집
- 텃밭에 다수의 유실수가 있음
- 법당, 요사채, 산신각, 용왕당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8644-584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근처
- 2층 30평
- 보증금 : 2천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금 : 1천만원

010-2809-8819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 휴천 남호리 1002, 1005 2필지(관리지역), 총456평
- 가액 : 3천만원
- 위같은리 1000, 1001 논밭 총794평, 2필지(관리지역)
- 가액 : 4천만원

010-9393-4965

고성사찰(급)안내

- 종교용지, 대지634평 불교재단 법천사
- 1층 슬라브 36평, 화장실 및 창고 3평, 법당 24평, 산신각 3평
- 절앞에 저수지 있음, 수도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
- 가액 : 1억5천만원, 절충가능
- 별도 : 대지 177평, 답 917평 합계금액 2억 7천만

010-3553-278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5371-5567

예쁜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200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0-4999-562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대이로
- 4층(65평)남향, 엘리베이터 사용
- 법당, 방2개, 상담실, 부엌, 화장실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010-7219-007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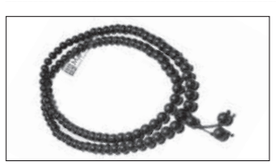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소실지원(蘇悉地院)

허공장원에 접해 있으며 서방(西方)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중심이 되는 존은 없으며, 좌우에 4존씩 8존이 배열되어 있다. 소실지(susiddhi)는 묘성취 '훌륭한 완성' 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원래는 허공장원의 일부로 있었으나 동방의 석가원과 문수원이 두 곳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칭에 따라 허공장원과 소실지원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진다. 현도만다라에서만 볼 수 있는 원 구성이 특징이다.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㉑ 뇌병변장애 이재훈 씨

업과 장애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삶

스물여섯 살의 뇌병변장애청년 이재훈 씨를 부산에서 만났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언어소통이 거의 어려운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이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절에 가기를 좋아했던 재훈 씨는 지금은 부산 홍법사에 다니며 신심 돈독한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재훈 씨에게 도착했다는 문자를 넣으니 어머니와 함께 절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있었다. 재훈 씨는 원래는 범어사에 다녔었다고 한다. 범어사에도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은 갖추어져 있지만, 문화재가 많아 전동휠체어를 탄 자신이 법회 등에 참석하기에는 불편함이 컸단다. 자신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절을 찾던 중 홍법사를 알게 되어 다니기 시작했단다.

재훈 씨는 반가운 인사와 함께 "법당에 자유로이 들어갈 수도 있고, 스님 프로필을 보니 복지관에도 근무하셨고, 인자하시고 시설이 좋아 계속 홍법사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전법도량 홍법사의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큰 포교 원력과 실천수행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주지 심산 스님도 재훈 씨의 장애를 특별히 여기지 않고 자유로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했다. 그 자연스러움 속에 숨은 세심한 배려가 엿보였다. 특히 원만한 언어소통을 위해 문자나 카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언제라도 답을 주셨다.

재훈 씨의 어머니는 종종 "네가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처럼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찰을 다닐 수 있는지 감사하다"고 말한다. 부모님이 업과 장애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은 재훈 씨 수행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12년전 '보치아'로 선수시작
장애인체전 은메달 등 수상
한달에 한번 곤충 방생하며
그 공덕으로 대중 행복기원

나도 어릴 적 고향인 춘천 봉덕사 법당 안을 뒤뚱이는 걸음으로 돌아다니며 놀던 이야기를 했다. 어린 내가 법당에서 자유롭게 노는 동안 어머니는 "아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라는 말을 들으실 때마다 "부처님께서 이유가 있어 장애를 갖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다. 그리고 내게는 "네가 안타깝고 기특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셨다.



매달 방생하며 보리수아래 대중과 모든 불자들의 행복 기원하는 뇌병변장애 보치아 선수 이재훈 씨.

재훈 씨는 부산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보치아 선수다. 운동선수들이 기업의 체육팀 소속으로 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치아는 장애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컬링과 비슷하다. 재훈 씨는 12년 전 보치아를 시작한 후, 2010년 전국장애인 학생체전 금메달, 2011년 장애인 학생체전 개인전 은메달, 해남 도지사 배 보치아 대회에서 1위, 2012 부산 전국대회 2위 2012 전국장애인체전 개인전 은메달과 페어 금메달, 2019 장애인체전 개인전 은메달 등을 획득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앞으로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나 장애인올림픽에 국가대표로도 발탁될 가능성이 기대되는 선수다.

재훈 씨는 한 달에 한 번 곤충을 방생하고 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방생이 좋다는 어느 스님의 말씀을 듣고 방생을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집 근처에 있는 내원정사에서 방생을 하다가 요즘은 홍법사 숲길에서 방생을 한다고 한다.

자신이 방생하는 공덕으로 모든 불자와 보리수아래 장애불자들이 항상 큰 우환없이 건강하고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사찰마다 편의시설이 좀 더 설치되고 장애인불자법회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남겼다.

스물여섯 살 장애청년 재훈 씨가 하는 기도와 염원,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장애인포교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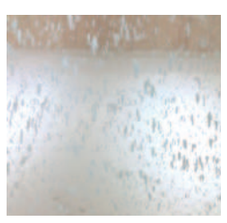
재훈 씨의 불심과 수행이 장애불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재훈 씨가 온몸으로 하는 기도는 세상을 위한 공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해양심층수 100%
해양 高 미네랄
MQ 눈소금

瞬間空中結晶製鹽技術
동해바다 수심 605m
청정 해양심층수를 길어 올려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로
찰라의 순간에 수분을 증발
소금을 공중에서 눈처럼 내려
쌓이게 하는 첨단기술로 만든
깨끗한 미네랄 엠큐눈소금







深層水의 미네랄을 가득담은
기적의 소금
(순간공중결정제염)



엠큐 눈소금의 특징
- 해양심층수 100%로 만들어진 해양미네랄 100% 소금입니다.
- 청정 해양심층수를 마이크로필터로 걸러서 만들어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확인 소금입니다.
- 골다공증 예방,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 신경전달의 핵심 미네랄인 마그네슘,칼륨,칼슘,나트륨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화와 영양흡수를 돕는 나트륨, 염소 성분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십가지 미네랄이 미네랄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건강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나트륨 성분의 체내 배출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나트륨 축적의 위험성이 없는 소금입니다.

※500ml 생수에 소금3g을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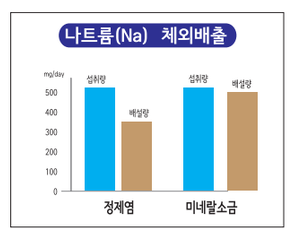
구분	일반정제염	엠큐눈소금 (100g 당)	차이점
염화나트륨	99.52%	75.39%	24.13% 낮음
나트륨	38.99g	29.64g	9.35g 적음
마그네슘	10mg	3,893mg	389배 많음
칼슘	30mg	988mg	32배 많음
칼륨	20mg	992mg	49배 많음
기타	표층수	해양심층수	

■ 자료 출처 명기
나트륨배출 촉진 : 출처 : KBS 생로병사의 비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출처 : 한국 분석과학연구소
소금성분 출처 : 한국기능식품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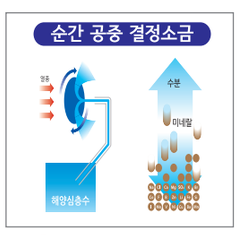
수상 경력
- 2019년 9월 대평남종현 발명문화상 수상
- 2019년 10월 GTI국제투자무역박람회 금상 수상
- 2020년 6월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수상
- 2021년 7월 2021년 대한민국을 이끈 혁신리더 50인에 선정

특허
- 10-1844017 : 해수에서 미네랄 분리추출
- 10-0885175 : 미네랄 워터와 미네랄 소금 제조기술
- 10-1681672 : 나무의 유용물질 함유 미네랄 소금제조기술
- 10-0548295 : 미네랄 해수소금제조장치 및 방법


미세플라스틱불검출 인증



나트륨배출 촉진확인



최첨단 특허제조기술



3g 스틱(60포)
건강용 제품 (3g 한 포 500ml 에 타 드세요)



엠큐눈소금 W 스틱 엠큐눈소금 W 굵은소금 1병
고운소금 1병으로 구성 건강고급제품



고운 소금 2병 굵은소금 1병으로 구성된 세트제품 요리등에 적합

문의 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전 제품 롯데택배 무료배송 (도서산간, 오지 등 일부지역은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마음책 다시 읽기 붓다의 명상법 ❸ 이론과 실제의 접목

▶ 한줄 요약
호흡수행이 마음챙김으로 이어진다.

유기적인 심신 작용을 살피라



이번 장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대념처경〉과 〈안반수의경〉의 내용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실제 수행에 비춰 통합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해석으로 마음챙김 명상의 바른 수행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20세기와 금세기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알리고 전파한 훌륭한 수행선사들의 수행지침들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고찰한다. 위의 두 경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해석들과 여러 수행선사들의 실제 수행지침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마음챙김 명상의 바른 수행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대념처경〉과 〈안반수의경〉에 나타나는 수행법 중에 실제 수행에 있어 중요한 것들인데 이론 연구분야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과 실제 수행에서의 발견들이 충돌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충돌이 야기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텍스트에 대한 이론 연구에 그치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원의 수행 전통을 무조건 수용하면서 이론 연구가 부족하여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텍스트에 대한 이론 연구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은 전세계 불교계에서 가장 정통성을 인정받는 남방불교 국가들이 상좌부불교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상좌부불교는 붓다의 직설을 담은 경장보다는 경장에 대한 주석서인 〈아비담마〉와 〈청정도론〉을 절대적 준거로 삼는다.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통해 살펴본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에는 붓다의 직설과 상충되는 내용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사마타 수행과 관련된 부분이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아래에 인용된 문구는 〈대념처경〉과 〈안반수의경〉의 신념처 수행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 며 공부짓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온몸을 경험하면서' 이다. 이 표현에 대해 이론 연구분야에서의 지배적인 해석은 몸은 호흡을 가리키고 '온몸' 은 호흡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몸이 호흡을 가리킨다고 해석할만한 근거는 〈안반수의경〉에서 다음과 같이 발견된다.

"비구들이여, 이 들숨과 날숨은 몸들 가운데서 한 가지 (형태의) 몸이라고 나는 말한다."

여기서 호흡이 한 가지 (형태의) 몸이라는 의미는 호흡이 몸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인 지, 수, 화, 풍 중에서 바람의 요소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주석서는 해석한다. 저자는 호흡이 한 가지 형태의 몸이라는 말은 호흡이 신념처에 속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윳따 니까야〉 '까마부경' 에 까마부 존자가 호흡이 몸의 작용이라고 설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호흡은 몸에 속하는 것이고 이런 법들은 몸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몸의 작용입니다."

저자는 이 인용문 호흡이 몸에 속하며 호흡이 몸의 작용(신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몸에 속하는 것은 호흡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몸의 작용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안반수의경〉에서 신념처 분에 '호흡은 몸들 가운데서 한 가지 몸이라고 나는 말한다' 라는 구절이 나오고 수념처분에 '호흡을 잘 마음에 잡도리하는 것은 느낌들 가운데서 한 가지 느낌이라고 나는 말한다' 는 구절이 나온다. 저자의 생각에 첫 번째 인용문은 호흡이 신념처 수행에 속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두 번째 인용문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수념처 수행에도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수념처에도 속하는 이유는 호흡을 느낌으로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저자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한다. 그 이유는 〈대념처경〉과 〈안반수의경〉으로부터 인용한 문장들에 '온몸을 경험하면서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을 하라' 는 가르침에 이어서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을 하라' 는 가르침이 나오기 때문이다.

즉, '온몸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호흡은 수행의 시작과 끝
사마타 수행 의한 집중력
알아차림, 마음챙김 연결

온몸을 경험하면서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을 수행하는 것과 몸의 작용이 연관이 있다는 것' 이다. 실제 수행에서 온몸을 경험하면서 혹은 느끼면서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을 수행하다 보면 마음챙김의 장이 온몸으로 확대되어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예를 들어, 긴장, 무거움, 가벼움, 통증 등에 의한 느낌, 떨림 등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이 가능해지며 삼매가 계발됨에 따라 삼매의 요소인 희열과 행복도 계발되게 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을 진행함에 따라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편안해지면 마음에 희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몸의 거친 느낌들이 미세한 상태로 변하며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더 나아가 호흡과 몸의 느낌이 하나인 듯 경험되며 호흡을 느낌으로 알아차리게 된다. 호흡도 한 형태의 몸이라는 해석과 수행 체험 내용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몸을 호흡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호흡을 마음챙겨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때 몸의 작용, 마음의 작용도 편안히 하게 되며 사념처의 네 대상영역에서의 마음챙김 수행도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사념처 수행을 할 때 온몸을 경험하는 것은 신, 수, 심, 법의 사념처 수행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며 동시에 사마타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을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몸(신)과 마음(수, 심, 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온몸이 마음챙김의 장이 되고 이어서 마음챙김의 장이 마음으로 확대되고 마음챙김과 알아차림 수행에 의해 삼매가 길러지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밖으로 관찰하고 꿰뚫어 보는 위빠사나 수행으로 전이되게 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저자는 주석서들처럼 몸을 호흡으로 해석하며 온몸을 호흡의 시작과 중간과 끝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제 수행의 맥락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온몸에서 몸이 호흡을 의미하고 온몸은 호흡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경우 사마타 수행이 강화되어 강한 집중력으로 호흡의 흐름을 더 면밀히 마음챙겨 알아차리게 된다.

한편, 온몸을 문자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을 수행하면 집중력이 계발됨에 따라 호흡의 흐름 전 과정에 대한 분명한 알아차림이 계발되고 호흡을 몸의 느낌으로 알아차리게 된다.

호흡의 흐름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은 '온몸' 을 호흡의 시작과 중간과 끝으로 해석하고 수행하는 경우와 똑같은 결과이다. 차이점은 '온몸' 을 호흡의 시작과 중간과 끝의 의미로 해석할 경우 사마타 수행의 성격이 강화되어 신통력이 개발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반면 온몸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일 경우 마음챙겨 알아차리는 수행이 성숙되어 삼매가 계발되면 신념처에서의 위빠사나 수행으로 전이되게 된다.

이것은 호흡과 몸의 느낌이 통일되게 되면서 마음챙김의 장이 호흡에서 몸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과 신념처 수행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어 〈안반수의경〉에 나오는 지침대로 호흡과 신념처 수행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이 성숙되어 집중이 신장되면 몸의 작용(신행)도 가라앉고 삼매의 요소들인 희열과 행복도 계발된다. 이것은 '온몸' 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수행할 경우 호흡에 대한 명상 수행이 사념처 수행과 결합된 형태로 이뤄지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뜻한다.

저자는 〈대념처경〉과 〈안반수의경〉의 내용에 비춰 볼 때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은 사념처 수행과 결합된 형태로 이뤄지도록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고루 수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대념처경〉을 보면 마음챙김 명상법은 먼저 사마타 수행을 닦아 삼매를 계발하고 이어서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병행하는 수관(隨觀)을 닦고 나아가 삼매의 힘의 지원을 받아 위빠사나를 수행하여 통찰지의 계발에 이르는 과정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마음챙김의 장이 몸으로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연기법, 무상, 고, 무아 같은 법의 통찰은 신념처를 비롯하여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의 장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관찰하는 위빠사나 수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대념처경〉을 보면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에 이어서 몸의 작용(신행)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가르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의 의미가 호흡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고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이 완전히 그릇된 길로 이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사마타 수행 일변도로 치우쳐 신통력이 계발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경장에 보면 사마타 수행에 의해 길러진 신통력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만 신통력이 붓다의 명상법의 목표는 아니다. 붓다가 〈삼매경〉에서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한 것 외에도 오력의 가르침을 보면 다섯 가지 기능들 '믿음, 지혜, 삼매, 정진, 마음챙김'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음챙김이다.

저자 : 이자연 박사





대행 스님

부처라는 것도 벗어나야 부처입니다

생사, 열반이 둘이 아니라는데

질문 불법에는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생사, 열반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될 듯 말 듯 알쏭달쏭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신다면 채찍 삼아 새롭게 정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여러분이 안방에 가도 도량이요, 마당에 나가도 도량이요, 또 변소에 가도 도량인 것입니다. 거기 부처가 계시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의 자성 삼보에 과거 삼(過去三), 현재 삼(現在三), 미래 삼(未來三), 그 삼세(三世)가 그대로 한마음으로 귀정이 되고, 그것이 한 불심의 기둥으로 바퀴가 되어 돌아가니 찰나찰나 우리가 찰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이 인간 됨됨이부터 돼야지, 만약에 인간이 되지 못하고 혹 불심을 가지고도 습을 떼지 못한다면, 깨쳤다 하더라도 다시 미(迷)해지는 그러한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치기는 쉬워도 성불하기 어렵고, 성불하기는 쉬워도 열반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만 여러분이 이 '세 단계 없는 세 단계'를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다면 생과 사가 열반입니다. 생과 사가 그대로 열반과 둘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색(色)과 공(空)이 둘이 아니요,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이 둘이 아닙니다. 만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공한 세계와 우리 색의 세계가 어떻게 둘입니까? 색의 세계가 바로 찰나찰나 돌아가니 공의 세계요, 공의 세계가 바로 색의 세계지, 이게 어디 둘입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것이, 셋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참다운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가는 한편,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공업기술도 아주 급진전해서 다른 나라보다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볼 때,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네 연배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쫓기는 세월을 보냈는지 말입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 왔는지,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것만 알고, 내 것만 알고 남의 것은 모르고, 바다로 나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 재료는 발견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모두 유교로만 했지 그 넓고 넓은 불법의 진리를 탐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 모두 내 가정만 편안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주의여서 우리는 연구도 못 했고 발전도 못 했기 때문에 남의 치하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뼛속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바람 잘 날이 없는데도 자기를 뒤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정신력을 상실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래서 조그마한 집 한 덩어리를 그냥 태워 버리려 합니다. 어른이나 애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력으로써 중용을 할 수 있고, 만물의 영장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찰나찰나 자재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시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만 하는 데가 절이 아니라 마음을 계발하고 실천에 옮기는 실상 그대로가 우리 생활인 줄 아시고,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대로 좌선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24시간의 반을 몸을 조아리고 앉아서 좌선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공했으니 내 몸과 마음의 뜻을 다 그 자리에 놓고 그냥 살림을 한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게 좌선입니다.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온갖 생활을 다 해도 그것이 바로 좌선이고요. 내 마음 안이든 내 마음 바깥이든 어디든 머무르지 않고 그대로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공한 도리,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안다면 그게 좌선이에요.

이거는 사도(邪道)다, 이거는 진도(眞道)다, 정도(正道)다, 또는 대도(大道)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가른다면 언제 한마음이 되며, 언제 모든 것을 버려서 내가 모두 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야 내가 모두 얻고 내가 얻어서 전부 내 거 아님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모두 줄 수 있고 모두 항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천당, 지옥이 정말 있나요?

질문 천당, 지옥이라는 게 정말로 있나요? 우리 마음에 따라 마음이 즐거우면 천당이고 힘들면 지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천당, 지옥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은 천당 지옥이라는 것을 '천당이라니까 천당인 거고 지옥이라니까 지옥인가 보다.' 이렇게들 그냥 유유히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에누리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을 해서 독사같이 살면 독사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소같이 살면 소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면 사람으로 나올 것이고, 개같이 살면 개로 나올 것이고…, 하하하.

그런데 오간지옥이니 칼산지옥이니 또는 독사지옥이니, 이 모든 지옥 지옥의 이름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다' 하면은 짐작으로만 그냥 '지옥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살다가, 땅속에서 기어 다니는 벌레의 모습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독사같이 살았으면 자동적으로 땅속으로 다니는 독사 소굴에, 독사의 암컷 수컷이 행하는 거기다가 그 영령이 집어넣어져서 그냥 독사의 모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독사가 그냥 독사로 살아왔으면 별 문제인데, 사람으로 살던 의식이 독사로 들어가서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독사로 산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살듯이 어떠한 한 몫어치만 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간지옥으로 떨어진다' 고 하는 말은 전부 헌갓쟁이 모양으로 다니며 그저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은 땅속 깊이 뚫고 다니는 이런 것들 소굴에다 그냥 넣어진다는 말입니다. 넣어진다면 땅속으로 기어 다니는 벌레가 될 테니까 그 의식이 어떻겠습니까? 지옥이죠? 그 조그만 데로 들어갔으니까. 지옥인 데다가 그것이 진화돼서 또 인간까지 벗어나려면 얼마만큼 헤매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공덕을 쌓아라, 공덕을 쌓아라. 좋은 일 하고, 좋은 생각 하고, 좋은 행동 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고, 사대성인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술 더 떠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다 놔라." 이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쁜 일이 또 거기 끼어들게 마련이니까 나쁜 일도 놓고 좋은 일도 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점에서 그런가. 나쁜 일, 좋은 일을 막론하고, 그 생사윤회 속에서 완전히 해탈해서 벗어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철 좋은 일을 해서, 그 선덕으로 인

☞ 22면으로 계속



생사윤회 속에서 그냥 벗어나라

☞ 21면에서 계속

해서 좋게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산다 하더라도 그게 해가 가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나쁜 일도 하게 되니까, 또 짓게 되니까 아예 '생사윤회 속에서 그냥 벗어나라' 이런 뜻에서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또 지금 나도 길잡이로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 철 요렇게, 한 생을 요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해를 다니면서 공부했다거나 짧은 시간에 내가 공부했다거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해를 공부해도 '정(定)'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뭐, 10년 20년이 가도 소용없고, 소용없는 건 아니지마는 더디다 이거죠. 그런데 몇 달 안 됐어도, 몇 해가 안 됐어도 정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디고 빠르고가 없다는 얘깁니다. 오래 배웠고 늦게 배웠고 이것이 없다 이 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 안에, 마음이라는 것이 이름이지 '이름 없는 마음' 여기에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해서 방편으로 부르는 겁니다.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연방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도 어처구니없이 나쁜 일로 돌아가게끔 자꾸 만듭니다, 그렇게 업보에 입력이 돼 있어서. 지금 현실에서 아무리 착하게 행을 잘하려고, 말도 잘하려고 하지만 앞서 입력됐던 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빗나가든 빗나가지 않든 '무조건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 이겁니다. 무조건 맡겨 놓는다. 믿지 못하면 맡겨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고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쉴 사이 없이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자동적으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그 어마어마하게 입력됐던 팔자 운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망했다 이런 것도 남의 탓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빨리 수습을 하는 길은 '내 탓이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모두 얽히고 얽혀서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지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만이 그 얽힌 거를 풀 수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맡기는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작업이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지켜보는 관법(觀法), 즉 관해 봐라, 지켜봐라 이거죠.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다스려 가면서 체험하는 것이 아주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면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냥 급하게 닥치면 아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곤 방방 뛰어요, 그냥. 나온 자리에다 다시 놔야 할 텐데, 내보낸 자리에다 도로 놓고, 내보낸 놈더러 해결을 하라고 그래야 빨리 수습이 되는데, 엉뚱하게 딴 데다가 그냥 전부 깔아 놓고는 온통 팔팔 뛰니까 이건 더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참 돌다가 생각이 나면 그때서야 놓으니 이미 차 지나간 자리 아닙니까? 하하하….

그래서 "컴컴하면 불을 켜면 되고" 이 소리가 나옵니다. 왜 컴컴하게 삽니까? 컴컴하면 불을 켜서 밝게 살고, 배가 고프면 먹고, 소화시켜서 똥 누고 싶으면 시원하게 똥 누고, 편안하게 잠자고 싶으면 잠자라 이겁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이치가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한 시간의 꿈입니다. 한 시간의 꿈! 한 시간의 꿈을 훌떡 벗어나면 세세생생에 끝간 데 없이 그냥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벗어나면 뭐가 되느냐고 또 따지겠죠?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따집니다. 그러나 벗어나면 벗어나는 거지 뭐가 그렇게 탓이 많고 이유가 많습니까.

> **아무리 이 세상 이치가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 **한 시간의 꿈입니다, 한 시 간의 꿈!**
> **한 시간의 꿈을 훌떡 벗어나면 세세생생에 끝 간 데 없이**
> **그냥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배우들이라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임을 맡아서 주어진 역들을 합니다. 그렇게 소임 소임, 자기 잘하는 대로 소임을 맡아서 이 세상에 나오는데,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다, 남한테서 받아 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감독이 되라 이거죠. 즉 말하자면 옥황상제도 벗어나야 됩니다. 하하하…, 부처라는 것도 벗어나야 부처입니다.

미운 상대는 안되길 바라는 마음이…

질문 마음공부 하는 불자로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상대에게는 좀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 내가 만든 인연이라고, 둘이 아니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이 가슴으로는 한마음이 되질 않아 속상합니다.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한마디 좀 따끔하게 해 주세요.

답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하도 못살게 하고 회사를 망하게 해 놓고 돈도 한 푼 안 주고 그래서 아예 그냥 거리로 나앉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주 너도 거리로 나앉아 봐라. 거리로 나앉아 봐라.' 그러고 한바탕 원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사글세를 사는데, 아 글쎄, 그 사글세도 내놓으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 가지고는 야, 이거 나쁜 사람은 오히려 살고 나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그러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야! 이심전심이야. 당신의 마음이 그러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야.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 남을 원망하지 마. 말하자면 사인을 받지 않고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으냐. 똑똑히 하라는 거지, 부처님 법이 그렇게 잘못하라는 게 아니지 않냐?" 이랬죠. 그러고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잘돼서 참, 그 뜻을 알아서 날 좀 도와주게 하는 것도 주인공밖에 없겠지.' 하고 거길 믿어라." 그랬는데, 그해 일 년이 지나갔습니다.

일 년이 지난 후 하루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는 조금 나아졌으니, 전세 든 내 집을 당신 명의로 해서 들라." 그러더랍니다. 그게 사천만 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아, 그거라도 받았으니 얼맙니까? 그 뒤에 또 쌀도 들여보내 주고 이러니 돈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더욱더 친절해지고 더욱더 서로를 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되찾고도, 거기 같이 일을 하게 됐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남을 원망하기보다도 나부터 돌아다볼 줄 알아야 되죠. 지금 그 말도 그 뜻이에요. 그저 남을 원망할 생각은 조금도 마세요. 나는 나를 버리고…, 갔다든가 온다든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세상에는 그거보다도 더한 것도 다 버리고 가고, 내 몸도 이젠 벗어야 할 그런 처지에 구태여 무슨 뭐, 누가 어쩌니…. 아니, 씻고 닦고 하던 것도 다 버리고 떠나는데 그까짓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서 안 되느니, 저렇게 해서 안 되느니…,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려걸랑 그저 '네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까' 하고 스위치를 탁 올리면 거기에도 불이 들어오거든요. 한 방이니까, 한 식구들은 한 방이거든요. 한 방의 스위치가 다 한 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어떻고, 요놈 조놈 하고 그럭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저 위로도 아래로도 전부 한마음이 돼서, 보이지 않는 데서나 보이는 데서나, 위로 조상들이 나를 돕고 아래로 자식들이 따라서 또 도와 간다면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자식들이 어디 가도 잘 살죠. 자기 2세거든.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모습을 바꾼 거지. 그런 것뿐이니까, 자기가 잘 살도록 자기가 해야죠. 원망하지 마시고요.

병이 재발하니 마음이 힘들어요

질문 제가 몸에 병이 있었는데 열심히 관했더니 한 2년 동안 괜찮아서 안심했는데 다시 재발을 하니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관하는 힘이 부족한 탓일까요?

답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하죠? 그럴 때에 자갈하고 모래하고 양회를 쳐 넣고는 그냥 들이 다지죠? 첫 번부터 기초가 잘돼야 어느 집이든지 쉽게 헐어지지 않습니다. 너그럽고 지혜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병 붙을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안의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돼서 둘이 아닌 도리를 이 속에서 모두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사람이 그 도리를 완전히 모를 때, 집을 지을 때 기초하듯 다지고 또 다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 병이 일어나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하고 테스트를 하는 도리를 모르십니까? 병이 아니라고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도리가 있는가 하면요, '병에 걸릴 수가 없다. 병은 재료고 나를 가르치기 위해 바로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건 이리 찔러 보고 저리 찔러 봐도 뭐 그냥 하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하고 물러서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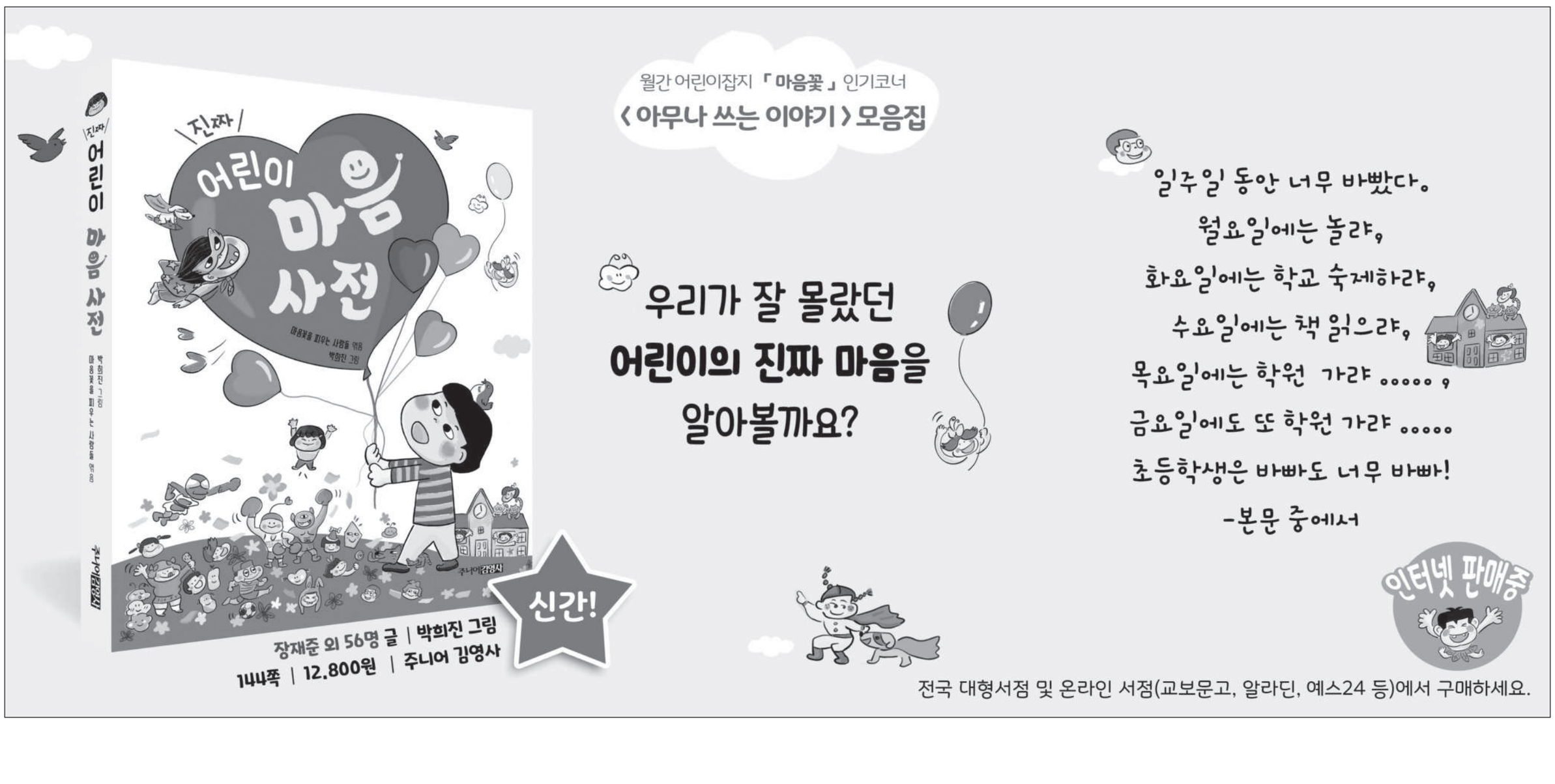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나를 내가 발견했을 땐 내 스승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 스승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는 스승을 발견해서 스승한테 채찍을 맞는 겁니다. 맞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는 그런 경고도 나올 뿐만 아니라 못된 짓을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하하…. 그냥 누(累)가 되게, 저기 나가서 그저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고 그냥 함부로 해 버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믿는 반면에 '당신에 누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 하고 다시금 돌려놓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지혜로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툼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시금 재출발을 합니다. 재다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 기초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기초를 어쭙잖게 해 놓으면 벽에 금이 가고 전부 이게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는 기와인 것도 그냥 잘못돼 가지고 씰그러지고 일그러지니까 전체 비가 새고 그럽니다. 그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병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몸을 가졌는데 어찌 아프지 않으리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아프다 하면은 콧방귀 뀝니다. 하하하…. '네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네 몸이 아플 땐 어떻게 하겠는가?' 할 때, '허, 참! 맘대로 해라. 네 몸 네가 끌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겠니? 네 몸을 네가 끌고 다니는 거니까 심부름을 시킬 만하면 그냥 끌고 가고, 이제 이런 거는 심부름도 못 하겠구나 할 때는 옷을 벗기든지 맘대로 해라. 입히는 것도 벗기는 것도 너 알아서 해야지.' 그러고는 또 한 번 생각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옷을 벗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벗겨야지, 너 그렇잖으면 흔나!' 하하하….

혼낸다는 거는 이렇게 상대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니까 나를 없애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두고서 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경계가 되고, 상대가 되고 이러니까 안 되죠, 그건.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원자라면 원자에서 입자가, 분자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서 완성이 된다면 그것이 또 원자가 되구요. 마음이 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피가 늘어나도 늘어남이 없고, 또 많이 넣어도 두드러짐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냥 자유자재하게 내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쥐고 있다는 결론이죠. 여러분이 마음이 밝으면 태양계도 여러분이지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에다 그거를 그냥 넣으면 그것이 그냥 재생돼 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이 될 때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아까도 과거고 조금 아까도 과거니까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도 지금 있었던 자리가 과거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과거 자리, 현재 자리가 따로 없이 그냥 자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현불 논단

사찰 미술관, 문화포교 아이템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제주 중광미술관 건립 본격화
오는 2025년 건립 완료 예정

미술관 · 박물관, 문화의 척도
문화 · 예술의 중심 곧 '미술'

고승 · 불자 예술가 전시 전문
사찰들 미술관 건립불사 통해
지역 문화의 선진화 기지돼야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8일 '중광제주도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에 제주 저지문화예술마을에 건립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이호재 가나아트센타 대표가 중광 스님 작품 432점을 수집한 것을 스님의 고향인 제주도에 기증해 성사됐다.

"관심이 있어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우리 곁에 함께 했던 중광 스님의 미술작품이 그런 것 같다.

중광의 예술세계를 최초로 인정한 사람은 미국인 버클리대학교 랭카스터 교수이다. 그가 통도사 초대박물관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적에 처음 만났다. 랭카스터 교수는 중광의 방에 걸린 수십 점의 달마도를 보고는 '한국의 피카소'라고 경탄했다.

선(禪)은 정적인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시문학, 서예, 그림 등 예술세계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추사 김정희의 예술세계가 그렇다. 중광미술관의 건립 소식을 접하면서 고승, 불자 예술가들의 훌륭한 선화나 서예작품, 도자기를 분야별로 수집해서 미술관을 건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가 경제, 사회, 종교 등 사회 발전과 방향을 학문적 이론으로 밑받침한다. 문화의 중심은 예술이고, 예술의 중심은 미술이다. 요즘 여행은 테마 문화 기행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시다. 미술관이 수십 개이고, 종류도 많아 박물관의 종합도시라 할 만하다.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볼거리가 다양하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방분산 문화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의 사찰이 중심이 되어 지방문화의 시대를 여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럽여행은 각국의 중세시대 건축물인 성당과 미술관, 박물관 견학이 주류를 이룬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은 미술품에 중점을 두었고, 유럽의 근대적 박물관 또한 대부분 미술관 중심이다. 르네상스시대 예술품과 근현대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수덕사 입구에 있는 선미술관은 우리의 예술적 심미안을 키워준다. 이응노 화백의 문자 추상화는 독창적인 미술세계를 창조했다. 전국의 교구본사와 규모있는 사찰에서 달마도 · 선묵화 미술관, 사경 · 변상도(판화) 미술관, 경판 · 불경 박물관, 근대불교서적 도서관, 발우 · 가사 · 불구(佛具)도자기 박물관, 불교공예 예술관 등 전문불교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건립된다면 국가 예술계에 이바지 할뿐만 아니라 절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되어 불교문화 포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귀중한 문화재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재이다. 옛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추구해야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새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불교계는 이 점을 뼈아프게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가을 이사철이다. 며칠 전 아파트 재활용터에 인간무형문화재인 삼락자(三樂子)의 달마도와 전서체로 쓴 '반야심경' 액자가 버려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실수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한 것 같다. 사찰에 미술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었다면 이런 귀한 불교작품을 기증하였을 것이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가는 수집한 예술품을 시정부에 기증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미술관을 보유하게 되었고, 세계의 미술시장, 산업디자인까지 주도하고 있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산물이다.

社 說

봉은사 땅 환수, 역사 되찾는 불사

조계종이 11월 17일 2014년 현대차 그룹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부지 일부를 환지본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이 언급한 한전 부지는 2014년 9월 현대차그룹이 한전으로부터 약 10조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로 1970~1971년 당시 상공부는 봉은사 경내지를 매입했는데, 이 부지는 이후 환지(換地) 작업을 통해 현재 한전 부지로 자리가 바뀌었다.

사찰 경내지 매각에 대한 불교계 반대에도 당시 실력자이던 이후락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종단 간부 회의에 참석하고 총무원에 넣은 압박으로 매각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국가권력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개입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권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다. 이후 한국전력은 현대자동차에 부지를 매각했고, 다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삼보정재를 강탈당한 불교계는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한전의 토지사용을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아니다.

특히 조계종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매각된 토지는 엄연히 봉은사 경내지였다. 위법적, 초법적 행위로 인하여 강탈당한 봉은사 경내지를 찾는 것은 역사와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이다. 봉은사 토지 환수는 수천년을 지켜온 민족문화유산이 특정인과 정권의 강압에 의해 침탈당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봉은사 경내지는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중에서도 불교가 지켜낸 소중한 삼보정재다. 이러한 선조들이 지켜온 역사문화가 개발논리로 없어진다면 이는 1700년 한국불교사가 사라지는 것과도 같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은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다. 봉은사 경내지 환수를 통해 역사문화 전승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놓기를 기대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속히 개회를

조계종 중앙종회 222차 정기회가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의 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수차례 유회했고 결국 폐회하면서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았다.

수차례 반복된 유회의 원인이 집행부를 향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보이콧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어떤 이유든 중앙종회가 정기회를 속개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의사일정 만료를 하루 앞두고 집행부 부실장 스님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사태는 좀처럼 안정되지 못한 채 자동폐회라는 최악의 결과를 빚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망발'에 대한 집행부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은 어찌보면 외부적인 요인일 수 있다. 그 이면에 집행부와 중앙종회 간 소통의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해 그동안 누적됐던 앙금이 있지는 않을까.

중앙종회와 집행부는 종단을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종회 파행은 여러모로 아쉬운 측면이 있다. 무엇을 위한 파행이었고, 이를 통해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이번 파행의 책임을 안고 소임을 마무리했고, 정청래 의원의 망발을 규탄하는 종단 차원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다. 종회 파행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거칠 만한 가치가 있는, 바람직한 결론인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종회는 이제 임시회를 열고 예산안 등 미뤄둔 안건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결과가 됐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회와 집행부가 종단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마음에 새겨진 환자 이야기

위드코로나로 돌아서면서 환자들을 맞이할 생각에 법당을 정리하며 새로 단장을 하게 된다. 물티슈 등의 물품도 헤아리고, 뭐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게 된다. 5년을 넘게 장엄으로 두었던 한 보호자의 선물을 정리하게 됐다. 봉사자들이 버리자고 해도 못 버리고 있다가 이제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내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던 한 환우분의 이야기를 하려한다.

병실을 라운딩할 때 1인실 병실을 들어갈 때는 조심스럽다. 그래도 문을 노크하며 들어선 병실은 마침 임종을 앞둔 불자가 있는 병실이었다. 딸이 어머니의 간병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도선사의 신심있는 불자로서 평생 부처님을 의지하며 사셨던 분"이라고 딸은 몇 번을 강조했다.

환우의 머리맡에는 평생 기도했을 천주염주와 다낡아 너덜너덜한 〈천수경〉이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딸은 아침 새벽마다 〈천수경〉을 독송하는 어머니의 염불 소리에 눈을 떴다고 한다. 아들과 딸을 낳고 일찍 사별한 남편을 대신해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내며 헌신한 분이었다고



그림 · 최주현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얼마 전 어머니를 보기위해 다녀갔단다. 그때만해도 눈을 맞추며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아들이 가고 난 후 마음을 놓으셨는지, 아니면 상심을 해서 그런지 급격히 안 좋아졌다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나는 환자에게 다가가 "보살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들리시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라고 말하였다. 환자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나무 잎사귀처럼 바짝 마른 환자의 손을 잡았다. "보살님 이제 부처님께 가려고 준비 중이시죠." 환자의 감고있는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 부처님이 보살님 모시러 오실 겁니다. 보살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명호를 마음으로 부르고 계셔야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하고 짧은 기도 후 병실을 나왔다.

그리고 다른 병동을 돌다가 두어 시간 만에 다시 환우의 병실로 돌아왔다. 환우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 보였다. 나는 환자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해야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보살님 부처님 명호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거죠"하고 말해보았다.

그런데 그 환자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 깜짝 놀랐고 온 힘을 다해 부처님을 부르는 보살님의 간절함이 느껴져 그만 눈물이 터졌다. "보살님, 끝까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나는 환우의 딸과 함께 눈물을 흘려가며 임종 기도를 하며 환자를 배웅했다.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의 명호를 놓지 않으셨던 그 보살의 정진의 힘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이 1700년 민족문화유산을 폄하, 비난, 모욕한 발언에 대해 먼저 우리가 성찰하며 국민들께 참회합니다.

거룩하신 불보살님께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기꾼으로 매도한 초유의 사건 앞에서 저희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 지도부와 대통령 후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는 우이독경 식으로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아 뜻있는 이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록 전통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필부의 망언일지라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오늘날 한국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준엄한 현실임을 자각합니다. 문화유산이라는 선대의 업적에 의지하느라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근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불교문화를 창조하고 지혜와 자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바깥 경계의 시비를 가리기보다 스스로를 먼저 엄정하게 성찰하라는 부처님 법에 입각하여 먼저 우리 자신의 허물부터 참회하면서 발원합니다.

부처님, 저희들은 보살의 바라밀행으로 스스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부처님, 저희들은 부처님 정법을 바탕으로 세상의 근기에 수순하는 현대화된 불교를 정립하겠습니다.
부처님, 저희들은 세상을 교화하여 뭇 생명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실천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부처님 법을 온전하게 후세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기에 전통 문화유산과 교단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사찰과 사찰, 불자와 불자를 총 결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민족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선양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고,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들이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을 출당 조치하라.
정부는 전통 문화유산 보존과 계승을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하라.

오늘의 참회 정진을 통해 저희들은 불교의 혁신과 발전, 세상일에 참여하는 일에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던 과거와 아프게 결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불교 재건의 거센 강물로 흐르게 할 것입니다.
제불보살님이시여, 선각조사 선지식들이시여, 가피하여 주시옵고 옹호하여 주시옵소서.

불기 2565년 1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집행부 소임자 일동